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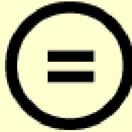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학위논문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연구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梁 海 勝

초록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연구

梁海勝

주관량(主觀量, Subjective Quantity)이란 언어의 주관성이 언어화된 양범주에 반영되어 형성된 개념으로서, 중국어학계나 영어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지언어학의 중요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어 주관량 연구는 주관량에 대한 정의, 주관량의 생성원리, 구분기준,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한국어의 실례를 살펴보며 주로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에 대해 연구하였다. 첫째, 주관량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개념들, 즉 주관량의 형성과정, 정의, 참조량, 생성원리, 그리고 한국어 주관량의 구분기준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다. 둘째, 형태론적 차원에서 형태소와 단어에 의한 한국어 주관량 표현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통사론적 차원에서 주로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의 양상과 복합 통사적 표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의 양상을 다룰 때 의미협력과 의미변형 이론을 적용해 보았다. 넷째, 그 외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주관량 표현을 살펴보았다. 1) 조어론적 차원에서 중첩, 그리고 지소사(指小辭)와 지대사(指大辭)에 의한 한국어 주관량, 2) 과장적 표현, 특히 수사가 들어 있는 과장적 사자성어에 의한 한국어 주관량, 3) 음운론적 차원에서 억양, 강세, 음장, 그리고 음운 교체에 의한 한국어 주관량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주관량 표현을 다루며 인지언어학의 주관성과 주관화 이론, 현저성 이론, 의미확장양상 이론, 영상도식 이론, 은유 이론, 도상성 이론, 의미협력 및 의미변형 이론 등을 적용해 보았다. 한국어의 주관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학문의 빈자리를 메우고 주관량과 관련된 많은 미해결 과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주관량, 참조량, 주관 대량, 주관 소량

학 번: 2011-31245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과 대상 1
1.2. 기존 연구 검토 2
1.3. 논의의 구성 9

2. 기본적 논의 11
2.1. 양범주와 그 언어적 표현 11
2.2. 언어의 주관성과 주관화 12
2.3. 주관량의 개념 19
2.3.1. 주관량 정의와 형성원리 19
2.3.2. 참조량과 관점 21
2.3.3. 주관량의 구분 기준 26

3. 주관량의 형태적 표현 30
3.1. 형태소·단어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 30
3.2. 주관 대량 33
3.2.1. 초과 35
3.2.2. 일치 44
3.2.3. 미달 57
3.3. 주관 소량 59
3.3.1. 초과 61
3.3.2. 일치 63
3.3.3. 미달 74
3.4. '-도', '-까지', '마저'의 양면성 78

4. 주관량의 통사적 표현 88
4.1. 단순 통사적 표현 89

4.1.1. 주관 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89
4.1.1.1. 주관 대량과 긍정적 표현..89
4.1.1.2. 일치...96
4.1.1.3. 미달...101
4.1.2. 주관 소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105
4.1.2.1. 주관 소량과 부정적 표현..105
4.1.2.2. 일치...110
4.1.2.3. 미달...119
4.2. 복합 통사적 주관량 표현...124
4.2.1. 의미협조 및 의미변형...124
4.2.1.1. 의미협력 현상...125
4.2.1.2. 의미변형 현상...129
4.2.2. 주관 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132
4.2.2.1. 초과...132
4.2.2.2. 일치...133
4.2.2.3. 미달...134
4.2.3. 주관 소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136
4.2.3.1. 초과...136
4.2.3.2. 일치...137
4.2.3.3. 미달...139

5. 주관량의 다른 표현...141
5.1. 주관량의 조어론적 표현...141
5.1.1. 중첩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141
5.1.2. 지소사와 지대사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163
5.2. 과장 표현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176
5.2.1. 향대과장에 의한 주관 대량의 양상...179
5.2.2. 향소과장에 의한 주관 소량의 양상...181
5.2.3. 과장적 사자성어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183
5.3. 주관량의 음운적 표현...191

5.3.1. 운소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191
5.3.1.1. 억양......192
5.3.1.2. 강세와 음장......196
5.3.2 음운 교체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205
5.3.2.1. 모음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의 양상......211
5.3.2.2. 자음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의 양상......232

6. 결론......239

＜참고문헌＞......246

＜Abstract＞......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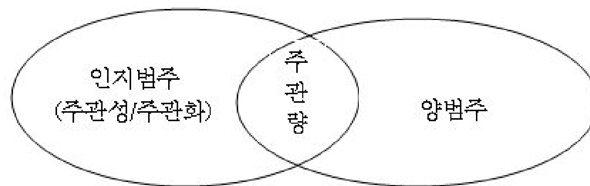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대상

본고는 '주관적 양범주', 즉 '주관량(主觀量, subjective quantity)'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형태·통사·음운적 차원에서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언어적 규칙을 탐구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주관량이란 언어의 주관성과 주관화가 양범주에 반영되어 형성된 개념이다. "우리는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양을 그저 피동적으로 언어에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흔히 우리는 여기에다 주관적인 느낌이나 태도, 평가 등을 첨가하는데 이는 곧 객관량에 주관성을 부과하는 것이다"(이선희, 2003: 229; 羅榮華, 2012: 16). 말하자면 주관량 범주는 인지범주에 속한 주관범주(주관성, 주관화)와 언어화된 양범주 간의 교집합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그림 1>과 같이 주관량 범주는 주관성 및 주관화가 양범주에 반영된 것으로서, 인지범주와 양범주의 교집합이라 할 수 있다.

언어의 주관성이 언어화된 양범주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량은 주관적 언어 심리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화된 양범주에 대한 이런 심리적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려면 참조량(參照量)이 필요하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참조량이 있어야 화자는 어떤 대상의 수량에 대해 '많다'거나 '적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의 수량이 참조량보다 많다

고 평가될 때 주관 대량(large subjective quantity)이 되고, 반대로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될 때 주관 소량(small subjective quantity)이 된다. ‘참조량과의 비교’는 바로 주관량 형성의 심리적 원리가 된다.

주관량이 형성되고 나서 ‘많다/적다’의 평가는 해당 언어적 표현, 즉 주관량 표현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형태적 수단은 부사(‘벌써, 단지, 겨우’ 등), 의존명사(‘뿐’ 등), 조사(‘만, 도, 까지, 조차, 마저’ 등) 등이고, 통사적 수단은 ‘무려~-(이)나’, ‘-에 불과하다’ 등이며, 음운적 수단은 억양, 음장, 강세 등이다.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래와 같이 몇 가지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1) 가. 컵에 물이 반이 들어 있다.
나.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1가)는 객관적인 진술이며, (1나, 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이다. 양이 같은 반 컵의 물인데 이는 화자가 상정한 참조량이 있고 이 참조량과 비교해서 같거나[(1가)], 많거나[(1나)], 적다고[(1다)] 평가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1나)에서 ‘이나’와 결합하여 나타난 ‘반’과 (1다)에서 ‘-밖에 없다’와 결합하여 나타난 ‘반’은 주관량이며, ‘-(이)나’, ‘-밖에 없다’는 주관량 표현이다.

1.2. 기존 연구 검토

중국어학계나 영어학계에서는 주관량 연구에 대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어학계에서 주관량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왔다. 중국어학계의 대표적인 성과는 馬眞(1981), 施關淦(1988), 張誼生·吳繼光(1994), 陳小荷(1994), 李宇明(2000), 李善熙(2003), 羅榮華(2012) 등이다. 그 중에서 陳小荷(1994)에서 ‘주관량’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명확

히 제시하였다.

주관량 연구는 한국어학계에서도 일찍부터 단편적으로 논의해 왔었는데 “언어의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적 단위로 실현되는 양상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의 체계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채옥자 2014: 62). 한국어학계에서 단편적으로 논의한 주관량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보조사 ‘-(이)나’, ‘-만’, ‘도’, ‘-까지’, ‘조차’, ‘-마저’, 부사 ‘겨우’, ‘고작’ 등에 집중되어 있다.

보조사 ‘-(이)나’에 대하여 최현배(1946)에서는 ‘느낌을 나타내는 토씨’, 채완(1986)에서는 ‘수량이나 정도를 더욱 강조해 주는 기능’, 채완(1998)에서는 “나’가 높은 수에 붙으면 화자는 그 수를 확대 해석하며, 낮은 수에 붙으면 그것이 최소라는 의미를 나타냄’, 허웅(1983, 1995)에서 ‘놀람; 만족함, 넉넉함’, 김석득(1992)에서는 ‘놀람’, 이기동(1993)에서는 ‘기대 이상’, 홍사만(1983, 2002)에서는 ‘확대 감탄적 첨의’, 윤재학(2000)에서는 ‘바람/예상보다 많은 수량’의 의미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보조사 ‘-만’에 대하여 채완(1986)에서는 “-만’은 가능한 자매 항목을 배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량/소수를 의미하는 부사나 수량사구에 연결되면 그 ‘적음’을 강조하여 ‘최소의 한계’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며, 양인석(1973), 홍사만(2002)에서는 ‘축소 제한’의 의미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보조사 ‘도’에 대하여 양인석(1973), 채완(1977, 1986), 홍사만(1983)에서는 ‘극단 예시’의 의미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보조사 ‘-까지’에 대하여 채완(1977, 1986), 고영근(1976)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 ‘극단적인 일’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보조사 ‘조차’에 대하여 채완(1977, 1986, 1998)에서는 ‘화자의 기대 밖의 일’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보조사 ‘-마저’에 대하여 고영근(1976), 채완(1977, 1998)에서는 ‘화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을 주체가 수행하거나, 잘 되리라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됨’을 나타내며, 채완(1977, 1986, 1998), 성광수(1979)에서는 ‘하나 남은 마지막’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부사 ‘겨우’와 ‘고작’에 대하여 이석규(1987)에서는 ‘겨우’의 의미는 새 정보의 양(정도, 수준 등)이 기대치에 못 미침을 나타내고 기대치는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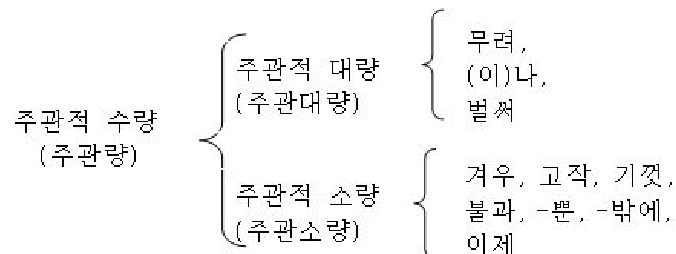
정보보다 높다고 하였고, "겨우'의 기준은 '높은 기대치'로서 새 정보가 드러나기 전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예측한 기대치이다'고 하였으며, "고작'은 겨우'와 유의어라고 할 만큼 의미가 같으며 공기 제약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하였고, '고작'은 낮은 기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새 정보가 '예측했던 대로 보잘 것 없음'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주관량을 다룬 체계적인 연구로는 李善熙(2003), 이선희(2003), 채옥자(2013a, b, 2014a, b), 양해승(2014)을 들 수 있다.

李善熙(2003), 이선희(2003)에서는 중국어를 위주로 유형론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중국어학계에서 큰 성과를 얻었는데 한국어 주관량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못했다.

채옥자(2013a)는 한국어학계에서 처음 '주관적 수량(주관량)'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제기하고 논의한 연구다. 채옥자(2013a: 240)는 한국어 주관적 수량을 주관적 대량과 주관적 소량으로 나누는데 주관적 대량은 '그 수량이 많다고' 하는 평가가 부여된 수량표현이고 주관적 소량은 '그 수량이 적다'고 평가가 부여된 수량표현을 가리킨다고 한다. 주관적 대량 표현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이나 뒤에 쓰여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무려', '-(이)나', '벌써' 등이다. 주관적 소량 표현은 '겨우', '고작', '기껏', '불과', '-뿐', '밖에' 등이 있다고 하였다. 채옥자(2013a: 240)의 주관적 수량(주관량) 표현의 체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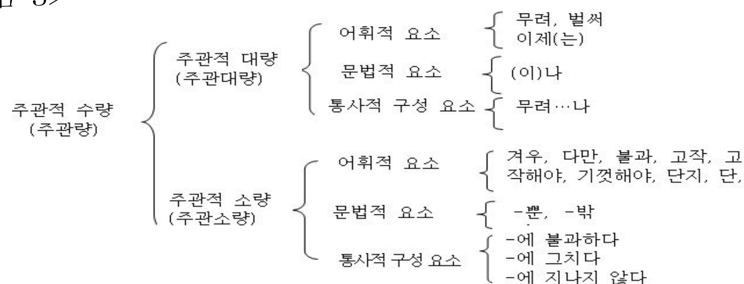
<그림 2>



그런데 채옥자(2013a)에서는 한국어의 주관량에 대한 언급은 너무 적고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주는 데 그쳤다.

채옥자(2013b, 2014a)에서는 화자의 평가 즉 양태를 중심으로 인지언어학적으로 접근하여 주관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었는데 이것은 주관량이 한국어학계에서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데 공헌을 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채옥자(2013b)는 언어의 주관성이 수량범주에서 실현되면 곧 '주관적 수량(주관량)' 즉 '많다'거나 '적다'고 평가된 수량이 형성되는데 이런 주관적 수량은 화자의 예상 수량과 관계되는 경우와 화자의 개인적 조건에 관계되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고 하고, 주관적 대량(주관 대량)과 주관적 소량(주관 소량)은 주로 화자의 인지의 시각 및 기대치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한다. 채옥자(2014a)는 채옥자(2013b)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주관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주관적 수량은 언어의 주관성이 수량범주에 반영된 구체적 표현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부여된 수량이다"(채옥자 2014a: 356). 그리고 채옥자(2014a: 356)에서는 "화자가 어떤 수량을 기준으로 비교함으로써 '많다/적다'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며 '참조수량과의 비교'는 '주관적 수량의 생성기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대량과 주관적 소량은 각각 어휘적 요소(대량: '무려'; 소량: '겨우, 고작, 기껏해야, 단지' 등), 문법적 요소(대량: '-(이)나'; 소량: '-뿐, -밖에' 등) 및 통사적 구성(대량: '무려…-(이)나' 소량: '-에 불과하다, -에 그치다, -에 지나지 않다' 등) 등으로 나타난다고 기술하였다. 채옥자(2013b: 95-101; 2014a: 374)의 주관량의 체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채옥자(2013b: 95-101)

<그림4>

평가의미	언어적 단위 \ 수량대상	사물(동작)의 주관적 수량	시간의 주관적 수량
주관적 대량	어휘적 요소	무려	무려, 벌써, 이제(는)
	문법적 요소	-나	-나
	통사적 구성 요소	무려…나	무려…-(이)나 가(이)+되다(지나다, 넘다+(아/어여)서야, 에야(비로소)
주관적 소량	어휘적 요소	겨우, 고작, 기껏해야, 단지, 단	겨우, 고작, 기껏해야, 단지, 단 이제
	문법적 요소	-뿐, -밖에, 조차, 마저	-뿐, -밖에, 조차, 마저
	통사적 구성 요소	밖에…없다(안 되다) 조차…없다(안 되다) 마저…없다(안 되다) 도…없다(안 되다) -에 불과하다, -에 그치다, -에 지나지 않다.	밖에…없다(안 되다) 조차…없다(안 되다) 마저…없다(안 되다) 도…없다(안 되다) -에 불과하다, -에 그치다 -에 지나지 않다.

채옥자(2014a: 374)

그러나 채옥자(2013b, 2014a)에서는 주관량의 구분 기준, 그리고 주관량 표현을 다루는 체계성 등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해승(2014)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으로 다양한 한국어의 실례를 통해 주로 주관량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 예를 들면, 언어화된 양범주, 주관성 및 주관화와의 관련성, 주관량의 정의, 참조량, 생성원리, 그리고 형태론과 통사론 두 차원에서 수량사구에 관련된 한국어 주관량 표현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양해승(2014)에서 주관량의 범주는 인지범주와 양범주 사이가 주관성 및 주관화에 의해 합쳐져 실현된 교집합이라고 하였고, '참조량과의 비교'는 주관량 형성의 심리적 원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관량의 구분 기준에 있어 '실제량이 참조량과의 비교'와 '실제량이 수량사구(NumP)의 양과의 비교'를 통해 주관량 표현을 여섯 가지로 교차 분류할 수 있음을 보였다. 즉 이에 따르면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은 초과 주관적 대량('적어도, 최소한, 넘다' 등), 중립 주관적 대량['-(이)나, 무려, 물경' 등], 미달 주관적 대량('가까이, 거의' 등); 초과 주관적 소량('남짓' 등), 중립 주관적 소량('-밖에, 겨우, 고작' 등), 미달 주관적 소량('기껏해야, 끽해야, 많아야' 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해승(2014: 139)의 주관량표현의 체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5>

NumP와 실제량 간의 차이 / 주관적 대/소량	'초과'류	'중립'류	'미달'류
주관적 대량	**초과 주관적 대량**: **형태적 수단**: 품사:부사(적어도, 최소한), 동사(넘다, 초과하다, 웃돌다, 돌파하다, 넘어서다, 넘치다)… **통사적 수단**: -만…에 이르다 …	**중립 주관적 대량**: **형태적 수단**: 품사:조사(-나, -까지, -도), 부사(무려, 물경, 벌써, 꼬박, 족히, 실히)… **통사적 수단**: -에 이르다, 무려…-(이)나, -에 달하다, (무려)…-에 이르다/다다르다, -야(-서야)… …	**미달 주관적 대량**: **형태적 수단**: 품사:부사(가까이, 거의)… **통사적 수단**: -에 가깝다… …
주관적 소량	**초과 주관적 소량**: **형태적 수단**: 품사: 의존명사(남짓…), 형용사(남짓하다)… …	**중립 주관적 소량**: **형태적 수단**: 품사: 부사(겨우, 고작, 고작해야, 불과, 단지…), 관형사(단, 단돈…), 조사(뿐, 만…)… **통사적 수단**: -밖에, -에 불과하다, -을/ㄹ 뿐이다, -에 지나지 않다, -에 그치다, -만 해도, -만 되어도, -에 갇혀 있다, -에 머무르다, -에서 제자리걸음하다…	**미달 주관적 소량**: **형태적 수단**: 품사:부사(기껏해야, 잘해야, 최대한…), 조사(마저…) … **통사적 수단**: 끽해야, 많아야, 많아 봤자, -조차 안 되다, -도+부정표현… …

양해승(2014)는 한국어 주관량 표현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이지만 한국어의 주관량과 관련된 표현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채옥자(2014b)에서는 중국어학계의 주관량 연구와 한국어학계의 주관량 연구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주관량의 개념에 대해 좁

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차원으로 정립했다. 즉, 좁은 의미에서 주관적 수량(주관량)은 문장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부여되는 수량이다. 주관적 수량 표현의 의미적 특성은 수량 표현과 통합되어 그 수량이 '많음/적음'을 나타낸다. 주관적 수량 표현의 의미적 기능은 수량에 대한 화자의 양태적 의미 즉 '많다/적다'의 평가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즉 수량에 대한 화자의 '많다/적다'고 하는 [+평가]가 형태적으로 유표적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주관적 수량 표현의 의미적 특성은 '많다/적다'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의미적 기능은 '많음/적음'의 수량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관적 수량 표현의 의미적 기능은 '많음/적음'의 수량을 표현하는 기능이다. 채옥자(2014b)에서는 주로 협의적 주관적 수량의 개념으로 한국어 주관적 수량의 하위범주를 세웠다. 이에 따라면 한국어 주관적 수량 표현은 우선 주관적 수량의 의미적 특성으로부터 주관적 대량표현과 주관적 소량표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수량범주의 기본 유형에 따라 사물(동작)의 주관적 수량표현, 시간의 주관적 수량 표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러고 나서 그러한 수량 표현이 나타나는 언어적 단위가 어휘적 요소인지, 형태적 요소인지, 통사적 구성 요소인지 등에 따라 주관적 수량 표현을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수량의 생성 원인은 언어의 주관성 및 수량범주의 주관성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언어현상이라면서 주관적 수량의 생성 기제는 '참조수량과의 비교'라고 하였다. 채옥자(2014b: 71)의 주관량 표현의 체계는 위 <그림4>와 같다.

채옥자(2014a, b)는 중국어 주관량 연구와 한국어 주관량 표현 간의 관계를 밝히고 주관량의 협의적 정의와 광의적 정의를 정립하며, 비교적 체계적으로 협의적 정의 차원에서 한국어 주관량을 다룬 좋은 연구 성과이지만 주관량의 광의적 정의 차원에서 한국어 주관량 표현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펼쳐나갈 수 없는지의 과제를 남겨주었다.

본고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광의적 차원의 주관량에 대해 인지언어학 관점으로 접근하며 주로 형태·통사·음운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어 주관량 표현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깊이 다

루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위와 같은 연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고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본고의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주관량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즉, 주관량의 형성 원인, 언어화된 양범주, 언어의 주관성과 주관화, 주관량의 정의, 생성 원리, 참조량, 관점, 구분 기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주관량의 형태적 표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로 주관량과 관련된 형태소, 단어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주관량의 통사적 표현 방법을 다룬다. 통사적 표현 방법은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과 복합 통사적 표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그리고 주관량과 긍정적 표현/부정적 표현의 관계를 밝히고 의미협력과 의미변형 이론을 도입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제5장에서는 주관량과 관련된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 다루는데 조어론적 표현 방법, 과장적 표현 방법, 음운적 표현 방법 등으로 대별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주관량과 관련된 조어론적 표현 방법은 중첩에 의한 주관량, 지소사와 지대사에 의한 주관량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주관량과 관련된 과장적 표현 방법은 향대과장과 향소과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더불어 수사가 들어가 있는 과장적 사자성어에 대해 다룬다. 주관량과 관련된 음운적 표현 방법은 운소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과 모음•자음 교체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고의 연구 가치와 의의를 밝히며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예문 자료는 주로 다음의 네 가지 자료에서 검색한 것이다.

첫째, 사전류 자료이다. 사전류 자료는 주로 『국어학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빈도사전』, 『조선말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등이다.

둘째,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말뭉치이다. 해당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셋째, 신문과 TV 뉴스류 자료이다. 자료의 출처는 KBS 뉴스, SBS 뉴스, MBC 뉴스, 매일 경제, 서울 신문, 메디컬투데이, 민중의 소리, 이데일리 뉴스, Doctor's News, 세정신문, 이데일리, 중소기업신문, 프레시안, 헤럴드경제, 오마이뉴스, 대전일보, 한국경제, bnt뉴스, 미디어스, 노컷뉴스, 채널A, 조선일보, 뉴스엔, 스포탈코리아, MBN, 팩트TV, 헤럴드POP, 뉴스컬처, 데이터뉴스, 아시아뉴스통신, 경향신문, 강원일보, 아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IT동아, 아시아경제,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YTN TV, 미주중앙일보, 뉴스1, TV리포트 등이다.

넷째, 영화・드라마 대본으로 구성된 준구어 말뭉치이다[1].

---

1)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박사 수료생 이민 학형이 개인적으로 구축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이민(2012)의 바탕이 된 자료이기도 하다. 해당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민(2012) 참조.

2. 주관량

2.1. 양범주와 그 언어적 표현

"양(量)이란 객관적 존재로서 인간이 객관세계를 관찰·파악·설명하는 한 가지의 수단이나 방식이다. 질적 범주와 양립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사물이 존재·운동하는 규모, 정도, 속도 및 사물을 구성하는 공동성분이 공간에서 드러나는 배열의 규정성을 가리킨다. 수량으로 양을 표시할 수 있다"(譚鑫田 외 1992: 299). 이런 객관세계의 객관량(客觀量)은 인간의 인지 능력 및 언어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객관세계를 반영하는 인지범주를 이루게 된다. 이런 인지범주가 언어에 투사되어 언어화된 양범주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객관적 사물에 공간적 양범주와 수량적 양범주가 내포되어 있고, 객관적 사건에 시간적 양범주와 동작적 양범주가 내포되어 있으며, 성상에 등급적 양범주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화된 양범주가 사람의 인지능력으로 객관세계를 반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주관적 양범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에도 객관적 양범주와 주관적 양범주가 다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동일한 양에 대하여, 인간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며, 주관적으로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앞의 예문(1)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1가: 컵에 물이 반이 들어 있다)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1나: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1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이런 객관세계의 객관량의 개념이 언어에 반영되어 언어수단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양범주의 언어화'이다. 민족이나 언어가 다르면 언어화된 양범주에 대한 인지 관점도 나름대로 다르다. 예를 들면, 영어에는 명사의 단·복수형으로 나타나는 수범주가 있는 반면, 중국어에는 수범주가 영어처럼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분류사의 체계가 상당히 발달했다.

한국어의 양범주는 주로 수사, 분류사, 수량사, 양화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채옥자 2013a: 227).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언어화된 양범주 중에는 객관세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객관적 양범주도 있고 화자의 주관성을 넣어서 주관적으로 객관세계를 판단하는 주관적 양범주도 있다는 것이다.

2.2. 언어의 주관성과 주관화

언어는 주어진 실체를 객관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개념화하는 방식을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장면이나 상황을 각기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김동환 2011: 128). 그래서 양이 같은 반 컵의 물을 보고 화자들의 다른 반응이 드러나게 된다. 제1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언어화된 양범주는 주관성 유무에 따라 객관적 양범주와 주관적 양범주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 양범주, 즉 주관량은 주관성과 주관화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주관성(主觀性, subjectivity)과 주관화(主觀化, subjectivisation)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주관성에 대한 각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Lyons(1977:739)는 화자가 담화를 하는 동시에 늘 그 담화에 대해 코멘트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주관성'이라 할 수 있다. Finegan(1995:1)은 '주관성'이란 담화에서 화자 자신을 표현하거나 화자의 관점 혹은 화자의 흔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김동환(2001: 135)에서 재인용]. 沈家煊(2001 : 268)은 '주관성'이란 화자가 담화과정에서 드러내는 자아의 흔적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자아의 흔적'은 구문내용에 대한 화자의 관점, 정서, 인식에서 파악된다고 하였다. 이선희(2003b:227)는 인지언어학의 중요한 개념으로서의 주관성이란 언어 속에 드러난 화자의 '자아(自我)'로서, 화자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 그에 관한 자신의 입장, 태도 혹은 감정이 함께 드러나게 됨을 말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주관성에 대해 정의하자면 주관성이란 화자가 담화과정에서 드러내는 자신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담화과정에서 화자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살펴보자.

Langacker(1991b: 316)는 개념화자가 어느 정도의 주관성 혹은 객관성으로 특별한 실체나 상황을 해석한다고 판단하였다. Langacker(1991b)에서는 안경의 비유를 통해 주관성과 객관성을 비교하였는데 그 중심적인 생각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만일 안경을 벗고 그것을 손에 쥐고 안경 자체를 바라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안경이라는 실체에 대한 관찰자의 지각은 최대의 객관성을 가지게 된다. 즉 안경이라는 실체는 지각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대상으로만 기능하는 것이다. 반면에, 안경을 쓰고 다른 사물을 지각할 때, 안경은 관찰자의 의식으로부터 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안경에 대한 관찰자의 지각은 최대로 주관적이 된다. 즉 안경은 전적으로 지각의 주체로만 기능하는 것이다.

윤병달(1993)에서는 영어에 나타나는 주관성을 중심으로 의미의 주관성을 판별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확립하였다. 즉, 그 기준은 화자 의존 유무, 표현성/감정성 유무, 추상성 유무, 일반성 유무, 불확정성 유무, 선택과 해석의 다양성 유무 등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윤병달 1993: 13).

<그림 6>

주관성--객관성
화자 의존------------텍스트상의 인물에 의존-----------독 립
표현적, 감정적-------------관념적--------------------지시적
추상적--구체적
일반적--개별적
불확정적--확정적
선택과 해석이 다양함---------------------선택과 해석이 제한됨

이와 같은 자신의 흔적, 즉 주관성이 어떤 표현에 담겨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윤병달(1993)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기준을 제안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관화에 대해 살펴보자. 沈家煊(2001: 268)에 의하면 언어가 주관성을 표현하기 위해 통사구조를 사용하거나 원래 주관성이 없는 언어 형식이 통시적 변화과정을 거쳐서 주관성을 띠게 되는 것을 주관화라고 한다. 주관화는 통시적으로도 나타나지만 공시적 언어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통시적으로 주관화를 연구한 대표적 논저로는 Traugott(1995)가 있다. Traugott(1995: 48)에 의하면, 주관화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명제기능의 담화기능으로의 변화, 둘째 객관의미의 주관의미로의 변화, 셋째 비인식정태로부터 인식정태로의 변화, 넷째 비구문주어의 구문주어로의 변화, 다섯째 구문주어의 화자주어로의 변화, 여섯째 자유형식에서 점착형식으로의 변화 등이다(Traugott 1995: 48; 沈家煊 2001: 273). 다음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2) 가. The debate promised to be very exciting.
(토론은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가′. The debate could be expected to be very exciting.
나. He promised to be stout when grown up.
나′. He could be expected to be stout when grown up.
(그는 커서 튼튼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徐李潔(2009: 42)

(2)에서 'promise'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은 '약속하다'라는 것인데 주관화를 거쳐서 'could be expected to do(아마도…ㄹ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화자가 자기의 인식을 해당 사물이나 사람에 투사함으로써 자기가 아닌 'Debate/He'로 하여금 'promise'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2)는 구문 주어를 중심으로 명제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를 중심으로 담화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다. 예문의 주어는 화자가 선택한 진술의 기점이다.

통시적 주관화에 관련된 한국어의 예로는 조동사 ‘버리다’가 있다. 이성하(2011:22)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버리다’가 완료와 ‘관점’ 표지로 쓰이게 되는 데 여러 세기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버리다’는 이미 중세어에서 ‘관점’ 표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제거’>‘완료’>‘환원불가능성’>‘바람직하지 않음’] 등의 변화를 거쳐 최근에는 ‘악의성’을 표시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이성하(2011: 124)에서는 (3)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3’)에서는 주관화가 드러난다(이성하 2011: 124).

(3) 가.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었다.
나.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버렸다.
다.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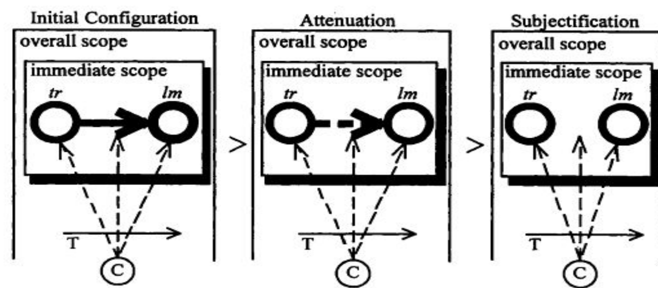
(3’) 가.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는 일이 완전히 끝났다.
나.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어서 도시락이 없어졌다.
다.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은 일은 참 안 된 일이다.
라.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음으로 순이에게 손해를 입혔다.

(3가)에서의 ‘제거’ 의미로부터 (3다)에서의 ‘악의성’으로 문법화하는 과정에서 ‘버리다’는 주관화를 경험하였다. ‘철수’는 (3가)의 구문 주어로부터 (3다)에서 화자가 선택한 진술의 기점으로 변했다. 뿐만 아니라 (3가)에서는 문장의 주어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했는데 (3다)에서 화자를 중심으로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명제에 대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평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조동사 ‘버리다’의 의미는 화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조동사 ‘버리다’에 상응하는 본동사 ‘버리다’의 의미에는 화자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동사 ‘버리다’는 본동사 ‘버리다’에서 나왔으므로, 본동사가 주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공시적으로 주관화를 연구한 대표적 논저로 Langacker(1990, 1999)가 있다. Langacker(1999b: 297)에서는 주관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관화는 어떤 실체에 대한 상대적으로 객관적 해석에서 더 주관적인 해석으로의 변이이다”. 주관화에 대한 모형은 <그림 7>로 표현된다(Langacker 1999a: 152; 김동환 2001: 140).

<그림 7>



첫째 그림에서는 탄도체(trajector)와 지표(landmark)를 연결하는 진한 화살표는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윤곽부여 받는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화살표의 방향은 탄도체의 선택에 동기부여하는 객관적인 비대칭성을 나타낸다. T로 표시된 화살표는 경과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C로 표시된 개념화자는 탄도체와 지표가 맺고 있는 특정한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즉 그는 탄도체에서 지표로 일종의 심적 주사(mental scanning)를 하고 있다. 점선 화살표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수행되는 개념화자의 심적 활동, 즉 심적 주사를 나타낸다.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는 심적 주사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설정된다.

둘째 그림에서, 탄도체와 지표를 연결하는 진하게 표시된 점선은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 및 탄도체가 차지하는 역할 둘 다에 대한 약화(attenuation)를 나타낸다. 비록 개념화자가 첫 번째 그림에서와 같은 혹은 그에 필적하는 심적 주사를 계속 수행하지만,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동기는 심적 주사에 덜 의존한다.

마지막 그림에서 탄도체와 지표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여전히 설정되

어 있지만,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윤곽 부여된 화살표가 없다는 점에서 그 관계는 객관적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전적으로 개념화자의 심적 주사에 달려 있다. 즉 개념화자의 심적 주사에 의해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제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는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화자가 그 관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할 수 있다.

주관성과 공시적 주관화에 관련된 한국어의 예로 ‘가까이’를 들 수 있다. ‘가까이’는 처음에는 단지 ‘한 지점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주관성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4) 가. **갓가이셔** 드르니 므리 소리 업도다(近聽ᄒᆞ니 水無聲ᄒᆞ도다)
(가까이 서 들으니 물이 소리가 없구나.) <금삼 3: 18>
나. 弟子ㅣ 샹녜 **갓가ᄫᅵ 이셔** 經 ᄇᆡ호아 외올씨니 <석상 6: 10>
(제자가 늘 가까이 있으면서 경을 배워 외운다는 것이니…)
다. 머리 이션 보숩고 **가ᄶᅡᄫᅵ** 완 몯 보ᅀᆞᄫ리러라 <월석 7: 55>
[(그 때 부처님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오면 볼 수가 없었다.]

‘가까이’는 의미가 확장되면서 점점 부사로서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로’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게 되었다.

(4′)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고객의 비서가 오전 10시 10분에 만나러 오라고 약속시간을 정한다. 오전 10시 정각도 아니고 **10시 가까이도** 아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10분이다.

(4′)에서 ‘10시 가까이’는 10시에 약간 못 미치는 시간을 나타낸다. ‘가까이’의 의미는 공간적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변했는데 아직 주관성이 안 보인다. 그런데 아래의 예문에서는 주관성이 나타난다.

(4′′) 가. 20년 가까이 우리 아버지한테 나 못할 짓 너무 많이 했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못살게 했냐고 갖은 행패 다 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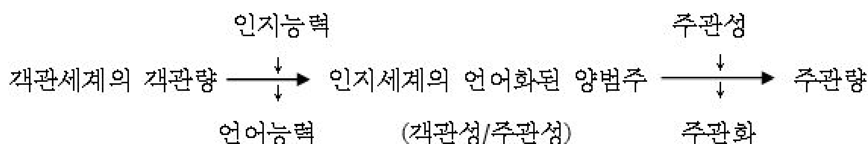
나. 아내는 밤 열한 시 가까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4′′가, 나)에서 '가까이'가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로'라는 객관적 뜻에서 '어떤 시점에 거의 미칠 만큼'이라는 주관적 뜻으로 바뀌어 있음을 나타낸다. (4′′가, 나)를 보면 '가까이'와 공기된 '20년'과 '밤 열한 시'는 원래 객관적이며 명확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지만 '가까이'로 인해 주관적이며 불명확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고, 그 의미의 해석은 문장 주어가 아닌 화자에 의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주관성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가까이'가 공간적 개념으로부터 시간적 개념을 거쳐 주관적 개념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주관화 과정이 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가까이'가 객관적 시간적 개념으로부터 주관적 시간적 개념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주관화 과정이 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관화란 통시적이거나 공시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서 원래 주관성이 없는 언어 형식이 주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주관화는 통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공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위와 같은 언어의 주관성과 주관화가 양범주에서 실현되면 주관적 양범주, 즉 주관량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앞의 <그림1>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세계의 객관량'으로부터 '주관량'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8>



<그림 8>에서 진하게 표시된 긴 화살표는 '객관세계의 객관량'으로부터 '주관량'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묘사한 것이다. 짧은 화살표는 '인지능력'으로부터 '언어능력'까지 발전되는 경로와 '주관성'으로부터 '주관화'까지 발전되는 경로를 묘사한 것이다. <그림 8>을 보면 '객관세계의 객관량'은 인간의 '인지 능력' 및 '언어 능력'이 발달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객관세계를 반영하는 '인지범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인지범주'가 언어에 투사되어 '언어화된 양범주'가 형성되며, 그리고 '언어화된 양범주'는 '주관성'을 띠게 된 '주관화' 과정을 통해 '주관량'으로 변한다. 본고는 연구의 중점을 바로 이 '주관량', 즉, '주관적 양범주'에 두고 있다.

2.3. 주관량의 개념

2.3.1. 주관량 정의와 형성 원리

앞 항에서 주관량 범주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주관량 범주는 인지범주에 속한 주관범주(주관성, 주관화)와 언어화된 양범주 간의 교집합이다.

주관량이란 언어의 주관성이 양범주에 반영되어 형성된 개념이다. 우리는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양을 그저 피동적으로 언어에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흔히 우리는 여기에다 주관적인 느낌이나 태도, 평가 등을 첨가하는데 이는 곧 객관량에 주관성을 부과하는 것이다(이선희, 2003: 229; 羅榮華, 2012: 16).

주관량은 언어의 주관성이 언어화된 양범주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관적 언어 심리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언어화된 양범주에 대한 이런 심리적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려면 어떤 기준량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량(基準量)을 참조해야만 화자가 양범주에 대해 '많다'거나 '적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준량은 참조량(參照量)이라고도 한다. 참조량은 잠재적일 수도 있고 명시적일 수도 있지만 다 심리적으로 기원한다. 어떤 양이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될 때 주관 대량(Large Subjective Quantity)이 되고 반대로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될 때 주관 소량(Small Su

bjective Quantity)이 된다. 그러고 나서 이런 평가는 해당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부사('벌써, 단지, 겨우' 등), 접사('-쯤, -경, -가량' 등), 의존명사('뿐' 등), 조사('만, 도, 마저' 등), 그리고 통사 구조('무려~-(이)나, -에 불과하다' 등) 등의 언어적 표현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5) 가. 그녀는 가발 사용을 즐겨 10개**나** 갖고 있는데 분위기에 맞춰 활용, 기분 전환에도 한몫한다.

나. 신부는 성숙한데다가 신랑은 연소하거나, 신체의 불구자이거나, 아주 못생긴 모습에 신부는 **낙심천만** 비관에 잠겨 자살을 한다거나 또는 신랑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일이…

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하남시지회 감북동 이세종 회장은 "초등학교 **한** 반에 **겨우 10명** 넘을 정도로 인구 유입 요인이 부족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5가)에서 화자가 발화하기 전에 벌써 마음속에서 피참조량(被參照量)인 '가발 10개'를 가지고 참조량과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가발을 **한두 개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는 '가발 10개'가 '한두 개'보다 너무나 많다. 화자는 이런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언어적 방법인 조사 '-(이)나'를 '열 개' 뒤에 덧붙임으로써 주관 대량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여기서 참조량은 사회 일반의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생기는 심리적 양인데 밖으로 보이지 않아 잠재적이다.

(5나)에서 '낙심**천만**'이라는 표현은 과장적 언어 표현 방법이다. 화자가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사실보다 과장스럽게 말한 것이다. '낙심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낙심에 차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화자가 일부러 과장의 초점을 '**천만**'에 맞추어 주관량을 통해 '낙심'의 정도를 최대화시켰다. 여기서 '낙심천만'은 피참조량이고 참조량은 화자가 '낙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다. 예를 들면, '낙심하게 되면 마음

이 상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 지식과 비교하고 나서 화자는 자기의 감정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보다 천배 만배 더 슬펐다고 생각하여 '낙심천만'이라는 주관 대량 표현을 썼다. 화자가 '낙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의 참조량도 명시적이지 않고 잠재적이다.

(5다)에서 일반 한국인은 '초등학교 한 반에 대략 3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상식을 참조량으로 삼아서 '한 반에 10명이다'라는 것과 비교해 보니 '10명'은 너무 적다. 이런 주관 소량 평가를 표현하기 위해 부사인 '겨우'를 사용했다. 주관 소량이란 참조량보다 적게 평가된 양을 가리킨다.

요컨대, 어떤 양에 대해 주관 소량이나 대량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화자가 주관적으로 심리상 그 양을 가지고 잠재적 혹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참조량과 비교함으로써 얻은 결과이다. 그래서 '참조량과의 비교'는 주관량 형성의 심리적 원리가 되는 것이다.

2.3.2. 참조량과 관점

본 항에서는 참조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참조량이란 화자가 주관량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심리적 기준량이다. 참조량은 잠재적인 것과 명시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잠재적 참조량에 대해 논의해 보자.

잠재적 참조량은 항상 사람의 인지 세계에 내포되어 있다. 주로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사회적 정상량(正常量, normal quantity)이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변세계의 사물이나 사건 및 성상의 양의 크기나 변화에 대해 상식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羅榮華 2012: 18; 李宇明 2000: 112). 그 중에서 일부는 한 사회의 각종 법적 규제사항인데 예를 들면, 한국 초등학교는 취학연령이 만 6세이며 수업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다. 일부는 한 사회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평균치다. 예를 들면, 현재의

한국 사람에게 남자의 결혼 적령기는 31-36세 정도이며, 여자의 결혼 적령기는 28-34세 정도이다.

둘째, 물리적 정상량이다. 사람이 객관세계에 있는 각종 사물의 물리적 속성의 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이다. 예를 들면, 물이 0도가 되면 얼음이 되고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된다. 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은 120/80(수직선기/이완기)mmHg이하로, 고혈압은 140/90mmHg 이상, 저혈압은 90/60mmHg 이하 혹은 수직선기 혈압(최고혈압)이 100mm Hg보다 낮은 경우로 파악된다.

셋째, 개인적 정상량이다. 개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물, 사건, 성상의 양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성한 참조량을 가리킨다. 개인적 정상량은 사회적 정상량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羅榮華 2012: 18; 李宇明 2000: 113).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기준은 사회적 정상량인데, 즉 만 19세 미만 여부다. 그러나 만 19세인데도 부모한테서 성인의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적 정상량에 달려 있다.

넷째, 개인적 기대량(期待量)이다. 개인적 기대량이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였던 목표의 수량을 이르는 말이며 주로 화자의 요구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李善熙 2003: 18; 羅榮華 2012: 19; 채옥자 2013b: 94). 예를 들면, 시험에서 90점을 맞은 아들이 싱글벙글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 이번에 시험 90점 맞았어요!"라고 자랑을 했더니 아버지가 "100점은 맞아야지. 겨우 90점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냐?"라고 핀잔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험 만점 100점에 90점을 맞으면 좋은 점수인데 왜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칭찬을 못 받았을까? 바로 아버지의 점수에 대한 기대치가 100점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90점은 아들의 개인적 점수 기대량에 맞았는데 아버지의 개인적 점수 기대량에 못 미친다. 앞 예문 (1)에서 보였듯이 컵에 물이 반 정도 찬 것을 똑같이 보고도 화자의 개인적 기대량이 '빈 것'일 경우에는 (1나)와 같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주관 대량을 나타낼 수 있고, 화자의 개인적 기대량이 '가득 찬 것'일 경우에는 (1다)와 같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주관

소량을 나타낼 수 있다.

다섯째, 객관적 실제량(實際量 actual quantity)이다. 객관세계에 있는 사물, 사건, 성상의 과거에 있었던 양을 가리킨다. 예들 들면, 키 130cm에 몸무게가 무려 130kg이나 되던 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무려 50kg 이상 빼는 데 성공했다. 철수가 친구에게 “내 몸무게가 이제 80kg밖에 안 돼”라고 했다. 사실은 130cm에 몸무게가 80kg이면 보통 사람에게는 주관 대량으로 몸무게가 너무 나가는 것이지만 철수에게 80kg의 몸무게는 주관 소량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전의 몸무게인 130kg에 비해 현재의 몸무게인 80kg이 너무나 가벼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잠재적인 참조량은 바로 객관적 실제량인 130kg이다. 게다가 과장적 양표현의 참조량도 적용대상의 객관적 실제량이다. (5나)에서의 ‘낙심천만’에서의 ‘낙심이 크다’가 바로 객관적 실제량이다.

여섯째, 수사가 들어 있지 않고 ‘대량’이나 ‘소량’이 내포되어 있는 ‘양’이다. 이럴 때 문장에서 피참조량으로 나온 수사나 수량사구가 이런 잠재적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가 생각보다 많거나 적다고 평가함으로써 주관량이 생기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6) 또 "중국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욕구의 증대로 **3~5년** 안에 중국의 VFX 규모가 **미국 시장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6)에서 ‘미국시장’이 화자의 심리상 주관 대량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런 주관 대량을 표현하기 위해 ‘미국 시장’ 뒤에 통사구조 ‘-에 이르다’를 붙였다. ‘3-5’년은 주관적 대량 ‘미국시장’을 참조해서 짧은 시간이라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잠재적 참조량은 보통 화자의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화자는 실제의 양에 대해 평가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이 보이지 않는 ‘잠재적 참조량’을 참조해서 실제의 양과 비교한다. 이런 비교를 통해 실제의 양에 대해 주관 대량 아니면 소량의 평가나 판단을

내린다. 그러고 나서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언어적 수단을 골라 이런 주관량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 가. 그러나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고속도로 체증 현상으로 **물경** 20시간, 2천만**에 달하**는 민족 대이동은 이번 추석도 예년과 다를 바가 없다.

나. 고원에서는 80℃ 정도**만** 되**어도** 물이 끓기 때문에 압력솥을 이용하지 않는 한 충분히 익혀 먹기 힘들다.

다. 소화가 안 돼서 아침은 **그냥** 사과 하나**만** 먹었다.

라. 그는 하루 10시간 노동에 **고작** 2만원을 번다.

마.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야.

(7가)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로 가면 보통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은 잠재적 사회적 정상량이다. 이것을 참조해서 화자가 주관 대량의 평가를 내렸다. 부사 '물경'을 수량사구인 '20시간' 앞에 붙임으로써 이런 주관 대량을 표현했다. 그리고 추석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은 한국 사람에게도 잠재적 사회적 정상량이다. 그러나 명절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2천만 명이나 된다. 이 양은 생각보다 너무 많아 화자는 '2천만' 뒤에 '-에 달하-'를 붙임으로써 주관 대량을 표현하게 되었다. (7나)에서 '물이 백도가 되면 끓는다'는 것은 잠재적 물리적 정상량이다. 이것과 비교해서 화자는 고원에서 물이 너무나 쉽게 끓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주관 소량을 표현하기 위해 수량사구인 '80℃ 정도' 뒤에 '~만~-아/어도'를 덧붙였다. (7다)에서 식사량은 개인적 정상량이다. '사과 하나'만 먹는 것은 개인적 정상량보다 너무 적어서 화자가 '그냥 ~-만'을 이용해서 주관 소량을 나타냈다. (7라)에서는 화자가 하루의 일당에 대해 2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적 기대량을 가지고 있어서 수량사구인 '2만원' 앞에 부사 '고작'을 이용해 주관 소량을 표현했다. (7마)에서 '천근만근'은 사람이 졸릴 때나 피

곤할 때 사용하는 과장스러운 표현이다. 잠재적 참조량은 사람이 졸릴 때 눈꺼풀이 무겁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객과적 존재량이다. 화자가 눈꺼풀이 무거울 정도로 졸립다는 것보다 더 심한 주관 대량을 표현하기 위해 '천근만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명시적 참조량을 살펴보자. 명시적 참조량은 문장 안에 분명히 나타난 참조량이다. 경우에 따라 화자는 주관적으로 이런 외재적 양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그런데 보통 명시적 참조량도 심리적 참조량으로부터 기원한다.

문장에 두 개의 수사나 수량사구가 함께 나타날 때, 두 개의 수사나 수량사구가 교호적으로 참조량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8) 한때 4000만 장에 육박하던 휴면카드가 불과 3년 만에 1000여만 장까지 줄었다.

(8)에서 참조량이 두 가지 내포되어 있는데 잠재적 참조량과 명시적 참조량이다. 화자의 심리상 3년 만에 3000만장(=4000만 장-1000여 장)이 주는 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리겠지 하는 생각은 잠재적 참조량이 된다. (8)의 '3년'은 이 참조량에 비해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이것은 부사 '불과'에 의해 실현되었다. '3년'이라는 양이 주관 소량이 됨에 따라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된 '3000여만 장'이라는 양은 주관 대량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조사 '-까지'를 통해 입증된다. 말하자면 '불과'와 공기된 주관 소량 '3년'이라는 양은 '3000여만 장(=4000만 장-1000여 장, 물론 '4000만 장'과 '1000여 장'도 명시적 참조량이 됨)'과 서로 간에 명시적 참조량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3년'이라는 명시적 참조량에는 '생각보다 매우 적은 것'이라는 심리적 참조량이 내포되어 있고 '3000여만 장'이라는 명시적 참조량에는 '생각보다 매우 많은 것'이라는 심리적 참조량이 내포되어 있다.

요컨대, 참조량은 형식적으로 잠재적인 것과 명시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능상 다 심리적 참조량에서 기원한 것이다. 주관량은 화자가 어떤 양을 참조량과 비교해 많거나 적다고 평가하게 되어 형성된 것이다.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특정한 관점에서 인지해서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주어진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특정 언어 표현을 취한다. “화자의 관점에 따라 인지적 참조점이 다르다. 화자가 다른 관점으로 출발해서 주어진 상황을 관찰할 때 다른 목표를 참조점으로 삼는다. 이로써 인지적 경로가 화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기게 된다. 이런 경로들이 언어에 반영되면 표현 형식이 저절로 다르게 된다”(王寅, 2006: 28).

김동환(2001: 132)에서는 다음의 예를 들었다.

(9) 가. Bill: “Mom! Joe tripped me up with his foot.”
(엄마, 조가 발로 나를 넘어뜨렸어.)
나. Joe: “No, I didn't, Mom! He just tripped over my foot.”
(아니야, 엄마. 그가 내 발에 걸려 넘어졌지, 뭐.)

(9)에서 두 화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 입각해서 다르게 말한 것이다. Bill의 입장에서는 Joe가 일부러 자기를 발로 넘어뜨렸다고 생각했는데 Joe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부러 Joe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Bill이 잘못 걷다가 자기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변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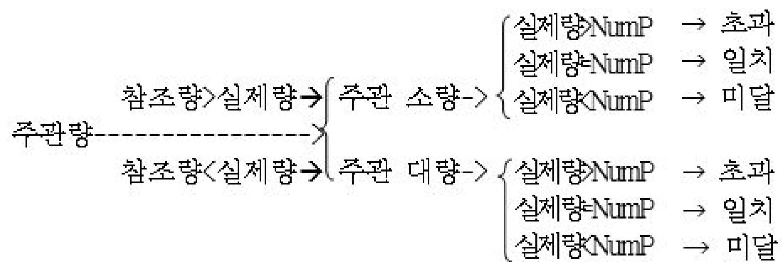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양범주를 인지할 때도 화자의 관점에 따라 심리적 참조량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같은 객관적 양에 대해도 주관적 평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1나)와 (1다)의 차이도 이와 같은 관점의 문제로 인해 생긴 차이이다. 한 마디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은 관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3.3. 주관량의 구분 기준

객관량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기준량(참조량)

보다 '많다' 혹은 '적다'라는 두 가지 판단이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주관 대량(subjective large quantity), 후자를 주관 소량(subjective small quantity)으로 명명하였다. 주관량은 언어에 반영되어 해당 양표현으로 실현된다. 이런 양표현에 의해 언어로 표현된 실제량이 수량사구(NumP)가 나타내는 양에 초과인지 미달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초과', '미달', '일치' 세 가지로 나뉜다. 예를 들면, '초과'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는 '남짓', '적어도', '최소한' 등이 있고, '미달'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는 '거의', '가까이', '기껏해야', '-을 뻔하다' 등이 있으며, '일치'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는 '약', '대략', '쯤', '정도', '가량' 등이 있다. 앞에서 말한 주관적 대소량(大小量)의 구분 기준과 주관량 표현의 구분 기준을 서로 간에 적용하여 교차 분류할 수 있는데 일치 주관 대량 표현['-(이)나, 무려, 물경, -에 이르다' 등], 초과 주관 대량 표현('적어도, 최소한, 넘다' 등), 미달 주관 대량 표현('가까이, 거의' 등), 일치 주관 소량 표현('-밖에, 겨우, 고작, 불과' 등), 초과 주관 소량 표현('남짓' 등), 미달 주관 소량 표현('기껏해야, 끽해야, 많아야, 많아 봤자, 최대한'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 <그림 9, 그림10>과 같다.

<그림 9>



<그림 9>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관량은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참조량>실제량'의 경우에는 화자의 생각보다 양이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되고 '참조량<실제량'의 경우에는 화자의 생각보다 양이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주관 대량과 소량은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초과인지, 일치인지, 미달인지에 따라 각각 '초과', '일치',

‘미달’ 세 가지로 나뉜다. 즉, 초과 주관 대량, 일치 주관 대량, 미달 주관 대량, 초과 주관 소량, 일치 주관 소량, 미달 주관 소량이다.

<그림10>

주관량의 구분 기준에 따른 주관량 표현 분류 및 예시

표현구분 / 주관적 기준	‘초과’ 류	‘일치’ 류	‘미달’ 류
주관 대량	**초과 주관적 대량** **1) 형태적 수단** 형태소/단어: 부사(적어도, 최소한), 동사(넘다, 초과하다, 웃돌다, 돌파하다, 넘어서다, 넘치다)… **2) 통사적 수단**: -만…-에 이르다…	**일치 주관적 대량** **1) 형태적 수단** 형태소/단어:조사(-나, -도), 부사(무려, 물경, 벌써, 꼬박, 족히, 실히)… **2) 통사적 수단**: -에 이르다, 무려…-(이)나, -에 달하다, (무려)…-에 이르다/다다르다 **3) 기타 수단** **(1) 음운적 수단** ①억양, 강세, 장단; ②내적 파생: 양성모음(발갛다)/평음(빙빙) **(2) 조어적 수단** ①중첩: 체언(고생고생, 곳곳), 용언어근(둥글둥글하다), 부사의 중첩(무지무지)… ②지대사: 불-, 날-, 된-, 왕-, 한-, 뒤-, 짓-…	**미달 주관적 대량** **1) 형태적 수단** 형태소/단어: 부사(가까이, 거의…), 조사(-까지)… **2) 통사적 수단** -에 가깝다, -에 육박하다… **3) 기타 수단** **과장적 수단** ①향대과장 표현; ②확대 과장적 사자성어(千斤萬斤…).
주관 소량	**초과 주관적 소량** **1) 형태적 수단** 형태소/단어: 의존명사(남짓…), 형용사(남짓하다)… **2) 통사적 수단** ‘일치 주관 소량의 부사/관형사 표현+NumP+남짓/남짓하다’… **3) 기타 수단** **과장적 수단** ①향소과장표현; ②축소 과장적 사자성어(一言半辭…)	**일치 주관적 소량** **1) 형태적 수단** 형태소/단어: 부사(겨우, 고작, 고작해야, 불과, 단지…), 관형사(단, 단돈…), 조사(뿐, 만, -까지…), 동사(머무르다, 제자리걸음하다…)… **2) 통사적 수단**: -밖에, -에 불과하다, -을/ㄹ 뿐이다, -에 지나지 않다, -에 그치다, -만 해도, -만 되어도, -에 갇혀 있다… **3) 기타 수단** **(1) 음운적 수단** ①억양, 강세, 장단; ②내적 파생: 음성모음(벌겋다)/경음(삥삥)/격음(핑핑) **(2) 조어적 수단** ①중첩 가능 품사: 체언(고생, 곳), 용언(둥글하다), 부사(무지)…; ②지소사: -아지, -까기…	**미달 주관적 소량** **1) 형태적 수단** 형태소/단어: 부사(기껏해야, 잘해야, 최대한…), 조사(-마저, -도…)… **2) 통사적 수단** 끽해야, 많아야, 많아봤자, -조차 안 되다, -도+부정표현… …

<그림 10>은 <그림 9>에서 설정된 ‘주관량의 구분 기준’에 의해 표현된 한국어의 음운·형태·통사적 주관량 표현들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한

국어 주관량은 다양한 수단들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형태적 방법(일반적으로 주관성을 띠는 형태소, 단어 등), 통사적 방법(단순 통사구조, 복합 통사구조), 조어론적 방법(중첩, 지소사와 지대사 등), 과장적 방법(과장 표현, 과장적 사자성어 등), 음운적 방법(억양, 강세, 음장, 음운교체 등)등이다. 초과/미달 주관 대량/소량은 주로 형태적 수단과 통사적 수단에 의해 실현되는데 일치 주관 대량/소량은 형태적 수단과 통사적 수단 외에 음운적 수단을 비롯한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초과/미달 주관 대량/소량의 표현 형식은 주로 수량사구와 형태/통사적 수단의 결합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치 주관 대량/소량의 표현 형식은 수량사구와 형태/통사적 수단의 결합 형식 외에 수량사구가 없이 음운적 방법(억양, 강세, 음장, 음운교체 등)이나 조어론적 방법(중첩, 지대사와 지소사 등)에 의해 나타난다.

3. 주관량의 형태적 표현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주관량은 구분 기준에 따라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주관량은 우선 실제량이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는지 적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주관 대량과 주관 소량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실제량이 수량사구에 나타난 양보다 초과인지 미달인지에 따라 주관 대량이나 소량은 또다시 '초과', '일치', '미달'로 나눌 수 있다. 형태적 차원에서 주관량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주관량은 형태적으로 주로 다양한 형태소·단어, 중첩, 지대사와 지소사, 과장적 표현 등 여러 가지 형태적 표현 방식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주로 형태적 차원에서 형태소·단어와 공기된 주관량 표현들을 다루고자 한다.

3.1. 형태소·단어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

주관량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형태소를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10) 가. "부모 노후는 가족이 책임져야" 인식, 10명 중 3명**뿐**

나. 이수경은 **무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드라마에 캐스팅됐다.

다.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으로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 당시 한샘은 7평 **남짓한** 공장에서 싱크대 등의 부엌 가구를 만드는 기업이었다.

마. 업계에서도 호반건설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6000억 원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 '생방송 투데이' 리얼 맛집, 통통한 낙지가 푸짐하게 들어간 '낙지전골' **단돈** 9000원!

(10가)에서 ‘3명’은 뒤에 붙어 있는 조사 ‘-뿐’ 때문에 객관량이 아닌 주관량이 된다. ‘-뿐’과 공기된 ‘3명’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3명’에 나타난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으로 분류된다. (10나)에서 ‘300대 1의 경쟁률’은 앞에 온 부사 ‘무려’ 때문에 객관량이 아닌 주관량이 된다. ‘무려’와 공기된 ‘300대 1의 경쟁률’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300대 1의 경쟁률’의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으로 분류된다. (10다)에서 ‘3천억 원’은 동사 ‘넘다’ 때문에 객관량이 아닌 주관량이 된다. ‘넘는’과 공기된 ‘3천억 원’은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3천억 원’의 양보다 많으므로 초과 주관 대량으로 분류된다. (10라)에서 ‘7평’은 형용사 ‘남짓하다’ 때문에 객관량이 아닌 주관량이 된다. ‘남짓한’과 공기된 ‘7평’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7평’의 양보다 많으므로 초과 주관 소량으로 분류된다. (10마)에서 ‘6000억 원’이라는 양은 일반인에게 너무 큰 객관량인데 뒤에 붙어 있는 의존명사 ‘남짓’ 때문에 객관량이 아닌 주관량으로 바뀐다. ‘남짓’과 공기된 ‘6000억 원’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 ‘6000억 원’이 나온 양보다 많으므로 초과 주관 소량으로 분류된다. (10바)에서 ‘9000원’은 관형사 ‘단돈’ 때문에 객관량이 아닌 주관량이 된다. ‘단돈’과 공기된 ‘9000원’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9000원’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으로 분류된다.

예문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 주관량은 조사, 부사, 동사, 형용사, 명사, 관형사 등 여러 가지 품사에 의해 반영될 수 있다. 사용빈도에 따라 주관량을 표현하는 품사의 우세성을 따져보자면, 주관량 표현에 있어서 조사와 부사가 가장 우세하고 그 다음으로 동사와 형용사, 명사와 관형사의 순서로 상대적인 우세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해당 품사의 주관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양해승, 2014: 139). 우리는 이 현상을 각 품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품사의 주관성 위계설을 통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윤병달(1993: 4)에서는 품사의 외연성(外延性, extensionality)에 따라 품사의 주관성 위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품사의 외연성이 적을수록 해당 품사의 주관성 위계가 높다는, 즉 외연성과 주관성 간에 반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품사의 주관성은 다음과 같이 '감탄사>기능어>부사>동사/형용사>명사'의 순서로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영어에 없는 품사인 관형사가 있으므로 관형사를 이 위계상의 어떤 위치에 넣어야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병달(1993: 3)에서는 외연에 대해 "외연이란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언어 표현이나 화자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사물 자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각 품사를 살펴보자면, 명사는 개체의 집합으로서 외연성이 강해 보이는 반면 형용사와 동사는 개체의 집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된 개체나 개체의 집합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형용사와 동사는 구체적 존재의 실재로부터 명사보다는 더 이격되어 있고 명사보다는 외연성이 약하다. 관형사의 외연성은 형용사와 많이 비슷한데 주로 체언 앞에 놓여 수식 역할을 한다. 특히 성상관형사('순 살코기'의 '순')는 그런 성격이 더욱 강하다. 그런데 관형사 중에 지시 관형사('저 아이' 의 '저')와 수 관형사('한 사람'의 '한')가 있는 만큼 명사와 외연성이 약간 비슷한 면도 있다. 이와 같은 관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품사의 주관성 위계를 살펴볼 때, 한국어의 품사는 '감탄사>기능어>부사>동사/형용사>관형사>명사'의 순서로 주관성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보완된 품사의 주관성 위계에 따르면, 조사(기능어)와 부사는 주관성 위계가 높아서 양범주에 반영되었을 때 주관량이 이루어지는 데 강세를 보인다. 그 뒤를 이어 동사, 형용사, 그리고 관형사, 명사의 주관량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주관량은 품사에 반영되어 조사와 부사를 통해 나타난 예가 가장 많이 발견되

었고 그 다음으로는 동사가 쓰인 예가 많이 발견되었다. 한편, 형용사, 관형사, 그리고 명사를 통해 주관량이 나타난 예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명사가 쓰인 예가 가장 적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보완된 한국어 품사의 주관성 위계설에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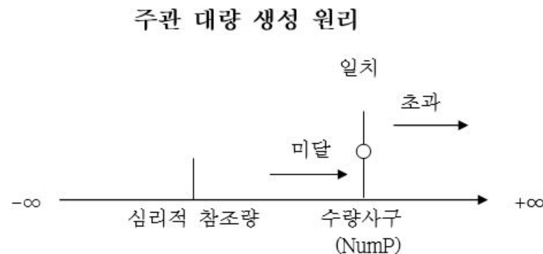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관량이 반영되어 있는 한국어 형태소·단어를 주관 대량과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2. 주관 대량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는 주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된 양을 표현하기 위한 형태소·단어들이다. 이들은 실제량이 수량사구의 양에 대해 초과인지 일치인지 미달인지에 따라 초과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 일치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 미달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 등의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초과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의 예로는 부사 '적어도', '최소한', '자그마치', 동사 '넘다', '초과하다', '웃돌다', '돌파하다', '넘어서다' 등을 들 수 있다. 일치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로는 조사 '-(이)나', '-도', 부사 '무려', '물경', '꼬박', '족히', '실히' '벌써', 동사 '넘치다' 등을 꼽을 수 있다. 미달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로는 부사 '가까이', '거의', 조사 '-까지', 동사 '육박하다' 등이 있다.

형태소·단어로 된 주관 대량의 생성원리를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보이기로 한다.

<그림 11>



<그림 11>를 보면 아래의 가장 긴 화살표는 양의 수직선인데 왼쪽 방향은 마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 방향은 무한대이다. 그리고 첫째 세로줄은 심리적 참조량이고 둘째 세로줄은 수량사구이다. 큰 화살표 위에 오른 쪽으로 첫째 작은 화살표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은데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적기 때문에 미달 주관 대량이 되는 경우다. 둘째 작은 화살표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초과 주관 대량이 되는 경우다. 둘째 세로줄에 달아 있는 빈 동그라미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은데 수량사구의 양과 똑같은 양이기 때문에 일치 주관 대량이 되는 경우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형태소·단어들이 수량사구와 결합하여 꼭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심리적 참조량과의 비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심리적 참조량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 이런 형태소·단어들은 객관적 양을 표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1) 가. 특히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국세청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뤄지며 성명과 나이, 주소, 직업, 위반금액 등이다.
나. 이것은 연속성의 원리에 위배되며 결국 제1법칙과 제2법칙 중 **적어도**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 교장 선생님도 1주일에 **최소한** 10시간 이상씩 수업을 맡아서 해야 한다.

(11가)에 나타난 '50억 원'은 심리적 참조량이 표현하는 주관성과 상관없고 법적으로 규정된 객관적 금액이다. 그러므로 '50억 원을 넘다'라는 표현은 초과 주관 대량이 아니며 '50억 원을 넘는 금액'이 된 경우 법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표현일 뿐이다. (11나)에서는 '연속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두 개의 법칙 중 적어도 하

나가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참조량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객관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해당 수량사와 관련된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11다)에서 부사 '최소한'은 주관적 참조량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규정상 교장 선생님은 1주일에 무조건 10시간 이상씩 수업을 맡아야 된다. 이때 '1주일에 10시간 이상씩 수업'이라는 규정 자체는 많고 적음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관성이 약한 일부 형태소·단어들은 수량사구와 함께 나타날 때 반드시 주관 대량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주관성이 약한 일부 형태소·단어들은 객관적인 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주관화 정도가 높은 일부 형태소·단어는 주관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양범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부사 '무려'는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을 나타내는 말'(국립국어원 1999: 2236)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에 비해 많다는 화자의 평가, 즉 화자의 주관성이 단어 자체에 완전히 내포되어 버렸다. 부사 '가까이', '벌써', 그리고 조사 '-(이)나'도 이런 주관화 정도가 높은 형태소·단어류(類)에 속한다. 그럼 다음으로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각 형태소·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2.1. 초과

1) 부사: '적어도', '최소한', '자그마치'

'적어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국립국어원 1999: 5303)라는 뜻으로, '최소한'은 '일정한 조건에서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가장 작은 한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829/국립국어원 1999: 6116)라는 뜻으로, '자그마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또는 적지 않게'라는 뜻으로 쓰인다. 수량사구가 '적어도/최소한/자그마치' 뒤에 오게 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이 하한선이며, 그 양보다 적을 수 없다고 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 수량사구의 양보다 적은 양은 바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그래서 '적어도/최소한'과 공기되어 표현된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수량사구의 양은 ‘적어도/최소한’에 의해 화자의 심리상 하한선이라고 생각되므로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양과 같거나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초과 주관 대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최소한’은 초과 주관 대량의 형태소·단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2>

‘적어도/최소한/자그마치’의 초과 주관 대량 표현 생성 원리



<그림 12>를 보면 수직선 위에 왼쪽으로부터 첫째 세로줄은 심리적 참조량이고 둘째 세로줄은 수량사구이다. 수직선 위의 동그라미를 제외한 작은 화살표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으며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초과 주관 대량이 되는 경우이다. 둘째 세로줄에 달려 있는 동그라미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는 많고 수량사구의 양과는 같기 때문에 일치 주관 대량이 되는 경우이다. ‘적어도/최소한/자그마치’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은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고 수량사구의 양보다 많으므로 초과 주관 대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 대량의 표현 ‘적어도’, ‘최소한’, ‘자그마치’에 대해 각각 자세히 살펴도록 한다.

① ‘적어도’

‘적어도’는 부사로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국립국어원 1999: 5303)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2) 가. 그는 **적어도** 삼십 세는 되었을 것이다.

나. 그 사람은 **적어도** 3년쯤은 사회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어 보였다.

다. …거짓과 불확실성에 대항해 싸우려는 자, 그리고 진실을 쓰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다섯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그는 진실을 쓸 수…

(12가)는 화자가 어떤 사람을 보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음을 나타낸 것이다. 화자는 심리적 참조량과 비교하여 '그의 나이'를 적게 잡아도 30세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화자가 나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이때 '적어도'와 함께 나타난 '30세'는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인 '30세'는 추측한 나이의 하한선이다. 그 관계를 대수식으로 보이면 '그 사람의 나이≧30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12가)는 초과 주관 대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2나)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 생활 경험≧3년'이라는 초과 주관 대량, (12다)에서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의 수≧5가지'라는 초과 주관 대량이 나타나 있다.

② '최소한'

'최소한'은 부사로서 '일정한 조건에서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가장 작은 한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829/국립국어원 1999: 6116)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3) 가. 또 채권 매입 후 **최소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입주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 점도 상환 사채의 인기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ABS-CBN, GMA방송 등에 따르면 태풍 상륙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루손섬 남동부 비콜반도와 마닐라 일대의 관공서·증권거래소가 문을 닫았으며… 또 **최소한** 200여 편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으며 비콜반도 6개주에서 약 37만

명이 산사태와 폭풍 해일을 우려해 인근 대피소로 피신했다.

(13가)에서 '입주까지의 대기 시간'은 사회 규정량으로서 보통 채권 매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13가)의 상황은 분양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때 채권 구입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다. 그런데 참조량보다 실제 대기시간이 길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대량이 생기게 된다.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인 '1년'이라는 시간은 실제량의 하한선이므로 '대기시간≧1년'이라는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는 곧,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1년'과 같거나 수량사구에 나온 '1년'보다 많다고 평가되는 것이므로 '최소한'은 초과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13나)는 태풍 때문에 200여 편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취소된 사건을 나타낸다. 항공편 취소 편수(200여 편)가 화자의 생각(심리적 참조량)보다 많은 수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취소된 '항공편'의 편수는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200여 편'이라는 양과 같거나 이 양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항공편 실제 취소 편수≧200여 편'이라는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부사 '최소한'과 공기된 양은 초과 주관 대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자그마치'

'자그마치'는 부사로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또는 적지 않게'라는 뜻으로 쓰인다. 주로 양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양이 참조량보다 놀라울 만큼 많거나 크다는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그 양은 주관적 대량이 된다(채옥자 2014: 83). '자그마치'와 함께 표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양과 같거나 많기 때문에 초과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면,

(14) 가. "세상에 제 이름 석 자 알리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무명 시절이 **자그마치** 14년이었으니까, 저 정말 오래 참은 거 맞

죠? ”

나. 이날 방송에서 OOO는 “엄마가 나갔다하면 꼭 뭔가를 사가지고 오신다. 문제는 이게 죄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다. 필요 없는 물건 사느라 엄마가 날린 돈이 **자그마치** 이천만 원이다”고 토로했다.

(14가)는 무명 시절이 너무 길었음을 나타낸다. 유명해지기까지 걸린 14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이때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이 된다. (14나)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느라 너무나 많은 돈을 썼음을 나타낸다.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하는 데 쓰인 2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 양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이때 실제량은 수량사구 2000만 원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초과 주관 대량이 된다. 이와 같이 ‘자그마치’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은 일치 주관 대량과 초과 주관 대량을 포괄한다.

(2) 동사: ‘넘다’/‘넘어서다’/‘초과하다’/‘웃돌다’/‘돌파하다’

‘넘다’/‘넘어서다’/‘초과하다’/‘웃돌다’/‘돌파하다’/‘넘치다’는 모두 ‘초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넘다’류 동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넘다’류 동사는 주로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정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수량사구가 그들의 앞에 오게 되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으로부터 벗어나 지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넘다’류 동사 앞에 나타난 양은 보통 화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큰 양이다. 화자가 심리상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은 참조량이 된다. 그래서 ‘넘다’류 동사와 공기된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많으므로 ‘넘다’류 동사는 초과 주관 대량 표현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예를 결합하여 ‘넘다’/‘넘어서다’/‘초과하다’/‘웃돌다’/‘돌파하다’/‘넘치다’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 양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넘다'**

'넘다'는 동사로서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국립국어원 1999: 1190)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5) 가. "팬 카페가 생겼는데 방송 이후 회원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 해외에서도 편지와 선물이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 음반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넘**은 '금잔디'가 KBS 1TV '뉴스토크'에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명 '고속도로의 여왕'으로 불리는 금잔디는 최근 앨범 '트로트 금잔디 파트 7,8'을 발매했다.

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GM이 자사 차량 47만여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2월부터 시작된 GM의 리콜 대상 차량은 2000만대를 **넘었다**. 지난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가 리콜을 공지한 2200만대에 근접했다.

(15가)는 팬 회원 수가 16만 명으로 늘어났음을 나타낸다. 화자가 생각했던 회원 수보다 너무나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여기서 화자가 생각했던 16만 명보다 적은 회원 수는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 회원 수는 16만 명보다 더 많으므로 '넘다'는 초과 주관 대량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나)는 '음반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의 판매량은 100만 장보다 더 많아 초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넘다'는 초과 주관 대량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15다)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이 2000만 대를 넘어 일반 화자의 상상도 못한 양이므로 이때의 '넘다'는 역시 주관 대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리콜 대상 차량 수가 '2000만대'보다 많으므로 '넘다'는 초과 주관 대량으로 분

류된다.

② '넘어서다'

'넘어서다'는 '넘다'에서 파생된 동사로서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 따위를 넘어서 벗어나다'(국립국어원 1999: 1191)라는 뜻으로 쓰인다.

(16) 가. 김준기(70) 그룹 회장 가족의 상장 자산이 지난 5년여 간 곱절로 불어 1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김 회장 일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사로부터 1000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도 받았다.

나. 내년 국내 폴리실리콘 예상 생산량은 최대 9만 톤을 **넘어서** 우리가 명실상부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주요 거점으로 부상한다.

다. NH농협은행 김주하 은행장은"농협의 사회공헌 역사는 50년을 **넘어선다**. 과거 협동조합 시절 농촌일손돕기는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고객・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이었다. 상생의 정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다.

(16가)에서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일반인이 상장 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양보다 너무나 큰 양이므로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의 상장 자산이 1조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초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넘어서다'는 '넘다'처럼 초과 주관 대량으로 세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6나)에서의 '9만 톤을 넘어선 것'과 (16다)에서의 '50년을 넘어선 것'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 큰 양이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6나)에서 내년 국내 폴리실리콘의 예상 생산량은 9만 통보다 많을 것이므로 '넘어서다'는 초과 주관 대량 표현으로 분류된다. (16다)에서도 농협 은행이 공헌한 역사는 수량사구 '50년'의 양보다 더 많으므로 초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16다)에서의 '넘어서다'도 초과 주관 대량 표현이다.

③ '초과하다'

'초과하다'는 동사로서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가 넘어가다. 또는 일정

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다'(국립국어원 1999: 6073)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7) 가. 송 판사는 "김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허용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은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 양 후보는 약 5800여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이에 따른 법적 처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 양측의 체중과 혈압을 측정해 비교한 결과 정상 체중보다 20퍼센트 **초과하는** 비만군(肥滿群)에서는 정상군보다 5.1배, 10~20퍼센트를 초과한 비만군에서는 2.4배나 고혈압 위험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17가)에서 수은 허용 기준치는 사회적 규정량으로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다. 그런데 실제의 수은 함유치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수백 배 초과한 것이므로 (17가)의 '초과하다'는 주관 대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불법 화장품의 실제 수은 함유치는 기준치보다 딱 백배가 된 게 아니라 수백 배를 넘은 것이므로 '초과하다'에 의해 실현된 양은 초과 주관 대량이다. 마찬가지로 (17나, 다)에서의 '5800여만 원을 넘게 지출한 것'과 '정상 체중을 20% 초과하는 몸무게'는 화자의 참조량인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과 '정상 체중치'보다 양이 너무나 많다고 평가되어 '초과하다'는 주관 대량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5800여만 원'과 '20퍼센트'와 공기된 양보다 모두 많으므로 (17나, 다)에서 '초과하다'와 공기된 양은 초과 주관 대량으로 판정된다.

④ '웃돌다'

'웃돌다'는 동사로서 '어떤 정도를 넘어서다'(국립국어원 1999: 4696)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8) 가. 북구 관계자는 “울산 평균 적설량이 13.7cm라고 하는데 북구에는 워낙 많은 눈이 내려 줄자로 재봤더니 마우나 리조트 정상은 52cm인 것으로 측정됐다”며 “관내 적설량이 울산 평균치를 훨씬 **웃돌**다 보니 전 직원의 절반을 제설작업에 비상 투입시켜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이 2011년부터 지난해(2013년)까지 한 해 동안 78개 사업장에서 65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지급 여부를 파악조차 할 수 없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18가)에서 관내 적설량이 울산 평균치보다 훨씬 많음을 나타낸다. ‘울산의 적설량 평균치’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고 이 참조량보다 ‘관내 적설량’이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 것이다. ‘웃돌다’와 공기된 실제량은 평균치의 양보다 훨씬 넘게 나오므로 ‘웃돌다’는 초과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문장 뒷부분에서 나온 ‘전 직원의 절반을 제설작업에 비상 투입시켜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방증될 수 있다. (18나)에서는 ‘2년간 택시노동자가 못 받은 부가세 환급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다. 그런데 실제로 한 해 동안에 나온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환급분)’이 65억 원을 넘어서 화자에게는 생각보다 너무나 큰 양이기 때문에 주관 대량이 된다. 이 주관 대량을 표현하기 위해 화자는 ‘웃돌다’를 사용했다. 그리고 ‘웃돌다’와 공기된 실제량은 수량사구에 의해 나타난 ‘65억 원’보다 많으므로 ‘웃돌다’는 초과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⑤ ‘돌파하다’

‘돌파하다’는 동사로서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서

다'(국립국어원 1999: 1625)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9) 가. 지난 4월말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 2990만대를 달성한 기아차는 올해 국내외 월 평균 판매량이 26만여 대에 달해, 5월 중 글로벌 누적 판매 3000만대를 **돌파한**다고 19일 밝혔다.

나. 코레일공항철도가 2007년 3월 23일 개통 후 2672일째(7년 4개월)인 15일 오후 누적 이용객 2억 명을 **돌파했다**.

다. 올해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4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9가)에서는 일반적인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화자의 배경지식이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예를 들면,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 국내 자동차의 월평균 판매량이 적게 나가는 경우는 1대 정도, 많이 나가는 경우는 8000여대정도다. 기아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으므로 주관 대량이 된다. 5월 중의 실제 누적 판매량은 '3000만 대'보다 더 많을 것이므로 '돌파하다'는 초과 주관 대량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5월 중 기아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수량사구로 나타난 '3000만대'를 초과할 것이므로 '돌파하다'는 초과 주관 대량 표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19나, 다)의 '공항철도 누적 이용객 2억 명'과 '공항 이용객 400만 명'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큰 숫자이므로 주관 대량이 된다. 더불어 '돌파하다'와 관련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로 표현된 양보다 많으므로 (19나, 다)에서 '돌파하다'는 초과 주관 대량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2. 일치

1) 조사: '-(이)나'

'-(이)나'

'-(이)나'는 조사로서 '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

며,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다'(국립국어원 1999: 1044)는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나'가 수량사 뒤에 붙어 쓰이면 화자의 주관적 강조나 놀라움이 나타난다. 그 수량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많다거나 크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생기게 된다.

(20) 가. 19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피서산장은 황제의 행궁이다. 강희제부터 건축해 건륭제가 대대적으로 확장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89년**이나** 걸렸다.

나. 사채 관련업을 하는 K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다른 남자들로부터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달라는 문의를 14차례나 받았다. 교환 수수료로 10%를 주겠다는 말에 K씨는 13차례**나** 수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거래는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의뢰자들이 번번이 구권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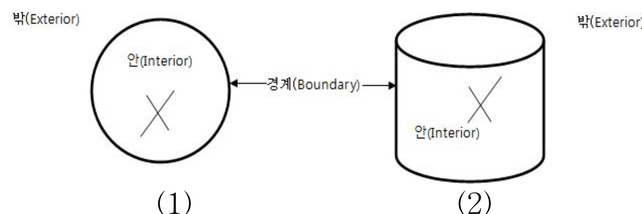
다. 지하철공사는 현재 2조7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매년 원리금 부담액이 6500억 원**이나** 돼 서울시가 매년 260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가)에서는 피서산장(避暑山莊)의 시공시간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집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 잡으면 2~3년, 많아도 5~6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 인식이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피서산장을 시공하는데 소요된 실제량은 89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긴 세월이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89년'과 같은 양을 나타내므로 일치 주관 대량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이)나'는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20나)에서는 '-(이)나'를 통해 K씨가 수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약속 장소에 나간 횟수에 대한 강조와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나'와 결합하여 나타난 '13차례'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

고 ‘-(이)나’에 의해 표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13차례’와 같으므로 ‘-(이)나’는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다)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액치고 6500억 원은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화자는 ‘-(이)나’를 ‘6500억 원의 원리금 부담액’이라는 양 뒤에 붙어 주관 대량에 대한 놀라움과 강조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년의 원리금 부담액에 대한 일반적 사회적 인식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그리고 이때 ‘-(이)나’에 실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인 ‘6500억 원’과 같으므로 ‘-(이)나’는 일치 주관 대량 표현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넘다’류 초과 주관 대량 표현에 대해 주관량 생성 원리에 따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넘다’류 초과 주관 대량 표현에 숨어 있는 보다 심층적 인지 규칙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이것은 영상도식 이론(Image Schema: Lakoff, 1987:267)의 그릇도식(Container schema)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릇도식의 일차적인 경험은 우리의 몸이다(임지룡:1997: 152), 이것을 바탕으로 그릇도식은 ‘안’, ‘경계’, ‘밖’의 구조로 이루어진 영상도식이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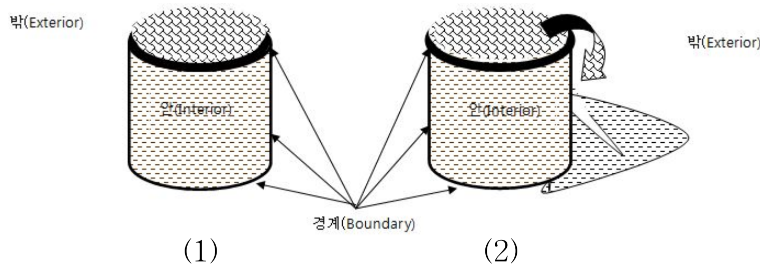


<그림 13-1>은 단면도로서 동그라미 안쪽의 X가 표시된 부분은 ‘안(Interior)’이고, 동그라미를 이루는 검은 색 선은 ‘경계(Boundary)’이며, 선 밖의 공간은 ‘밖(Exterior)’이다. <그림 13-2>는 <그림 13-1>의 입체 그림이다.

그릇도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넘다’류 동사는 내용물로 그릇의 ‘안’을 가득 채우고 그 내용물들을 그릇의 밖으로 넘을 수 있도록 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넘다'류 동사는 내용물로 그릇에 채워져 있는 상태로부터 내용물이 그릇의 밖으로 넘는 상태로 바뀌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과정에서 '현저성(顯著性, Salience)'이론에 의하면 '넘다'류 동사는 내용물로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과정은 '배경(Ground)'이 되며, 내용물이 그릇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부터 경계선에 넘쳐 밖으로 흘러나온 과정은 '전경(Figure)'이 된다. '전경'에서 가장 현저하게 보이는 것은 그릇 위의 경계선이다. 내용물이 위 경계선을 넘어야 '넘다'류 동사로 표현된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경'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4>



(1) (2)

<그림 14-1>은 그릇에 내용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그림14-2>는 내용물이 그릇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부터 경계선에 넘쳐 밖으로 흘러나온 과정이다. 위 '경계선'은 전경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어 굵고 검은 색으로 표기했다. 굵은 화살표는 내용물이 그릇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전경'에서 가장 현저하게 보이는 '경계선'에 달하는 양도 뚜렷하게 부각된다. 이것은 근원영역(source domain)으로서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를 통해서 목표영역(target domain)인 양범주에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을 하게 되면 '넘다'류 앞에 오는 양은 항상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은 늘 내용물로 '그릇에 채우기 전에 상태'라서 '넘다'류 앞에 현저하게 나타내는 양보다 적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생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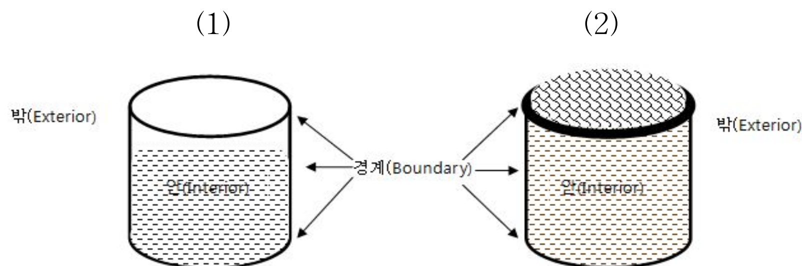
2) 부사: '무려'/'물경'/'꼬박'/'족히'/'실히', '벌써'

'무려'/'물경'/'꼬박'/'족히'/'실히'는 모두 '양이 충분하거나 넉넉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려'류 부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무려'류 부사는 주로 '어떤 양이 너무나 충분하거나 넉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수량사구가 이들 뒤에 오게 되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이 생각보다 매우 많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무려'류 부사 뒤에 나타난 양은 보통 화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큰 양이다. 화자가 심리상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은 참조량이 된다. 그래서 '무려'류 부사와 공기된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무려'류 부사는 일치 주관 대량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려'류 부사에 숨겨 있는 심층적 인지 규칙도 그릇도식과 현저성(salience) 이론에 의해 해석된다. 내용물로 그릇을 채우는 과정은 배경(Ground)이 되고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15-1>과 같다. 내용물이 그릇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는 전경이 되고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15-2>와 같다. <그림15-2>를 보면 전경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굵은 선으로 표시된 위 경계선이다. 왜냐하면 내용물이 위 경계선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거나 하면 '무려'류 부사가 나타나는 의미가 되지 못하므로 내용물이 딱 위 경계선까지 채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5>

(1) (2)



따라서 위 경계선에 달하는 양은 항상 현저하게 부각된다. 이것은 근원영역(source domain)으로서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를 통해

서 목표영역(target domain)인 양범주에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을 하게 되면 '무려'류 부사 뒤에 오는 양은 늘 현저하게 나타난다. '내용물로 그릇에 채워져 있지 않은 과정'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심리적 참조량이다. 이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무려'류 부사와 공기된 양은 너무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를 결합하여 '무려'/'물경'/'꼬박'/'족히'/'실히'와 공기된 일치 주관 대량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무려(無慮)'

'무려'는 부사로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국립국어원 1999: 2236)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무려'는 수량사구 앞에 나타나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된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무려'를 통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무려'는 일치 주관 대량 표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21) 가. 불치의 병으로 비운의 은퇴와 죽음을 맞이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스타' 루 게릭의 사인 글러브가 **무려** 약 3억 원에 낙찰됐다

나. 독일이 이번 대회 우승으로 받는 상금은 **무려** 3천400만 달러(약 356억3천만원)다. 준우승에 머문 아르헨티나에는 2천500만 달러(254억5천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다. 김지민은 14일 방송된 KBS 2TV '인간의 조건' 아르바이트로만 살기 1회에서 과거 미백 치아 모델 아르바이트 경험을 털어놨다. 김지민은 "1시간에 **무려** 12만원을 받았다"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환하게 웃고 있으면 되더라"고 설명했다.

(21가)는 야구 선수인 루 게릭의 사인 야구 장갑의 낙찰 값을 나타낸

다. 화자는 아무리 스타 선수가 사인해 준 야구장갑이라도 1억 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개인 규정량은 바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그러나 실제의 낙찰 값은 '약 3억 원'에 달해 화자가 생각했던 값보다 너무나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이 '무려'의 수식을 받는 '약 3억 원'과 같으므로 '무려'는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21나, 다)에서는 '무려'를 통해 표현된 '월드컵대회 우승상금 액수'와 '아르바이트의 시간당 요금'은 일치 주관 대량 표현으로 예상보다 상당히 많다는 주관적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다.

② '물경'

'물경(勿驚)'은 부사로서 '엄청난 것을 말할 때에 미리 내세워 '놀라지 마라' 또는 '놀랍게도'라는 뜻'(국립국어원 1999: 2301)으로 쓰인다. '물경'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수량사구 앞에 쓰여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훨씬 많다고 평가된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경'을 통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양과 같으므로 '물경'은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22) 가. 값싼 미국 달러에 취한 인도는 선거를 앞둔 빈곤층 표심잡기로 **물경** 미화 200억 달러를 쏟아 부어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유발은 비극을 자초한 결과다.

나. 백영현 대표는 "80년대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요시미 교수가 전범들의 기록을 수집하며 나온 위안부 숫자가 **물경** 30만명이다. 그걸 많이 줄여서 20만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냐?"고 면박을 주었다.

다. 하나는 지난 7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수도 리야드에다 **물경** 미화 225억 달러를 투자해서 6개 지하철 노선 건설 계획을 확정지었다. 삼성물산은 스페인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2호선의 78억 달러 공사를 수주했다. 여기에 필요한 많은 관련

기자재와 부품은 새로운 중동특수에 속한다.

(22가)에서는 표심잡기로 빈곤층에게 쏟아 부은 돈의 액수가 진술되었다. 표심잡기를 위해 투입된 미화 200억 달러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액수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물경'을 통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양인 '미화 200억 달러'와 같으므로 '물경'은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세분된다. (22나)에서는 일본군이 강제로 끌어간 위안부 숫자가 나타났다. 30만 명이나 되는 위안부 숫자는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 '30만 명'이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22다)에서 '물경'을 통해 표현된 '사우디아라비아정부가 수도인 리야드에 투자한 금액'은 일치 주관 대량으로 나타났다.

③ '꼬박'

'꼬박'은 부사로서 '어떤 상태를 고스란히 그대로'(국립국어원 1999: 996)라는 뜻으로 쓰인다. 만약 수량사구 앞에 쓰이게 되면 그 수량사구에 드러낸 양의 충분함을 나타낼 수 있다. '꼬박' 뒤에 나온 수량사구는 보통 시간에 관련된 것이고 그 시간의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꼬박'에 실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양과 같으므로 '꼬박'은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23) 가. 이날 강연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했다. 그 역시 **꼬박** 7시간의 강연을 들었다. 바쁜 장관의 일정임에도 반나절의 교육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폭력 근절이 급선무의 이수로 대두됐음을 의미한다.

나. 두 사람은 **꼬박** 1주일 동안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엎드려서 보냈다.

다. 최송현은 "**꼬박** 8개월을 함께 한 우리 감자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행복이 100점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점 이상을 주고 싶어요. 가족같이 대해 주신 김병욱 감독님과 작가님들, 스태프들과 출연 배우들 모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고 전했다.

(23가)에서는 '7시간의 강연'이 온전하였음이 드러나 있다. 다시 말해, '꼬박'을 통하여 '7시간'의 강연이 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장관이 강연을 들은 7시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더불어 실제 강연 시간은 수량사구인 '7시간'이라는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으로 분류된다. (23나)에서는 '1주일 동안'의 온전성이 드러나 있다. 즉, 그 일주일 동안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엎드리기만 해 왔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꼬박'의 수식을 받는 '1주일 동안'은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이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더불어 실제량은 수량사구 '1주일 동안'이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3다)에서 '꼬박'을 통해 표현된 '촬영기간 8개월'은 일치 주관 대량으로 나타났다.

④ '족히'

'족히'는 부사로서 '수량이나 정도 따위가 넉넉하게'(국립국어원 1999: 5560)라는 뜻으로 쓰인다. 수량사구의 앞뒤에 다 쓰일 수 있다. 수량사구와 함께 쓰이게 되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족히'와 공기된 실제량은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넉넉한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24) 가. 국악 음장에 디스코 리듬을 곁들인 춤곡에 맞춰 서로 손을 맞잡은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으며 함께 춤을 춘다. 여성의 무릎을

살짝 덮을 정도로 짧게 고친 한복 치마와 굽이 10cm는 **족히** 돼 보이는 '킬힐'의 조합이 이채롭다. 북한이 최근 새로 창작해 보급한 군중무용의 한 장면이다. 조선중앙TV는 22일 8가지 종류의 '새로 창작·형상한 군중무용' 영상을 공개했다.

나.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이 바다에 놀러 갔을 때 멍게, 성게 등 해산물을 엄청 사가지고 오기도 했다. **족히** 백만 원은 들었을 것 같다"라고 궁금해 했고, 남편은 "수산시장에 갔는데 횟감이랑 해산물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 이백만원은 **족히** 들었다. 부족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 오래 묵은 45리터짜리 등산배낭을 창고에서 꺼내 먼지를 털고, 등산화도 점검을 했다. 배낭과 신발은 등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0년은 **족히** 넘었을까?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 배낭은 그래도 쓸 만했다. 요즈음 새로 나온 배낭은 가볍고 기능이 더욱 좋아졌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 배낭도 스님들이 지고 다니는 바랑보다는 기능이 훨씬 뛰어나지 않은가?

(24가)에서는 '킬힐 굽의 높이'를 말하고 있다. 북한 여자가 굽이 10cm나 되는 킬힐을 신은 것은 화자에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서 화자는 '족히'를 이용해서 심리적 참조량보다 긴, 북한 여자들이 신고 있는 킬힐 굽의 높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24가)에서 표현된 굽의 높이는 주관대량이 된다. '족히'의 초점은 킬힐 굽의 높이 10cm에 놓여 있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4나, 다)에서는 화자가 '족히'를 이용해 '해산물 구입 비용 백만 원'과 '배낭 사용기간 20년'을 주관 대량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실히'

'실히'는 부사로서 '허실 없이 옹골차게'(국립국어원 1999: 3855)라는 뜻이다. '실히'의 의미는 '족히'와 비슷한데 통사 구조상 수량사구와 함께 쓰일 때 주로 수량사구 뒤에 사용된다. '실히'를 통해 표현된 대상의 양

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크거나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히'를 통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양과 같으므로 '실히'는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25) 가. 그러나 한 시간이 **실히** 되었을 시간이 우리에게 지옥을 실감케 해주고 지나갔다. 이윽고 '크락숀' 소리가 나더니 자동차 소리가 사라져 갔다. 이제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그제서야 일어났다.

나.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도 1700년이 넘었다. 들리는 말로는 절터가 3000곳은 **실히** 될 것이라 한다. 그 많은 절터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역사서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 지리지를 뒤져 절 이름과 위치를 찾아내고 있다.

다. 그 위로는 이제 이름도 잊힌 수백 평은 **실히** 될 만한 옛 절터가 있다. 소나무를 빽빽이 조림해 놓은 그늘 아래 주춧돌과 기와 쪽이 흩어져 있다. 무심한 산객(山客)들은 그 그늘에 앉아 점심식사를 즐기고 있다.

(25 가)에서 말한 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별호 긴 시간이 아니지만 화자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될 만큼 기나긴 시간이다. 그러므로 '실히'와 공기된 '한 시간'이라는 양은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길다고 평가된 것이기에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히'를 통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양인 '한 시간'과 같으므로 '실히'는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25 나)에서는 절터가 생각보다 많음을 나타낸다. '실히'가 없다면 '300 곳'이라는 양은 객관량인데 '실히' 때문에 '300 곳'은 객관량으로부터 주관량으로 바뀌는 것이다. '실히'를 통해 표현된 '300 곳'은 주관성을 넣음으로써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고 평가한 것이므로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 '300 곳'이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25 다)에서는 '실

히'를 통해 표현된 '옛 절터의 면적이 수백 평이나 되는 것'이라는 양은 일치 주관 대량으로 해석된다.

3) 부사 '벌써'

'벌써'는 부사로서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국립국어원 1999: 2638)라는 뜻이다. 수량사구 앞에 쓰이게 되면 일정한 시간 동안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예상치)보다 많은 양이 빠르게 발생되었다는 주관 대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실제량이 '벌써'에 실현된 수량사구의 양과 같으므로 '벌써'는 일치 주관 대량 표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26) 가. 지난달 1일부터 **벌써** 108명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환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응에 나섰다.

나. 청량지역 지하철 화재에 시민들의 '지하철 사고'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도곡역 지하철 방화사건과, 지난 19일 의정부행 열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 시민이 대피한 사고를 합하면 두 달 새 **벌써** 3번째다.

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16강 진출에 실패한 국가의 대표팀 감독들이 잇따라 물러나고 있다. **벌써** 7명의 감독이 사퇴했다.

(26가)에서는 폭염으로 발생한 피해환자의 숫자가 진술되었다. 피해환자가 짧은 시간 안에 108명이나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빠르게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이 '벌써'와 공기된 수량사구의 '108명'과 같으므로 '벌써'는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26나)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지하철 사고 발생 빈도가 많음을 나타낸다. '3번째'는 객관량인데 '벌써' 때문에 주관량으로 바뀌게 되고 '벌써'와 공기된 수량사구 '3번째'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서 지하철 사고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고 평가되

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수량사구인 '3번째'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26다)에서는 '벌써'를 통해 표현된 '두 달 사이에 발생한 지하철 사고의 건수'와 '번갈아 사퇴한 감독의 수'는 일치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다.

4) 동사 '넘치다'

'넘치다'는 '넘다'에서 파생된 동사로서 '일정한 정도나 기준을 훨씬 넘을 만큼 많다'(국립국어원 1999: 1192)라는 뜻으로 쓰인다. '넘치다'의 앞에 구상 명사보다 '희망', '자신감', '매력', '개성', '섹시', '애교', '건강미', '사랑', '동료애' '패기' 같은 추상 명사가 더 잘 나온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27) 가. 실제로 동네병원마다 환자가 **넘쳤다**. 서울 영등포의 한 동네병원(내·소아과)은 지난달에 밀려드는 독감 환자가 많을 때는 병원 복도까지 꽉 찼다. 평상시는 하루 평균 70명 안팎이었으나, 이번 독감 때는 많으면 300명을 넘었다. 경기 일산의 한 중소병원도 감기 환자만 하루에 40~50명이 찾았다.

나. 당시 유행하던 노래엔 희망이 **넘쳤고**, 영어 단어도 **넘쳤다**. 이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결국 서양 선진국의 이미지였다"고 설명했다.

다. 전시장 부스에는 사람들이 **넘쳤다**. 당일권 티켓을 사는데 길게 줄을 서 입장에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자동차에는 관심이 많은데 레이싱 서킷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팬들은 적은 것 같다.

(27가)는 환자가 너무나 많음을 나타낸 것이다. '넘치다'를 통해 서술된 환자 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이것은 '독감 환자가 많을 때는 병원 복도까지 꽉 찼다', 그리고 '평상시는 하루 평균 70명 안팎이었으나, 이번 독감 때는 많으면 300명을 넘었다'라는 문장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리고 '넘치다'는 앞에 구체적 수량사구가 나오지

않고 '넘치다'와 공기된 앞 명사가 '어떤 기준에 넘도록 많거나 일정한 정도를 훨씬 넘을 만큼 많다'는 실제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일치 주관 대량으로 세분할 수 있다. (27나)에서는 '넘치다'와 공기된 '희망'과 '영어단어'가 화자의 생각보다 일정한 정도나 기준에 넘을 정도로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의 '희망'과 '영어단어'의 양은 '넘치다'와 공기된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으로 판정된다. 마찬가지로 (27다)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넘치다'에 의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 없이 그대로 표현되어 일치 주관 대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3. 미달

1) 부사: 가까이, 거의

① '가까이'

'가까이'는 부사로서 수량사구 뒤에 붙는데 '어떤 정도에 거의 다다를 정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3)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한 '거의 미칠 어떤 정도'라는 양은 보통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까이' 자체는 '못 미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가까이'에 실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미달되기 때문에 '가까이'는 미달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28) 가. 삼계탕 찾게 되는 초복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 년 중 닭 가격이 제일 비쌀 때인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국가가 1970년대의 말∼1980년대의 초기를 경과하면서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신흥공업국으로 20년 **가까이** 성장함으로써 이제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왔다.

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엄청난 굉음에 처음엔 아파트에 무슨 일

에 생긴 줄 알았다"며 "500가구 **가까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코앞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28가)에서는 '닭 값이 작년보다 폭락한 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폭락 폭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크다고 평가되어 '가까이'를 통해 표현된 '40%'는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화자가 '가까이'를 통해 '40%'가 아닌 '40%에 거의 미칠 양'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닭 값의 폭락 폭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40%'에 미달되기 때문에 '가까이'는 미달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판정할 수 있다. (28나)에서는 국가가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는 시간은 화자에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라고 평가되어 있다. '가까이' 때문에 '20년'이라는 객관량은 주관량으로 바뀌게 된다. '가까이'와 공기된 '20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20년'이 나타내는 양보다 적으므로 미달 주관 대량으로 판정된다. 마찬가지로 (28다)에서는 '가까이'를 통해 표현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500가구'가 미달 주관 대량으로 나타났다.

② '거의'

'거의'는 부사로서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국립국어원 1999: 248)라는 뜻으로 수량사구 앞에 쓰인다. '거의'를 통해 표현된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거의'에 의해 표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매우 가까운 것'이라서 미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의'는 미달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29) 가. 현재 우리나라의 음료시장은 우유 드링크류를 제외한 1989년도의 시장규모가 **거의** 1조원이었습니다. 게다가 10% 내외의 안정된 성장을 계속 보여 주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판도가 예전과

달리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적 기존음료인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는 비중이 축소되는 데에 반하여 건강지향적인 고가제품, 예를 들면 주스류는 4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나. …곳을 떠나게 되었고 서울로 상경한 후 어찌어찌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14년 만인가에 시골에 가 보았습니다. 그 때 시골로 내려가면서 저는…

다. 이렇듯 1980년대에 폭발적인 판매가 이루어진 천연색텔레비전이 1990년대에 와서 그 보급률이 **거의** 10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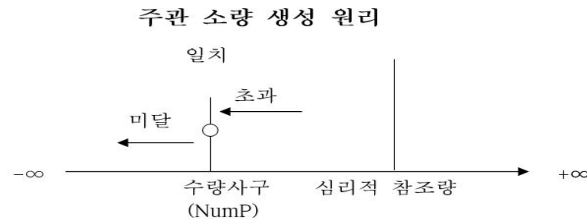
(29가)에서는 우유 음료류(類)를 제외한 1989년도의 음료시장규모가 서술되었다. 1조원 가까이 된 시장규모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매우 큰 규모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의 음료시장규모가 1조원에 매우 가까운 것이므로 미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는 미달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판정된다. (29나)에서는 시골에 못 간 지 오래되었음을 언급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객관량인데 '거의'에 의해 주관량으로 바뀌게 된다. '거의'에 의해 수식된 '14년'은 화자가 시골에 못 간 기간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길다고 평가된 것이므로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14년'의 양보다 적으므로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9다)에서도 '거의'를 통해 '천연색텔레비전의 보급률이 미달 주관 대량으로 나타났다.

3.3. 주관 소량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는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들과 달리 주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된 양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실제량이 수량사구의 양에 초과인지 일치인지 미달인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초과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 일치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 미달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다. 초과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는 주로 의존명사 '남짓',

형용사 '남짓하다'등으로 표현된다. 일치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는 주로 조사 '-만' '-뿐', '-까지', 부사 '겨우', '고작', '고작해야', '불과', '단지', 관형사 '단', '단돈', '고까짓' 등으로 표현된다. 미달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는 주로 부사 '기껏해야', '기껏', '최대한', '다불과', 조사 '도' 등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그림 16>에서 아래 가장 긴 화살표는 양의 수직선인데 왼쪽 방향은 마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 방향은 무한대이다. 그리고 첫째 세로줄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이며 둘째 세로줄은 심리적 참조량이다. 큰 화살표 위 왼쪽 첫째 작은 화살표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고 수량사구의 양보다도 적기 때문에 미달 주관 소량이 되는 경우다. 둘째 작은 화살표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기는 하지만 수량사구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초과 주관 소량이 되는 경우다. 첫째 세로줄에 달아 있는 동그라미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으나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똑같은 양이기 때문에 일치 주관 소량이 되는 경우다. 주관 소량의 형태소·단어 표현들은 보통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미달이나 초과 주관 소량의 화살표 방향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과', '겨우', '-만' 등등이다. 그럼 다음으로 주관 소량이 반영된 형태소·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말한 주관 소량이 나타난 형태소·단어들은 주관화 과정을 거쳐 강한 주관성이 들어 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객관적 양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은 주관 소량 표현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객관적 양도 나타낼 수 있는 주관 소량 표현도 가끔 있

다. 예를 들면 부사인 '최대한'이다. 이것은 3.3.3.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3.1. 초과

1) 의존명사 '남짓'

'남짓'은 의존명사로서 수량사구 뒤에 쓰여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국립국어원 1999: 1120)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남짓'과 공기된 양은 보통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사전의 풀이대로 '남짓'은 수량사구 뒤에 쓰여 수량사구 자체가 나타내는 양보다 조금 남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남짓'과 공기된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좀 많기 때문에 '남짓'은 초과 주관 소량 표현으로 판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30) 가. 편의점 계산대 옆에 있는 작은 오븐 속으로 반죽된 빵 재료가 들어갑니다. 7분여 **남짓** 시간이 지나 먹음직스러운 빵이 구워져 나옵니다. 크로와상에 애플파이, 페스트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나. 104쪽 보통의 자연언어라면 색채어휘가 아주 많아 봐야 열 개 **남짓** 정도입니다. 그것도 본디… 이렇게 '목숨'과 '생명'은 비록 유의어라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서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서세원은 미국의 한 신학교육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지난 2011년 11월 이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아내 서정희와 함께 3년 **남짓** 교회를 운영해 왔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30가)에서 화자는 '남짓'을 통해 빵이 구워진 시간이 생각보다 짧음을 나타낸다. 화자에게 빵이 구워진 시간이 7분보다 길다고 생각되었는데 보통 빵을 잘 구우려면 10분 아니면 20분이라도 필요할 거라는 것은 화

자의 생각이었다. 이것은 바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그런데 실제량은 7분 남짓한 시간이다 보니 화자가 빵이 구워지는 데 소요된 시간이 적다고 평가하게 되어 '7분여 남짓한 시간'은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남짓'과 공기된 '7분'보다 조금 많으므로 '남짓'은 초과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판정될 수 있다. (30나)에서 '열 개'라는 양은 객관적 양인데 '남짓' 때문에 주관적 양으로 바뀌게 된다. 화자는 '남짓'을 통해서 '열 개'라는 양은 생각보다 너무나 적다는 뉘앙스를 표현하게 된다. '남짓'과 공기된 '열 개'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게다가 실제량은 수량사구 '열 개'보다 조금 많으므로 '남짓'은 초과 주관 소량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0다)에서 '남짓'을 통해 표현된 '교회 운영 시간'이라는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며 수량사구인 '3년'이라는 양보다 좀 많으므로 '남짓'은 초과 주관 소량의 형태소·단어 표현으로 분류된다.

2) 형용사 '남짓하다'

'남짓하다'는 형용사로서 수량사구 뒤에 쓰여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국립국어원 1999: 1120)라는 뜻을 나타낸다. '남짓하다'에 의해 표현된 양은 화자의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의미 기능상 의존 명사인 '남짓'과 똑같으므로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남짓하다'에 의해 표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에 나타난 양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남짓하다'는 '남짓'처럼 초과 주관 소량 표현으로 분류된다.

(31) 가. 좁은 공간에 많은 노인이 몰려 있다 보니 안전이 걱정됐다. 각 호실은 공간이 10평 **남짓한**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침상이 6개나 들어차 있다.

나. 국내 운항 여객선 중 최대 규모인 6천825톤 세월호의 사고 당시 조타실을 지휘한 이는 26세 박모 항해사. 경력이 1년 **남짓한** 박 항해사는 3등 항해사로 세월호에 투입된 지 5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다. 이 영상은 여객기에 탑승했던 말레이시아 남성 알리(Ali)가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다. 15초 **남짓한** 이 영상을 그의 친구가 공유하며 확산됐다.

(31가)에서는 각 호실의 공간이 좁음을 언급하는데 이때 '남짓하다'에 의해 표현된 양은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나 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남짓하다'에 의해 표현된 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인 '10평'보다 좀 많으므로 '남짓하다'는 초과 주관 소량의 형태소·단어 표현으로 판정될 수 있다. (31나)에서 '1년'이라는 양은 객관적 양인데 '남짓하다' 때문에 주관적 양으로 바뀌게 된다. 화자는 '남짓하다'를 '1년' 뒤에 결합시켜 '박 항해사가 가지고 있는 1년 경력'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남짓하다'와 공기된 '1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1년'의 양보다 조금 많으므로 '남짓하다'는 초과 주관 소량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31 다)에서 '남짓하다'와 공기된 '15초'라는 양은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나 짧다고 평가되는데다가 수량사구 '15초'라는 양보다 조금 많으므로 초과 주관 소량이라 할 수 있다.

3.3.2. 일치

1) 부사: 불과류 부사('겨우', '고작', '고작해야', '불과')와 '단지'

'불과'류 부사는 수량사구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수량사구의 양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별 것 아님, 그리고 그 양에 지나지 않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불과'류 부사를 통해 표현된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매우 적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불과'류 부사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판정된다. 예문을 검토하여 '겨우', '고작', '고작해야', '불과' 에 대해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겨우'

'겨우'는 부사로서 '기껏해야 고작'(국립국어원 1999: 310)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만약 수량사구 앞에 쓰이게 되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된 주관 소량이 된다.

(32) 가. "내가 받는 시급 5450원, 최저임금은 5210원, **겨우** 240원 더 받는다. 커피 한 잔 값도 못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들 대기업 홈플러스에 다닌다고 부러워하지만,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자신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나. 아이 엄마의 남편은 "와이프가 사경을 해매는 중에도 아이는 괜찮냐며 아이를 걱정했다"고 그때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고 운전자의 도주로 **겨우** 42살이 된 아이엄마의 죽음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 수원정 여론조사 결과 임태희·박광온 지지율이 **겨우** 0.5%(p)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가)에서는 최저임금에 비하여 화자가 더 받고 있는 시급(240원)이 생각보다 너무 적음을 나타낸다. 화자는 남이 부러워할 대기업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업계의 최저임금에 비해 24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화자가 바라고 있는 최저임금과의 큰 차이는 바로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보다 실제는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어 '240원'은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이 '겨우'와 공기된 '240원'과 같으므로 '겨우'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이다.

(32나)에서 '42살'은 객관량인데 '겨우' 때문에 주관량으로 바뀌게 된다. 화자는 '겨우'를 통해 피살된 아이엄마의 나이가 적다는 뉘앙스를 나타냈다. '겨우'와 공기된 '42살'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 '42살'의 양과 같

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32다)에서 화자는 '겨우'를 통해 '경선 후보자 간의 지지율 차이'에 대해 일치 주관 소량을 나타냈다.

② '고작'

'고작'은 부사로서 '기껏 따져 보거나 헤아려 보아야. 아무리 좋고 크게 평가하려 하여도 별것 아니라는 것'(국립국어원 1999: 454)이라는 뜻이다. 수량사구 앞에 나오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에 나타난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으로 세분된다.

(33) 가. 아침 인천 송도에 26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하지만 직선거리로 채 2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에는 **고작**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나. 하지만 원구성에 이어 이날 시정보고까지 **고작** 4일을 일한 시의원들이 봉급 격인 첫 달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아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각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34만5천원 등 484만5천원을 매달 지급 받는다.

다. 이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아이디 나**님은 "벌금이 **고작** 500만원? 500억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3번 무단 벌목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그렇게 찍은 사진 한 점 가격이 500만원. 다음에 또 하란 소리네"라며 처벌 수위에 대해 불만…

(33가)에서는 서울에 내린 비가 1.5mm밖에 안 되어 생각보다 너무 적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로부터 가까이 떨어져 있는 송도에는 26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이것은 화자의 명시적 참조량이 된다. 1.5mm밖에 안 내린 비는 참조량에 비해 너무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실제 강우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 1.5mm와 같으므로 '고작'은

일치 주관 소량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33나)에서는 봉급에 비해 시의원들이 일한 시간이 너무 적다는 평가가 담겨 '고작'을 통해 표현된 '4일'은 일치 주관 소량이 된다. (33다)에서는 사진작가 장 모 씨에게 부과된 금강송 무단벌채 벌금 액수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어 '고작'과 공기된 '500만 원'은 일치 주관 소량으로 나타났다.

③ '고작해야'

'고작해야'는 부사로서 '고작'과 같은 뜻(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39)으로 수량사구 앞에 쓰인다. '고작해야'와 함께 표현된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고작해야'를 통해 표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에 나타난 양과 같으므로 '고작해야'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34) 가. 그는 '아직까지 디즈니나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게임은 부족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영화는 100년 이상의 콘텐츠이고, 게임은 **고작해야** 20~30년이다. 당장의 성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고 말했다.

나. 얼마 전 소공동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화장품브랜드 '투쿨포스쿨' 매장에선 한 중국인이 한꺼번에 100만 원 이상을 카드로 긁어 매장 직원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투쿨포스쿨의 화장품 단가가 **고작해야** 1만5000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아예 싹쓸이하다시피 한 것.

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성공에 내가 기여한 건 **고작해야** 5% 정도다. 장기하는 음악적으로 특출할 뿐만 아니라, 앨범 콘셉트, 뮤직비디오 기획, 퍼포먼스 등 모든 계획을 세우는 브레인이었다.

(34가)에서 화자는 '고작해야'를 이용해 게임 발전 역사가 영화의 발전 역사보다 너무나 짧음을 나타냈다. 여기서 영화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은 명시되어 있지만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될 수 있다. 이 참

조량보다 게임이 가진 20~30년의 역사는 너무나 짧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고작해야'를 통해 표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인 '20~30년'과 같으므로 '고작해야'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34나, 다)에서 화자는 '고작해야'를 이용해 '생각보다 너무나 저렴한 화장품 단가'와 '생각보다 적은 프로그램 기여량'이라는 주관 소량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고작해야'를 통해 표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1만5000원 가량'과 '5% 정도'의 양과 같으므로 '고작해야'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이다.

④ '불과'

'불과'는 주로 수량사구 앞에 쓰여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국립국어원 1999: 2898)라는 뜻을 나타낸다. '불과' 뒤에 나온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난다. '불과'를 통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불과'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판정된다.

(35) 가. 충북의 한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은 "0교시 수업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불과** 2~30분 등교시간이 늦춰진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방과 후 수업만 늘어나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부담만 커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나. 북한이 해안이 아닌 내륙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과 9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이날 발사 지점은 DMZ에서 **불과** 20여km 떨어진 곳으로, 지난 9일 발사 지점보다 20여km나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다. 이원기 후보의 득표수는 2만7,200표. 당선자와는 **불과** 2표차이었다.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

(35가)에서 화자는 '불과'를 통해 등교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길지 않음을 나타냈다. '불과'를 통해 표현된 등교시간은 화자의 생각보다 짧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2~30분의 시간과 같으므로 '불과'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35나, 다)에서 화자는 '불과'를 통해 각각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지점이 DMZ에서 너무나 가까워서 20여km밖에 안 되는 것'과 '이원기 후보의 득표수가 당선자와 두표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라는 일치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⑤ '단지'

'단지'는 부사로서 수량사구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국립국어원 1999: 1396, 1350)라는 뜻으로 쓰인다. '단지'를 통해 표현된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단지'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판정할 수 있다.

(36) 가. 두 시간 반이나 기다렸건만…… 평소 그 대단한 응집력으로 뭇 학회의 시샘을 받던 편집 반은 **단지** 일곱 명의 선발대인지 척후병인지 알 수 없는 숫자로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중간 합류지 대천역에서의 합류 인원은 단 한 명이었다.

나. 0란 입자는 불안정하며 수명이 **단지** 10-16초이다.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조금 무거우며 불안정하다. 중성자의 수명은 1천 초이며, 붕괴하여 양성자, 전자, 그리고 반중성 미자라 부르는 가볍거나, 질량이 거의 없는 입자로 변한다.

다. 예를 들면 생물의 조직에 있어서 거의 99%에 이르는 구성 원소가 92개의 원소 가운데 **단지** 6가지 원소, 즉 산소 70%, 탄소 18%, 수소 10.5%, 질소 0.3%, 유황 0.05%, 인 0.04% 등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

(36가)에서는 서울을 떠나는 편집반의 인수가 생각보다 너무나 적었다는 화자의 평가가 드러난다. '두 시간 반이나 기다렸던 것'과 '뭇 학회의

시샘을 받던 대단한 응집력'을 통해 화자의 기대치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개인적 기대량이 바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다. 그런데 실제량은 일곱 명뿐이므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7명과 같으므로 '단지'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역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36나, 다)에서 화자는 '단지'와 공기된 '10~16초'와 '여섯 가지'라는 양을 일치 주관 소량으로 다루었다.

2) 관형사: '단', '단돈', '고까짓'

① '단(單)'

'단(單)'은 관형사로서 '오직 그것뿐'(국립국어원 1999: 1372)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만약 수량사구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다고 판단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단'은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판정할 수 있다.

(37) 가. 심장을 주기 위해 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하는 청년, 그는 어느새 사라에게 한 명의 구세주로 자리한다. '플라토닉'은 이 모든 내용을 50분, **단** 1회에 담아냈다. 이렇듯 파격적인 설정이 이어졌던 1회 이후에도 이 진짜 사랑의 이야기는 보는 이들을 편하게 두지 않는다.

나. 아빠는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보지도 못했고, 건우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다. 자기가 이 장사를 열네 해를 하였어도, 이제까지, **단** 고린전 한 푼 셈을 틀려 본 일이 없었노라고, 그것을 역설하여….

(37가)에서 화자는 환자에게 심장을 주기로 한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청년과 환자 어머니와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플라토닉'이라는 드라마가 짧음을 나타냈다. 화자에게 이 드라마는 50분, 1회밖에 안 돼

생각보다 너무 짧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1회와 같으므로 '단'은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37나, 다)에서 화자는 '단'을 수량사구 앞에 써서 '건우와 엄마 둘만 사는 것'과 '계산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없다'는 일치 주관 소량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② '단돈'

'단돈'은 관형사로서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수량사구 앞에 쓰여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지 않은, 아주 적은 금액'(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445)이라는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단돈'은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판정할 수 있다.

(38) 가. **단돈** 7만원의 커피 외상값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다방여종업원을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 고(高)물가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단돈** 1,000원에 짜장면을 파는 식당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 여행박사가 **단돈** 2만9000원으로 일본을 왕복할 수 있는 에어크루즈 상품을 출시했다. 여행경비가 배로 뛰는 성수기 시즌에 비성수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여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38가)에서는 7만원 때문에 사람 죽인 것이 언급되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단지 7만원 때문에 살생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는 것이 화자의 주장이다. 귀한 생명과 비교할 때 7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7만원'은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7만원과 같으므로 '단돈'은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8나, 다)에서 '단돈'의 수식을 받는 '1000원'과 '2만 9000원'이라는 양은 일치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고까짓'**

'고까짓'은 관형사로서 '겨우 고만한 정도의'라는 뜻으로 쓰인다. '뒤에 오는 수량을 주관적 소량의 의미를 가지는 수량으로 되게 할 수 있다' (채옥자 2014: 90). '고까짓'에 의해 실현된 실제량은 뒤에 오는 수량사구의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39) 가. "우리 겨레는 25년 동안 못 보고도 사는데 고까짓 두 달을 못 보았다고 그리 야단이냐"고 윽박지르곤 했다.
나. 고까짓 몇 백 원,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대형마트에서 밀대 가득 라면을 싣고 가는 사람들을 보자 가슴이 철렁한다.
다. 80년대 대도(大盜) 조세형은 드라이버 하나로 권세가의 집을 털었다고 하지만 고까짓 드라이버 하나가 원전을 멈춰 25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39가)에서는 가족과 못 만난 지 두 달이 된다는 것은 짧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가족과 두 달간 못 만나는 것은 일반인에게 긴 시간인데 화자에게는 남북한이 25년에 지나면서도 통일되지 못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시간이다. 즉, '고까짓'의 수식을 받는 두 달이라는 시간은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나 짧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고까짓'을 통해 표현된 실제량은 수량사구 '두 달'의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이 된다. 마찬가지로 (39나)에서 '고까짓'의 수식을 받는 '몇 백원'과 (39다)의 '드라이버 하나'도 일치 주관 소량으로 나타났다.

3) 조사: '-뿐', '-만'

① **'-뿐'**

'-뿐'은 보조사로서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3074). 만약 수량사구 뒤에 붙어 쓰이게 되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그것밖에 없고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다고 판

단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실제량이 그 수량사구가 반영되어 있는 양과 같으므로 '-뿐'은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판정된다.

(40) 가. 연암은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도 그럴 것이, 놀랍게도 연암이 아는 글자라고는 자기 이름자와 제 집 대문 앞에 붙여 놓은 '입춘대길'이라는 네 글자**뿐**이기 때문이었다.
나. 산업화되기 전인 1750년경 영국에서 5만 이상의 주민을 가진 도시는 런던과 에딘버러 둘**뿐**이었습니다.
다. 반면 나머지 9 개 지역 중 양호교사 확보율이 30%를 넘는 도는 경기도(35.0%)와 충북(31.4%) 등 두 곳**뿐**이며, 제주가 26.2%, 전북 23.7%, 경남 22.5%, 충남-경북이 각각 21. 0%이고, 전남은 19.3%에 불과한 것으로…

(40가)에서는 연암이라는 사람이 아는 글자가 자기 이름과 '입춘대길'이라는 네 글자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연암이라는 사람이 아는 글자 수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 적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이 '-뿐'과 공기된 '자기 이름과 입춘대길'이라는 글자 수와 같으므로 '-뿐'은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40나, 다)에서 화자는 '-뿐'을 이용해 '5만 이상의 주민을 가진 도시 수가 2개밖에 없다'와 '양호교사 확보율이 30% 이상의 도가 9개 지역 중 2 군데밖에 없다'는 일치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② '-만'

(연세)한국어 사전(2001)에 따르면 '-만'은 조사로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첫째는 어느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배제함을 나타낸다. '오로지', '단지', '오직'의 뜻에 해당한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653). 둘째는, '딱 한번' 등과 같이 제한함을 나타내는 말에 쓰여 말하는 이의 가장 낮은 기대를 나타낸다. '최소로 제한하여'의 뜻에 해당한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653). 그러므로 '-만'이 수량사구 뒤에 붙어 쓰이게 되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대해 배제하거나 제

한한다는 뜻 중 한 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

(41) 가. 태영: 단아야. 그지? 울 엄마가 이영인 실장님보다 훨씬 이뻤지? 그지?
단아: 진짜, 왜 그래? 작은 오빠? 어떻게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바로 주정이야.
나. 영자: 한 잔**만** 마시고 자.
천갑: 어쩐 일인가?
영자: 펄펄한 나이에 결혼 안하고 있는 아들놈 때매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41가)에서는 많은 술 중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배제'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41나)에서는 마시자는 술의 양이 한 잔에 국한됨을 말하고 있다. '제한'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수량사구 뒤에 붙어 쓰이게 되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는 주관 소량을 나타낸다. (41가)에서 화자 '단아'가 생각하기에는 술 한 병을 마시면 취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바로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한 잔보다 많은 술의 양에 대한 생각은 바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다. 이 참조량보다 한 잔의 술은 너무나 적은 양이라고 판단되어 주관 소량이 된 것이다. (41나)는 화자 '영자'가 생각하기에 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잔만 마시자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화자가 생각하는 한 잔보다 많은 술의 양은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에 비해 한 잔의 술은 보잘것없는 양이라고 판단되어 주관 소량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량은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만'은 일치 주관 소량이 판정된다.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면,

(42) 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코고는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미달아 하루만 참어 엉?

-알았어요. 그럼 나 잘 때 솜 두 개**만** 줘.
-뭐하게. 귀 막을라고?
-아니, 할아버지 코 막을려고.

나. -야, 육천 삼백 원인데 오천 원**만** 내면 어떻게 하니?
-아저씨, 아 참, 내가 아까 천 삼백 원부터 시작하는 거 다 봤어요.

(42가)에서 화자는 '제한'의 뜻이 담겨 있는 조사 '-만'을 이용해 '솜 두 개'라는 일치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42나)에서 화자는 '한정, 배제'의 뜻이 담겨 있는 조사 '-만'을 통해 '오천 원'이라는 일치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3.3.3.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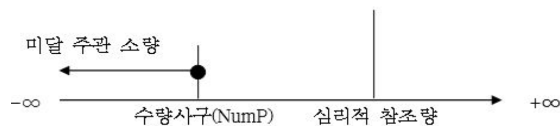
1) 부사: '기껏해야', '기껏', '최대한', '다불과'

① '기껏해야', '기껏'

'기껏해야'는 부사로서 수량사구 앞에 쓰여 '아무리 높거나 많게 잡아도. 또는 최대한도로 하여도'(국립국어원 1999: 869)라는 뜻을 나타낸다. 때로는 '기껏'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기껏해야' 뒤에 나온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실제량은 '기껏해야'와 함께 표현된 수량사구의 양과 같거나 혹은 적거나 해서 '기껏해야'는 미달 주관 소량 표현으로 판정된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7>

'기껏해야'의 주관적 소량 생성 원리



<그림 17>을 보면 큰 화살표는 양의 수직선인데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 방향은 무한대이다. 그리고 왼쪽 첫째 세로줄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이고, 둘째 세로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다. 그리고 왼쪽 방향의 작은 화살표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은데다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도 적은 주관 소량이 되는 경우다. 작은 화살표의 끝과 첫째 세로줄이 닿은 검은 동그라미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지만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은 주관 소량이 되는 경우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가 포괄된 것이 바로 '기껏해야'에 의해 나타나는 미달 주관 소량이다. 즉, '기껏해야'를 통해 표현된 미달 주관 소량은 일치 주관 소량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43) 가. 그는 이어 "아주 후한 값을 받을 때도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무리 잘 쳐줘도 500만 원 이상은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갤러리 큐레이터를 지낸 B씨도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이라면 액자와 인화 가격 이상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기껏해야** 100만~150만원을 받으면 아주 잘 받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가 잡힌 프로게임단이 없었다. **기껏해야** 2~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PC 2~3대를 놓고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다였다.

다.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와 빌딩의 엘리베이터. 오늘부터는 당장 이것의 이용을 중단하자. **기껏** 5～6층 정도 올라가는 것이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일단 계단을 이용해보자.

(43가)에서는 작품의 가격을 아무리 높이 잡아도 100만~1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화자가 사진에 매길 만한 가격(≦100만~150만)을 심리적 참조량으로 삼는다. 화자는 '기껏해야'를 통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판단된 주관 소량인 '100만~150만 원'을 나타냈다.

그리고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비하여 적거나 같으므로 '기껏해야'는 미달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43나, 다)에서는 화자가 '기껏해야'와 '기껏'을 이용해 각각 '연습 공간에 들어갈 사람 수가 많게 잡아도 2~3명이라는 것'과 '올라갈 빌딩의 층수가 높게 잡아도 5~6층'이라는 미달 주관 소량을 나타내었다.

② '최대한'

'최대한'은 부사로서 수량사구 앞에 쓰여 해당 양에 대해 '가장 크거나 많게 처리함'(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828)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최대한'은 앞에서 고찰한 주관 소량 표현들보다 주관화 정도가 약간 약한 편이다. 앞에서 살펴본 주관 소량 표현들은 강한 주관화 과정을 거쳐 주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서 늘 주관량의 표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최대한'은 화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주관량과 객관량으로 나뉜다.

먼저 '최대한'과 공기된 객관적 양을 살펴보자.

(44) 가. 투표권을 가진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41명. 이들은 정식 가맹경기단체 회장 및 부회장들이다. 따라서 시설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최대한** 5명까지 입후보가 가능하다.

나. 축구는 지금 37명의 수입 선수들이 뛰고 있으며 한 팀이 **최대한** 5명의 수입 선수를 보유, 한 경기에 3명까지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따라서 한 바이트로 한글을 표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두 바이트가 필요해 진다. 두 바이트(16비트)로 표상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는 **최대한** 2의 16승, 즉 65,536 가지의 문자를 표상할 수 있으므로, 한글의 표상이 가능하다.

(44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후보가 가능한 대의원 수가 많게 잡아도 5명까지 됨을 언급하였다. 규정이므로 화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이 개입

되어 있지 않다. 최대한도의 객관량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44나, 다)에서도 화자의 주관적 평가와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화자는 '최대한'을 통해 최대한도의 객관적 양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최대한'과 공기된 주관 소량의 경우 살펴보자.

(45) 가. 제가 늦게 하는 바람에 **최대한** 3일 안에 (기획안을) 만들어서 보내주실 분이 필요해요.

나. 앞으로 WD는 자유연재로 갑니다. 자유연재를 한다고는 해도 **최대한** 5일에 한번 씩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다. 전파 수상기의 프로그램 내용이 끼치는 영향의 시간적 지속성은 **최대한** 일주일 정도였었다.

(45가)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기획안을 만들어 보내주는 시간이 3일 이내로 해야 됨을 나타낸다. '3일'이라는 시간은 기획안을 만들어 달라는 시간의 상한선이지만 이 시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되어서 '최대한'은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량이 수량사구의 양인 '3일'에 비하여 미달이거나 같으므로 이때의 '최대한'은 미달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다. (45나)는 작품은 길게 잡아도 5일에 한번 씩 올릴 것을 나타낸다. 자유연재로 가므로 사실은 10일이나 한 달 내지 일 년에 한 번 씩 작품을 올려도 상관없다. 여기서 화자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주관적 참조량으로 삼는다. '최대한'과 공기된 양인 '5일'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매우 짧은 시간 주기라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45다)에서도 화자가 '최대한'을 이용해 '전파수상기의 프로그램 내용이 미치는 영향은 길게 잡아도 7일밖에 안 된다'는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③ '다불과(多不過)'

'다불과'는 부사로서 '많다고 해야 고작'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뒤에 어울리는 수량을 적다고 평가하여 그 수량을 주관적 소량이 되게 한다'(채

옥자 2014: 90~91). '다불과'를 통해 표현된 실제량은 그 수량사구의 양에 비해 같거나 적은 양이므로 미달 주관 소량의 표현이 된다.

(46) 가. **다불과** 30분 만에 모자의 가격이 2천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나. 낮이라서 그런지 다방에는 손님이 **다불과** 서넛밖에 없었다.
다. **다불과** 5만 원 정도의 손해일 것이다.

(46가)는 모자의 가격이 상승한 기간이 너무나 짧음을 나타낸다. 화자에게 모자의 가격이 상승한 시간 간격이 30분밖에 안 되거나 심지어 30분도 안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 짧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다불과'와 공기된 실제량은 수량사구 '30분'의 양에 비하면 같거나 적은 양이므로 미달 주관 소량이 된다. (46나)는 다방에 손님이 생각보다 적음을 나타낸다. '다불과'와 공기된 '손님 서넛'은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다불과'를 통해 표현된 실제 손님의 수는 많더라도 '넷'이며, 일반적으로 '네 명'보다 적은 것이므로 미달 주관 소량이 된다. 마찬가지로 (46다)에서 '다불과'에 실현된 '5만 원'도 주관적 소량이 된다.

3.4. '-도', '-까지', '마저'의 양면성

앞에서 주관량의 형태소·단어를 살펴보았다.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들도 있고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들도 있다. 그럼 주관 대량과 주관 소량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관 대량과 주관 소량을 형성하는 원리가 반대로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을 가능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이런 표현이 존재한다면 그 표현에 의해 주관 대량과 소량을 실현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과정일 것이다.

먼저 최윤희(2010:138~9)에서 나온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7) 500원이 변기에 빠지면 수수방관! 천 원은 우왕좌왕! 5천 원은 안절부절! 만 원은 이판사판! 십만 원은 사생결단! 그러나 인생관이 확실하면 500원에**도**$_1$ 사생결단, 10만 원**도**$_2$ 수수방관할 수 있다.

(47)은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인생관이 확실하면 500원이라는 작은 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며, 10만 원이라는 큰돈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47)에서 나온 '사생결단'과 '수수방관'에 대한 화자의 일반적 인식은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도$_1$'과 결합된 500원은 '사생결단'이라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도$_2$'와 공기된 10만 원은 '수수방관'이라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크다고 판단되므로 주관 대량이 된다. 다음으로 주관 대량의 표현과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서의 '-도'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도'는 보조사로서 수량사구 뒤에 '그 양이 기대한 것보다 많거나 적음'(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504)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48) 가. 신지 다이어트비법, 근황사진에도 날씬 "과거 술 10병도 문제없었다."

나. 열 명 학생도 이것을 하루 안으로 다 해 낼 수 없지.

다. 이 대강당은 정말 크기는 크구나. 한번 학생 천 명도 수용할 수 있다니.

(48가)는 화자가 예전에 술 10병까지 마실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도'와 결합된 '술 10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술 10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대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에 의해 주관 대량이 실현되는 경우 '-도'는 일치 주관 대량 표현으로 구분된다. 마찬가지로 (48나, 다)에서 화자는 '-도'와 결합된 '학생 열 명'과 '학생 천 명'이라

는 양을 일치 주관 대량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서의 '-도'를 살펴보자.

(49) 가. 국내 100대 대기업이라 불리고, 유통업계 매출 2위 기업인 그곳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마트 노동자들이다.

나. 문제가 쉬워서 푸는 데 십 분**도** 안 걸렸어요.

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다니"…

(49가)는 마트 노동자의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생각보다 너무나 적음을 나타낸다. '국내 100대 대기업'인데다가 '유통업계 매출 2위 기업'이므로 급여가 100만 원 이상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도'와 공기된 '100만 원'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낮아서 화자에게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인 '1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이때의 '-도'는 **미달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판정된다. 마찬가지로 (49나, 다)에서 화자는 '-도'와 결합된 '십 분'과 '1000명'이라는 미달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49다)와 (48다)는 모두 '-도'와 결합된 1000명인데 왜 하나는 주관 대량이 되고 다른 하나는 주관 소량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풀기 위해 일단 같은 양인데 '-도'에 의해 각각 주관 대량과 소량으로 실현된 예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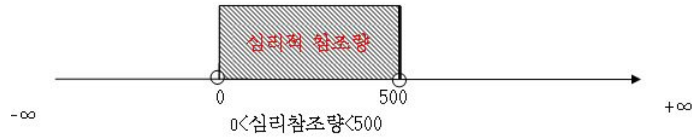
(50) 가. 이 예식장은 500명도 수용할 수 있다.

나. 이 예식장은 500명도 수용할 수 없다.

(50가)에서는 '-도'와 결합된 '500명'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은 0보다 많고 500보다 적은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8>



<그림 18>을 보면 오른쪽 방향수직선의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은 플러스 무한대다. 수직선 왼쪽에 있는 빈 동그라미는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며, 오른쪽에 있는 빈 동그라미는 '5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두 개 빈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음영 부분은 심리적 참조량이다. 부등식으로 표시한다면 '0<심리적 참조량<500'이다. (50가)에서 '-도'와 결합된 '500명'은 진하게 표시된 음영부분의 오른쪽 테두리다. '-도'와 결합된 일치 주관 대량인 '500명'은 심리적 참조량의 최대치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화자에게 현저성를 띠게 된다.

(50나)에서 '-도'와 결합된 '500명'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은 500명보다 많고 무한대 방향으로 나간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9>



<그림 19>를 보면 수직선의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은 플러스 무한대이다. 수직선의 왼쪽에 있는 빈 동그라미는 '5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빈 동그라미로부터 무한대 방향으로 표시된 음영부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다. 부등식으로 정리하자면 '500<심리적 참조량→+∞'다. 음영부분에 진하게 표시된 왼쪽 테두리는 '-도'와 공기된

'500 명'이다. '500'명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의 최소치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화자에게 현저성을 띠게 된다.

위와 같은 도식을 고려할 때 '-도'와 공기된 주관량이 주관 대량과 소량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양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에 따른 현저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 '-도'처럼 주관량의 양면성을 가질 수 있는 '-까지'에 이런 주장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까지'는 보조사로서 수량사구 뒤에 붙어 '극단적인 경우'(국립국어원 1999: 965)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도'처럼 주관량에 있어 양면성이 있다. 양해승(2014b: 145-146)에서는 '-까지'를 단지 일치 주관 대량 표현으로만 다루었는데 이는 미진한 기술이었다. '-까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수반되어 있어 발화에서 나오면 늘 화자를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놀라게 해 준다고 한 것은 타당한 판단이지만 '-까지'는 수량사구 뒤에 붙어 '극단적인 상황'은 '극단적으로 큰 양'도 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작은 양'도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큰 양' 같은 경우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과 비교할 때 생각보다 너무나 크다고 평가된 것이며, '극단적 작은 양' 같은 경우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과 비교할 때 생각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51) 가. 공화당은 지방유설반이 한 번 나가는 데 **만원**까지 쓰고 있다지만 강원도의 경우, 야당은 조직비(組織費)조차 쓸 수 없는 형편이다. (1963.09.30. 동아일보)

나.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조직 내에 '재원개발부서'를 따로 두고 적게는 1~2명, 많게는 10명**까지** 전담 스태프를 배치하고 있다.

다. 다음 달 월급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이달 월급을 마지막 **1원**까지 다 털어 사용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라. 특히 우리나라 패셔니스트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영국 브랜드 미스 셀프리지, 웨어하우스, 도로시 퍼킨스 등도 10만 원가량의 티셔츠 가격이 **만원**까지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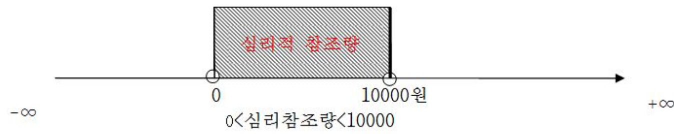
(51 가)는 1960 년대는 한국 사람에게 궁핍한 시절이었는데 야당은 조직비조차 없었던 반면, 공화당은 지방유설반이 한 번 나가면 1 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만원이라는 돈은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나 큰돈이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1 만 원'에 의해 나타난 양과 같으므로 '-까지'는 **일치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판정된다. 그리고 (51 나)에서 '-까지'와 결합된 '10 명'은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까지'는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까지'와 공기된 실제량은 '10 명'이 나타내는 양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이때의 '-까지'는 **미달 주관 대량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를 포괄하여 '-까지'는 **미달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구분해야 한다. (51 다)에서 '1 원'은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 적은 돈이므로 '-까지'와 결합된 '1 원'은 주관 소량이 된다. 실제량은 '1 원'에 나타난 양과 똑같으므로 '-까지'에 의해 나타난 양은 **일치 주관 소량**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52 라)에서도 '-까지'와 공기된 만원이라는 양은 일치 주관 소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까지'와 관련된 주관량의 양면성을 더 분명히 고찰하기 위해 일단 같은 양인데 '-까지'에 의해 각각 주관 대량과 소량으로 실현된 예문을 살펴보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도식을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한다.

(52) 가. 그 옷은 가격이 **만원**까지 올라간다.
나. 그 옷은 가격이 **만원**까지 내려간다.

(52가)에서는 '-까지'와 결합된 '만원'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 있다.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은 0보다 많고 10000원보다 적은 것이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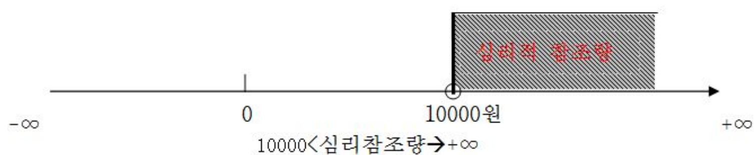
<그림 20>



<그림 20>을 보면 수직선의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은 플러스 무한대다. 수직선 왼쪽에 있는 빈 동그라미는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며, 오른쪽에 있는 빈 동그라미는 ‘100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두 개의 빈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음영 부분은 심리적 참조량이다. 부등식으로 표시한다면 ‘0<심리적 참조량<10000’이다. (52가)에서 ‘-까지’와 결합된 ‘10000원’은 진하게 표시된 음영부분의 오른쪽 테두리이다. ‘-까지’와 공기된 ‘10000원’은 심리적 참조량의 최대치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화자에게 현저성을 띠게 된다.

(52나)에서는 ‘-까지’와 결합된 ‘10000원’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은 10000보다 많고 무한대 방향으로 나간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1>



<그림 21>을 보면 수직선의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은 플러스 무한대다. 수직선의 왼쪽에 있는 빈 동그라미는 ‘100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빈 동그라미로부터 무한대 방향으로 표시된 음영부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다. 부등식으로 정리하자면 ‘10000<심리적 참조량→+∞’이다. 음영부분에 진하게 표시된 왼쪽 테두리는 ‘-까지’와 결합된 ‘10000원’이다. ‘10000원’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의 최소치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화자에게 현저성을 띠게 된다.

‘-마저’도 마찬가지이다. ‘-마저’는 보조사로서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 하나 남은 마지막임’(국립국어원 1999: 1998)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 수량사구는 ‘-마저’ 앞에 쓰여 ‘마지막의 그 수량도 어떠함’이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마저’와 공기된 수량은 마지막이라서 그것보다 더 적거나 클 수 있는 양이 없다. 그래서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화자에게 마지막이라서 심리적 참조량보다 매우 적거나 크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소량이나 대량이 된다.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서 ‘-마저’는 주로 부정적 표현(붕괴되다, 깨지다 등)과 공기하고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서 ‘-마저’는 주로 긍정적 표현(돌파하다, 넘어서다 등)과 공기할 수 있다. ‘-마저’는 주관 소량 표현으로서의 경우에는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때의 ‘-마저’는 미달 주관 소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주관 대량 표현으로서의 경우에는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을 초과하므로 이때의 ‘마저’는 초과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53) 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과 창당을 동시 추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도가 하락세를 계속하다 결국 30%대**마저** 붕괴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 코스피 지수가 원·달러 환율이 1030원 선이 깨지면서 외국인이 매도 폭을 키워 1940선**마저** 내줬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9.56포인트(1.00%) 내린 1939.88에 장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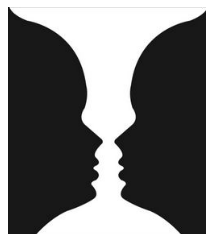
다. 주가가 치솟아 2000선**마저** 돌파했다.

라. 지난해 1분기 부터 3분기까지는 스마트폰 부문의 영업이익이 6조원**마저** 넘어섰다. 3분기에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도 2조원대를 넘어서며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53가)는 지지도가 하한선인 30%까지 내렸음을 의미한다. '-마저'와 공기된 '30%대'가 최저 하한선인데 이것까지도 유지하지 못해 그 이하로 내렸으므로 실제량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30%까지 붕괴되어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30%에 미치지 못하므로 미달 주관 소량으로 세분된다. 마찬가지로 (53나)에서는 화자가 '-마저'를 통해 '코스피 지수가 1940선까지 내렸음'이라는 미달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53가), (53나)와 달리 (53다)에서는 '-마저'와 공기된 '2000선'이 화자의 생각보다 매우 큰 양이라서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낸 양 2000선보다 많으므로 '-마저'는 초과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판정된다. 마찬가지로 (53라)에서도 화자는 '-마저'를 통해 '영업이익이 6조원까지도 넘어섬'이라는 초과 주관 대량을 나타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할 때 양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에 따른 현저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도', '-까지', '-마저'의 주관량의 양면성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도', '-까지', '-마저'에 의한 주관량의 양면성 현상에 숨겨져 있는 이런 심층적 규칙을 밝히기 위해 '루빈의 컵(Rubin's Cup)' 이론을 도입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루빈의 컵'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루빈의 컵'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임지룡 1997: 14).

<그림 22> 루빈(Rubin)의 컵



<그림 22>는 화자의 관점에 따라 '꽃병'이나 '마주보고 있는 얼굴'로 지각될 수 있다. 화자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주관적 평가나 판다)에 따라 그림의 내용이 거꾸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림 22>의 하얀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꽃병’이 전경(figure)으로 되고 ‘마주보고 있는 얼굴’은 배경(ground)이 되며, 그 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통 전경이 배경보다 지각적으로 더 현저하다. 따라서 (50가, 나)에서 같은 양인 ‘500명’이 나왔는데 화자가 집중하는 곳에 따라 ‘500명’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의 다른 부분에 위치시켰다. 마찬가지로 (52가, 나)에서도 ‘-까지’와 공기된 양은 같지만 화자가 집중하는 곳에 따라 극단적으로 큰 양도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작은 양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저성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50가, 52가)에서 현저성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의 최대치에 가까운 데서 나타나고 있으며, (50나, 52나)에서 현저성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의 최소치에 가까운 데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도’와 ‘-까지’에 의해 주관 대량과 소량이 실현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화자의 평가에 따라 화자가 집중하는 심리적 참조량 범위와 위치가 달라서 심리적으로 ‘-도’와 ‘-까지’와 공기된 양은 참조량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와 ‘-까지’와 공기된 수량 표현은 같은 양이더라도 주관적 평가나 판단에 따라 현저성이 다르게 나타나서 참조량보다 많거나 적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관 대량도 될 수도 있고 주관 소량도 될 수 있다.

4. 주관량의 통사적 표현

앞에서 주관량이 반영된 형태적 현상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주관량이 나타난 통사적 표현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관량의 통사적 표현 방법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핵심 형태소·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통사구조다. 예를 들면, '-에 달하다', '끽해야(끽하-+아야)', '-밖에+부정표현' 등등이다. 이 예들의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런 통사구조의 핵심 형태소·단어다. 이런 통사구조의 중심 형태소·단어는 혼자서 수량사구와 함께 주관량을 표현하지 못한다. 보통 다른 특정한 문법 요소와 결합해야 해당 주관량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54) 가. *수백억 원을 달하는 거래 내역
　　나. *끽하다 4000만~5000만 원
　　다. *22km밖에 떨어진다

별표를 단 (54가~다)는 모두 비문이다. 왜냐하면 주관량을 표현하기 위해 '달하다'는 '-에' 뒤에 붙어 써야 하고, '끽하다'는 '-여야'와 결합해 써야 되며, '-밖에'는 뒤에 '부정표현'이 와야 된다. 이런 통사구조를 본고에서는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이라고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앞 장에서 검토했던 형태적 주관량 표현을 의미・통사적 합리성에 따라 서로 간이나 다른 문법 요소 간이나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과 교차・적용시켜 조합된 통사구조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55) 가. 흘낏 보면 정상적인 스케줄에 따라 이륙했던 미국 국내선 여객기 한 대가 지상 관제탑으로부터 난방이 안 되는 화물칸에 '견공 가족'이 탔다는 긴급 무선연락을 받고 이들의 동사를 막기

위해 **<u>무려</u>** 7톤**<u>이나</u>** 되는 연료를 하염없이 버리고 비상착륙을 감행한 소식이 있었다.

나. '폭탄주'의 화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외국의 유사 폭탄주에 비해 **최소한** 5~ 10배**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55가)에 나온 '무려…-(이)나'의 통사구조는 '일치 주관 대량 표현'이며, (55나)에 나온 '최소한… - 에 이르다'의 통사구조에서는 비록 '-에 이르다'라는 '일치 주관 대량 표현'이지만 '최소한'과 공기되어 (55나)에서 초과 주관 대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통사구조를 본고에서는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먼저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4.1.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

앞서 살펴본 주관량의 구분기준에 따르면,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도 여섯 가지로 나뉘어야 되는데 통사적 표현 방면에서는 단지 일치 주관 대량, 미달 주관 대량, 일치 주관 소량, 미달 주관 소량의 네 가지만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일치 주관적 단순 통사적 표현은 '-에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 '-야/-어서야' 등이고 미달 주관 대량의 통사적 표현은 '-에 가깝다' 등이다. 일치 주관 소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은 '-밖에', '-에 불과하다', '-ㄹ/을 뿐이다', '-에 지나지 않다/그치다', '-만 해도', '-만 되어도' 등이고 미달 주관 소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은 '끽해야', '많아야', '많아 봤자' '-도/조차 안 되다' 등이다. 다음으로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1.1. 주관 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

4.1.1.1. 주관 대량과 긍정적 표현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관 대량을 표현하는 형태소·단어들은 모두 긍정적 표현들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살펴볼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

현 표현들도 긍정적 표현이 쓰인다. 그럼 주관 대량들은 왜 긍정적 표현들에 의해 실현되는가?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량에 대한 긍정적 표현 방법은 주·객관적 관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객관 긍정적 표현법과 주관 긍정적 표현법이다. 객관 긍정적 표현법은 보통 논리적 판단에 대한 긍정적 명제이다.

(56) 가. 물을 **한 컵** 뿌렸다.

나. 그는 나보다 **두 살** 위이다.

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29조 8000억 원**으로 전년(27조원)에 비하여 **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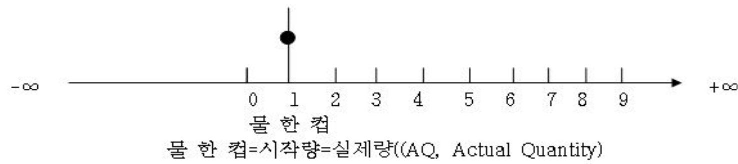
라. 1월 **마이너스 27%**를 기록했던 자동차생산과 부품 산업은 2월에 **플러스 19%**로 반전했다.

이 현상에 대해 더 깊이 다루기 위해 먼저 알아둘 개념이 두 가지 있는데 즉 그것은 시작량(始作量, original quantity)과 실제량이다. 시작량이란 화자가 말한 양의 최초의 기점이나 주관적 참조량이다. 실제량(實際量, Actual Quantity)이란 앞에서 자주 나왔듯이 문장 속에서 시작량으로부터 발전된 실제로 가진 양의 값이다.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양의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56가)에서는 시작량과 실제량이 똑같은데 모두 '물 한 컵'이다. (56나)에서 시작량은 나의 나이이며, 실제량은 그의 나이다. (56다)에서 시작량은 27조 원이고 실제량은 29조8000억 원이다. (56라)에서 시작량은 마이너스 27%이고 실제량은 플러스 19%다. 그럼 지금부터 도식을 통해 시작량과 실제량 간의 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먼저 위와 같은 예문들을 도식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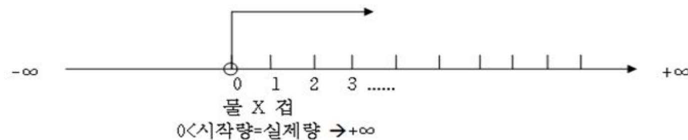
가. 물을 **한 컵** 뿌렸다.



<그림 23>에서 수직선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은 플러스 무한대이다. 원점은 0이고 화자가 뿌렸던 물 한 컵은 세로줄 위에 검은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시작량과 실제량은 공히 '물 한 컵'이다. 이것은 등식으로 정리하자면 '물 한 컵=시작량=실제량'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물 한 컵'을 '물 X 컵'으로 바꾼다면 물을 뿌리는 양은 어떤 값이라도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4>

가'. 물을 **X 컵** 뿌렸다.



<그림 24>에서 '0' 위에 달려 있는 빈 동그라미는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0컵이 아닌 이상 물을 뿌리는 양은 무한대의 방향으로 모든 값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시작량은 0보다 많아야 된다. 부등식으로 정리하자면 '0<시작량=실제량→+∞'이다.

다음으로 (104나)를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5>

나. 그는 나보다 **두 살** 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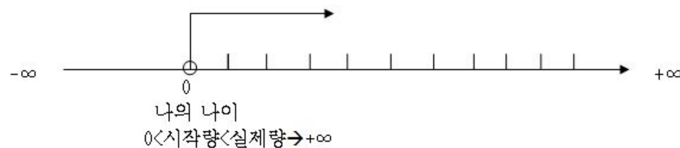
<그림 25>에서 왼쪽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곳은 '나의 나이'이며, 오른쪽

에 검은 동그라미가 표시된 곳은 ‘그의 나이’다. ‘나의 나이’는 시작량이고 ‘그의 나이’는 실제량으로서 ‘나의 나이’보다 2 살 위이므로 시작량보다 많아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시작량과 실제량은 ‘0’이면 안 되므로 원점인 ‘0’의 오른쪽에 있다. 이것은 부등식으로 보이면 ‘0<시작량(나의 나이)<실제량(그의 나이)’이다.

이 문장은 만약 격차량인 2살을 X로 바꾸면 ‘그’는 ‘나’보다 나이가 얼마든지 많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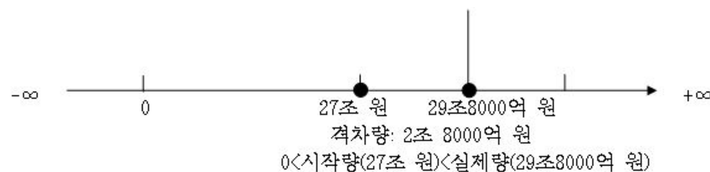
나’. 그는 나보다 **X 살** 위이다.



<그림 26>에서 빈 동그라미는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실제량인 ‘그의 나이’가 시작량인 ‘나의 나이’보다 얼마든지 많을 수 있으므로 그의 나이에 해당되는 값이 연결되어 수직선 위의 화살표가 된다. 화살표의 방향은 무한대 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부등식으로 보이면 ‘0<시작량<실제량→+∞’와 같다. 다음으로 (104다)를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7>

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29조 8000억 원**으로 전년(**27조원**)에 비하여 **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그림 27>에서 왼쪽 검은 동그라미는 시작량인 27조 원이며, 오른쪽

검은 동그라미는 실제량인 29조8000억 원이다. 두 개의 동그라미 간의 간격이 바로 격차량인 2조 8000억 원이다. 이것을 부등식으로 표현한다면 '0<시작량(27조원)<실제량(29조8000억 원)'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이 문장에서 시작량은 X로, 실제량은 Y로, 그리고 격차량은 Z로 바꿔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은 부등식 관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

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Y 원**으로 전년**(X원)**에 비하여 **Z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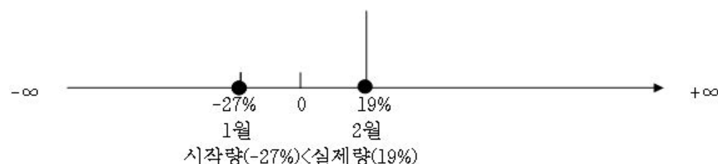


<그림 28>에서 검은 동그라미는 시작량을 나타낸다. 시작량 X는 0이 될 수도 있지만 0 이하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량 Y는 시작량보다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서 해당 점이 연결되면 수직선 위의 화살표가 된다. 실제량은 +∞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실제량→+∞'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화살표는 무한대방향으로 뻗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부등식 관계로 보이면 '0≦시작량(X)<실제량(Y)<+∞'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104 라)를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9>

라. 1월 **마이너스 27%**를 기록했던 자동차생산과 부품 산업은 2월에 **플러스 19%**로 반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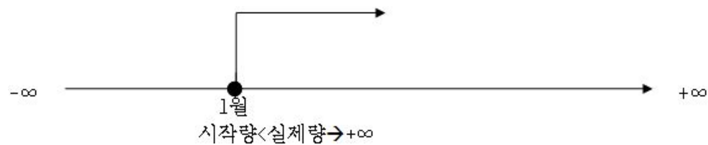


<그림 29>에서 왼쪽의 검은 동그라미는 시작량인 마이너스 27%이며,

오른쪽의 검은 동그라미는 실제량인 19%다. 그런데 시작량이 마이너스 값이므로 원점인 ‘0’의 왼쪽에 있다. 실제량은 플러스 값이이므로 원점인 ‘0’의 오른쪽에 있다. 두 개 동그라미 간의 간격은 바로 격차량이다. 이것은 부등식으로 보이면 ‘시작량(-27%)<0<실제량(19%)’이다. 그런데 만약 시작량은 미지수 X로 바꾸고 실제량은 미지수 Y로 바꾼다면 실제량인 Y는 시작량인 X보다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작량은 마이너스 값이라든지 플러스 값이라든지 상관없이 수직선 위의 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 이런 관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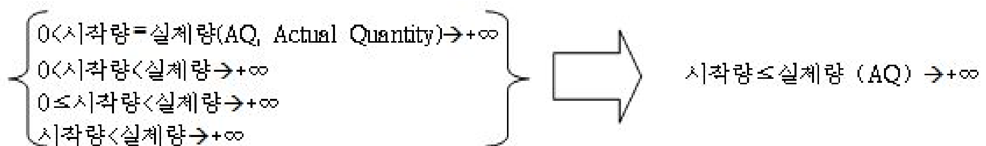
라′. 1월 X를 기록했던 자동차생산과 부품 산업은 2월에 Y로 반전했다.



<그림 30>에서 검은 동그라미는 시작량이며 수직선 위에 있는 화살표는 실제량이 될 수 있는 점이 연결된 것이다. 실제량이 시작량보다 많으므로 화살표의 방향은 무한대로 나가게 된다. 시작량은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값도 될 수도 있다. 실제량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도 있어서 ‘실제량→+∞’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네 가지 관계를 합쳐서 합집합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시작량≦실제량→+∞’이다. 이것을 합집합과 수직선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1>



<그림 32>



이상에서 객관 긍정적 표현법을 도식을 통해 설명했다. <그림 32>를 보면 실제량은 항상 시작량의 오른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데 이런 플러스 추세를 표현하려면 늘 긍정적 표현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럼 다음으로 주관 긍정적 표현법, 즉, 주관 대량과 긍정적 표현의 관계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작량은 화자가 말한 양의 최초의 기점이나 주관적 참조량이다. 주관량이 생기는 기점이 바로 심리적 참조량이다. 실제량은 주관적 심리 참조량보다 많거나 크다고 판단·평가되어야만 주관 대량이 된다. 앞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가져와 설명하기로 한다.

(57) 가. 지하철공사는 현재 2조7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매년 원리금 부담액이 6500억 원**이나** 돼 서울시가 매년 260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나.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보미가 데뷔 후에 58kg**까지** 살이 찐 적이 있다고 말해 화제다.

다. 독일이 이번 대회 우승으로 받는 상금은 **무려** 3천400만 달러(약 356억3천만원)다. 준우승에 머문 아르헨티나에는 2천500만 달러(254억5천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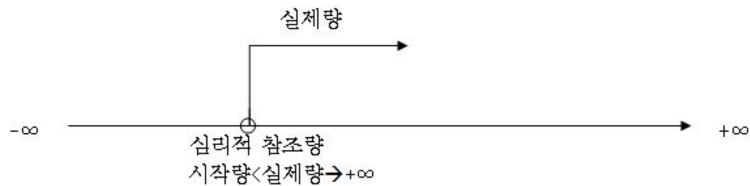
라.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16강 진출에 실패한 국가의 대표팀 감독들이 잇따라 물러나고 있다. **벌써** 7명의 감독이 사퇴했다.

(57가)에서는 실제량인 원리금 부담액 6500억 원이 시작량인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생기게 된다. (57나)에서는 실제량인 몸무게 58kg가 시작량인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57다, 라)에서는 실제량인 상금 3천 400만 달러와 사퇴 감독 7명이 시작량인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적으로 대량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관계를 수직선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3>



<그림 33>에서 수직선의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은 플러스 무한대이다. 수직선 위에 있는 빈 동그라미는 심리적 참조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주관 대량의 실제량은 시작량인 심리적 참조량보다 항상 많으므로 실제량은 늘 심리적 참조량의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실제량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어서 '실제량→+∞'로 표시된다. 말하자면 실제량이 시작량보다 많은데다가 항상 무한대로 플러스 추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 대량은 긍정적 표현으로 실현된다.

지금까지는 수량의 객관 긍정적 표현법과 주관 긍정적 표현법이 왜 항상 긍정적 표현에 의해 실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량의 객관 긍정적 표현법이나 주관 긍정적 표현법은 실제량이 시작량보다 늘 수직선 오른쪽에 있어 플러스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긍정적 표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긍정적 표현은 수량의 객관 긍정적 표현법이나 주관 긍정적 표현법에 적용하는데 우월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관 대량은 항상 긍정적 표현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4.1.1.2. 일치

1) '-에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 '-야/-어서야'

① '-에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

'이르다', '달하다', '다다르다'는 모두 자동사로서 '목적한 곳에 이르다' 라는 기본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약속 장소**에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와 같이 '이르다', '달하다', '다다르다'는 유의어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에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를 같은 통사・의미 기능을 가진 표현으로 함께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 앞에 수량사구가 오는 경우다. 즉, 주관량을 나타내기 위해 수량사구 뒤에 '-에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의 통사적 표현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수치나 수준에 미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그 도시의 인구는 수백만**에 달한다/이른다/다다른다.**' 등과 같은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 공간적 의미로부터 양범주라는 추상적 의미로 확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지룡(1997: 240~1)에서 어휘 의미 확장 양상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공간→시간→추상'의 양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는 원래 처음부터 공간적 의미를 가졌다가 시간적 의미로 확장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양범주라는 추상적 의미로 또다시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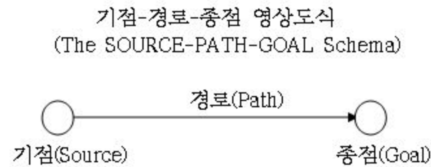
(58) 가. 그들은 드디어 **산의 정상**에 달했다. (공간적 의미)
나. 대포를 끌고 가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3개월**에 달했다.(수량적 의미)
다. 치료기간이 1개월 미만인 환자는 **72%**에 달해 병원 치료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추상적 의미)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는 위와 같은 의미 확장 양상을 거쳤는데도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Lakoff(1987: 267)에서 주장했던 영상도식(image schema)이론에서의 '기점-경로-종점 영상도식(The Source-Path-Goal Schema)'으로

해석된다. 이 영상도식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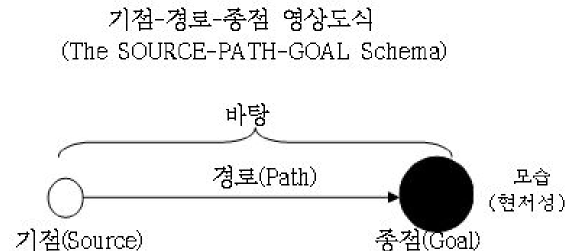


<그림 34>에서 왼쪽 동그라미는 ‘기점’이며 오른쪽 동그라미는 종점이다. 가운데 화살표는 경로와 방향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는 ‘기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거쳐 ‘종점’에 도착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기동 옮김(1988: 366)에 의하면, ‘모든 언어 서술에서 관찰되는 영상의 첫 차원은 ‘바탕(배경)’에 ‘모습(전경)’의 부과이다. 서술의 바탕은 그의 영역(또는, 복합 모체 안의 각각의 영역)이다. 모습은 바탕 안에서 현저성의 특별한 수준으로 올려진 하부 구조이다. 즉, 주어진 표현이 지시하는 하부 구조이다. 이 이론을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에 적용시키면 기점부터 종점까지의 전체 경로는 ‘바탕’이 되며, 종점은 ‘모습’이 된다. 왜냐하면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의 현저성은 종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5>



<그림 35>에서 왼쪽 동그라미는 기점이며, 오른쪽 동그라미는 종점이다. 가운데 화살표는 방향과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43>과 달라진 것은 바

로 종점의 색깔 및 크기다. 왜냐하면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는 종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림 35>에서 '종점'은 '모습(전경)'으로 '기점부터 종점까지의 전체 바탕'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사적 표현인 '-에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 앞에 오는 수량사구의 양은 항상 주관적으로 현저하게 된다.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은 보통 정상량(normal quantity)이라서 수량사구의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크다고 평가하게 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량사구의 양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에 이르다'/'달하다'/'다다르다'는 일치 주관 대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59) 가. 유병언 일가 계열사들의 자금 거래를 맡았던 우리은행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유병언 일가 차명 재산이 서울 강남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다. 그 결과 1973년부터 1988년까지 킴벌리 클락의 주주 총 수익률은 시장 평균 수익률의 3.4배**에 다다랐다**.

(59가)에서는 수백억 원이나 되는 거래 내역을 말하고 있다. 수백억 원이나 되는 거래 내역은 '-에 달하다'에 의해 현저성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거래내역에 대한 정상량(normal quantity, 이때는 심리적 참조량이기도 함)보다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인 수백억 원이 많다고 판단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에 달하다'는 통사적 일치 주관 대량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59나, 다)에서는 화자가 각각 '-에 이르다'와 '-에 다다르다'를 이용해 '수백억 원이나 되는 차명 재산'과 '3.4배나 되는 총 수익률'이라는 주관 대량을 나타내고 있다.

② '-야/-어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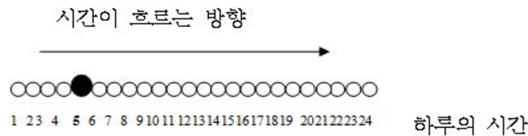
‘-야’는 보조사로서 체언이나 부사어 또는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야/-어서야’가 수량사구 뒤에 쓰여 주관량을 나타내는 경우다. 유의할 것은 코퍼스 검색 결과 ‘-야/-어서야’의 앞에 나온 수량사구는 거의 모두 시간 관련 수량사구이었다는 것이다.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늦거나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량사구의 양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야/-어서야’는 통사적 주관 대량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60) 가. "제발." "그는 돌아누우며 말했다." "조금만 더 잡시다. 형 어제 다섯 시**에야** 잠이 들었었어." "일어나 이 쌕끼야." 그는 준호의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나. 멈춘 퍼레이드는 이날 밤 10시가 되어**서야** 다시 행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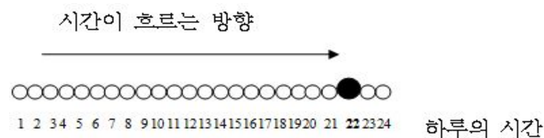
이것도 현저성의 원리로 자세히 해석할 수 있다. ‘현저성의 원리(salience principle)’란 두드러진 쪽을 그렇지 않은 쪽보다 먼저 지각하는 성향이라고 한다(임지룡1997: 386). (60가, 나)에서는 ‘-야’를 이용해 각각 ‘다섯 시’와 ‘밤 10시’를 강조함으로써 현저성을 띠게 했다.

이것을 각각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6-1>



<그림 36-2>



<그림 36-1,2>에서 화살표는 하루의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며, 동그라미는 하루의 24시간이다. (60가)에서는 '-야'에 의해 '다섯 시'를 강조하므로 <그림 36-1>의 다섯째의 동그라미는 현저성을 띠게 된다. (60나)에서는 '-야'에 의해 '밤 열 시'를 강조하므로 <그림 36-2>에서 '밤 열 시'를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현저성을 띠게 된다. 현저성을 띠는 시간은 다른 시간(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뚜렷하고 늦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 것이다. 그래서 (60가)에서는 겨우 잠에 든 '다섯 시'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늦다고 평가되어 '-야'를 이용해 주관 대량을 나타냈다. 그리고 (60나)에서는 화자가 행진을 시작한 '밤 10시'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늦다고 판단되어 '-어서야'를 통해 주관 대량을 나타냈다.

4.1.1.3. 미달

1) '-에 가깝다'

'가깝다'는 형용사로서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 (국립국어원 1999: 8)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등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에 가깝다' 앞에 수량사구가 와서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경우다. 이를 위해 먼저 '가깝다'의 원형의미 및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빈도 사전(서상규 2014: 81)에 따르면, '가깝다'는 '한 곳이 다른 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공간적 뜻으로 쓰인 빈도가 37.4%, '어떤 때가 될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시간적 뜻으로 쓰인 빈도가 9.06%, '서로의 사이가 친하다(21.26%)'거나 '어떤 친척과 촌수가 적다(3.54%)'라는 추상적 뜻으로 쓰인 빈도가 24.8%, '성질이나 상태가 무엇과 거의 비슷하다(13.78%)'거나 '어떤 상태에 거의 이르다(7.09%)'거나 '어떤 수에 거의 미치다(7.48%)'라는 뜻으로 쓰인 빈도가 28.35%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에서 공간적 의미로 쓰인 빈도가 37.4%에 달해 가장 높다. 언어사용에서 원형의미는 확장의미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임지룡 1997:245). 그러므로 '가깝다'의 의미에 있어 공간적 의미는 원형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의미 확장의 양상(임지룡, 1997: 240-241)에서의 '공간→시간→추상'의 순서대로 '가깝다'는 먼저 공간적 원형의미를 가졌다가 그 다음으로 시간적 의미로 확장되었고 그 다음으로 추상적 의미(친척관계/양범주)로 최종 확장된다. 그런데 여기서 추상적 의미로 쓰인 경우는 친척관계와 양범주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의미 간의 확장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것은 다른 양상인 '물리적→사회적 →심리적'이라는 단계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말하자면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는 다 물리적 의미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여 친척관계라는 사회적 의미로 확장되었다가 또다시 심리적 양범주로 최종 확장되었다. '가깝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공간적 의미→시간적 의미→친척관계라는 사회적 의미→양범주라는 심리적 의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61) 가. 비행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안전 가옥이 있습니다.(공간적 의미)

나. 새벽이 **가까워** 오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지치고 있었다.(시간적 의미)

다. **가까운** 친척이라곤 거의 없는 내게는 하나뿐인 고모였다.(사회적 의미)

라. 죽은 사람만 이백 명에 **가까우**면 그 외에 다친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심리적 의미)

'-에 가깝다' 앞에 수량사구가 나오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비록 사실상 실제량에 미달되지만 화자에게 그 양은 심리상 거의 실제량에 이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는 수량사구의 양은 인식적 차원에서 종점이 되어 현저성의 원리에 따라서 화자에게 매우 현저하게 인식되게 된다. 그래서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

보다 많다고 판단되므로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62) 가. 2.5km 에 달하는 곳에서 출전차량 20여 대가 최고 속도 185km **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순위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

나. 사실은 사전투표제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60%**에 가까운**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 미디어 부문 최고의 성적을 거둔, 옴니콤 미디어 그룹은 그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경쟁 미디어 그룹과 비교해도 400% 많은 황금사자상들을 수상, 총 20%**에 가까운** 큰 차이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62가)에서는 출전차량의 최고 속도가 거의 185km에 달하는 빠른 속도임을 말하고 있다. 185km가 비록 실제량이 아니지만 '-에 가깝다'에 의해 화자의 심리상 진짜 185km에 달하게 된 것처럼 느껴져 화자 앞에서 185km에 가까운 속도가 현저하게 부각된 된다. 화자의 일반 속도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그래서 현저하게 나온 수량사구의 양은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판단되므로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미달하므로 '-에 가깝다'는 통사적 미달 주관 대량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62나, 다)에서도 화자가 통사적 표현인 '-에 가깝다'를 이용해 '사전 투표율이 거의 60%에 이른다는 것'과 '다른 미디어 그룹보다 옴니콤 미디어 그룹은 거의 20%에 달하는 우세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라는 주관 대량을 나타내고 있다.

2) '-에 육박하다'

'육박(肉薄)하다'는 동사로서 '가까이 바싹 덤벼들다. 가까이 바싹 쳐들

어가다'(국립국어원 1999: 4818)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적들은 군세를 정비하여 가지고 사면으로 **육박해** 들어왔다.'와 같은 용례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육박하다'는 주로 전쟁 용어로서 잘 쓰인다. 그러면 어쩌다가 '육박하다'는 양범주에 쓰이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풀려면 개념적 은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은유를 경험의 한 영역, 즉 '근원 영역'에서부터 다른 경험의 영역, 즉 '목표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인지 사상(cognitive mapping)'이라고 규정하였다(임지룡 1997: 173에서 재인용). 이때 '근원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물리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이다. 한편 '목표영역'은 표현하려는 영역으로서 추상적, 비물리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임지룡, 1997:174). 이에 따르면, '육박하다'는 원래 전투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말로서 주로 전투할 때 바싹 가까이 다가붙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근원영역으로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험을 준다. 이에 근거하여 추상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목표 영역인 '양범주'에 인지 사상(cognitive mapping)을 하게 되면 해당 '양범주'가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적 은유 과정에 따라 '육박하다'가 양범주에 쓰이게 된 것이다.

'육박하다'는 수량사구 뒤에 오게 되면 '어떤 수준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다. 가까이 바싹 따라붙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현저성 이론에 따르면, '육박하다'는 대상물로 다가가는 과정은 배경(Ground)이 되고, 대상물에 바싹 가까이 다가붙는 상태는 전경(Figure)이 된다. 그래서 전경에서 바싹 가까이 다가붙는 대상물이 현저하게 부각된다. 구조적 은유를 통해 '육박하다'가 양범주에 인지 사상(cognitive mapping)을 한 후에도 '육박하다'의 앞에 온 수량사구가 항상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 양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심리적 참조량이다. 그래서 '육박하다'와 공기된 양은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적으므로 미달 주관 대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육박하다'에 의해 주관 대량이 나탄 예를 살펴보자.

(63) 가. 오는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4 부산모터쇼가 개막 한지 닷새 만에 관람객수가 50여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나. 네팔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3가)에서는 관람객수가 50여만 명 가까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보통 전시회 참가 인원수는 적게 잡으면 몇 백 명, 많아도 만 여 명 정도 될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전시회 참가 인원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식이라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보다 50여만 명이라는 양은 너무나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에 육박하다'를 통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50여만 명'에 미달하므로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63나)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거의 만 명이나 되었음을 나타낸다. 지진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인데 네팔 대지진처럼 사상자가 만 명 가까이 초래된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고 평가되어 '-에 육박하다'와 공기된 '50여만 명'은 주관 대량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진 때문에 발생된 인명피해 수가 수량사구인 '50여만 명'에 미달하므로 '-에 육박하다'와 공기된 양은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된다.

4.1.2. 주관 소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

4.1.2.1. 주관 소량과 부정적 표현

앞의 2.3.1.1.에서 살펴봤듯이 주관 대량은 긍정적 표현과 공기된다. 그럼 주관 소량은 어떤 표현들에 의해 실현되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관 소량을 표현하는 형태소·단어들은 모두 부정적 표현들이다. 예를 들면, '겨우', '고작', '불과', '단지' 등등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살펴볼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들도 부정적 표현으로 나온다. 예를 들면, '-밖에 + 부정표현', '-에 불과하다', '-ㄹ/을 뿐이다', '-에 지나지 않다'

등등이다. 그러면 주관 소량들은 왜 부정적 표현들에 의해 실현되는가?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량에 대한 부정적 표현법은 객·주관적 관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객관 부정적 표현법과 주관 부정적 표현법이다.

먼저 객관 부정적 표현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객관 부정적 표현법은 보통 논리적 판단에 대한 부정적 명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64) 가. 그는 친구가 **없다**.

나. 전교생이 열 명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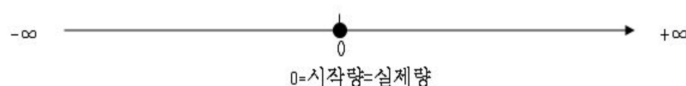
다. 개별입지 연평균 증가율이 이전 5년간(2006~2010년) 3.8%에서 최근 3년간 마이너스 1.1%로 **감소**했다

(64가)에서는 친구가 없으므로 시작량과 실제량이 같은데 다 '0'이다. (64나)에서는 시작량이 10명이며, 실제량은 0보다 많고 10명보다 적은 것이다. 부등식으로 표시한다면 '0<실제량<시작량(10)'이다. (64다)에서 시작량은 3.8%이며, 실제량은 -1.1%다. 부등식으로 표시한다면 '실제량(-1.1%)<0<시작량(3.8%)'이다.

(64가, 나, 다)에서 나온 시작량과 실제량의 관계를 각각 수직선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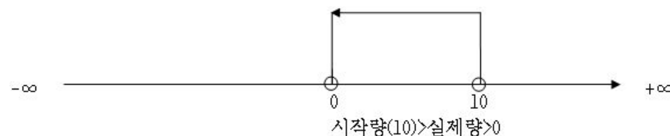
<그림 37>

(64가) 그는 친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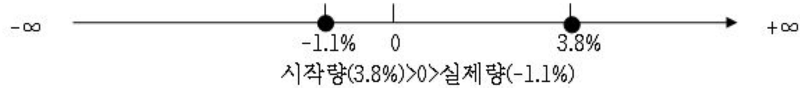
<그림 38>

(64나) 전교생이 열 명이 안 된다.



<그림 39>

(64다) 개별입지 연평균 증가율이 이전 5년간(2006~2010년)3.8%에서 최근 3년간 마이너스 1.1%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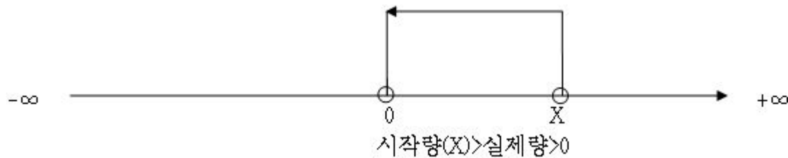


(64가)에서 '친구'가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도 <그림 37>과 같은 '시작량=0=실제량'의 관계가 나올 것이다. (64나)에서는 만약 '열 명'을 'X명'으로 바꿔도 해당 수직선 모양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40>

(64나′) 전교생이 X명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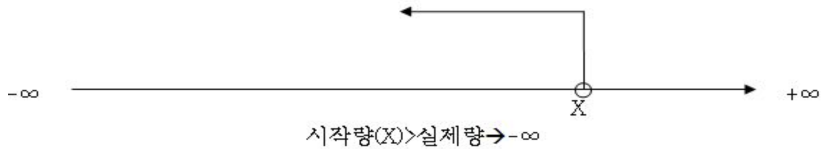


<그림 40>에서 수직선의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은 플러스 무한대다. 왼쪽 빈 동그라미는 시작량인데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며, 오른쪽의 빈 동그라미는 실제량인데 X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수직선 위 화살표는 실제량의 마이너스 경향을 표시하는 것이다. 실제량은 시작량보다 적고 0보다 많은데 부등식으로 표시한다면 '시작량(X)>실제량>0'이다. 이 중에서 실제량은 마이너스 경향이 있다. 즉, 화자가 늘 X에 가까운 숫자로부터 0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39>의 '3.8%'를 'X'로 바꾸고 '－1.1%'를 'Y'로 바꾸면 아래와 같은 수직선 그림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1>

(64다′) 개별입지 연평균 증가율이 이전 A년간 X에서 최근 B년 간 Y로 감소했다.



<그림 41>에서 X는 시작량인데 빈 동그라미는 X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Y는 실제량인데 항상 X보다 작고 X의 왼쪽에 있다. 수직선 위에 있는 화살표는 Y를 대표하는 점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Y는 마이너스 경향이 있어서 화살표 방향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 나가고 있다. 부등식으로 이 관계를 표시한다면 '시작량(X)>실제량→∞'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7>, <그림 40>, <그림 41>에서 나온 관계 부등식의 합집합을 취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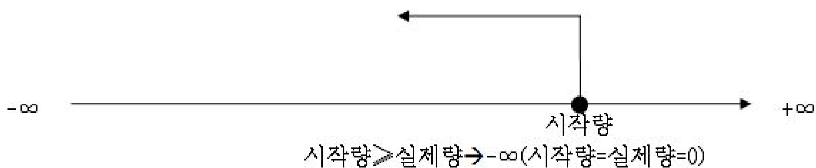
시작량=실제량=0
시작량>실제량>0 (실제량→0)
시작량>실제량→-∞

⇒

시작량≥실제량→-∞
(시작량=실제량=0)

이것은 수직선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3>



<그림 43>에서 수직선 위에 있는 검은 동그라미는 시작량이고 그리고

실제량은 시작량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시작량은 실제량과 같을 경우 '0'이 된다. 그리고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다른 경우에는 실제량은 늘 시작량의 왼쪽에 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실제량을 대표하는 점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화살표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보면 수량의 객관 부정적 표현법은 실제량이 늘 시작량의 왼쪽에 있어서 항상 마이너스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량의 객관 부정적 표현법이 부정적 표현에 의해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 다음으로 주관 부정적 표현법을 살펴보자. 주관 부정적 표현법은 바로 주관 소량을 말한 것이다.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주관 소량은 실제량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나타난 것이다. 시작량 정의에 따라 심리적 참조량은 바로 시작량이다. 앞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65) 가. 수원정 여론조사 결과 임태희·박광온 지지율이 **겨우** 0.5%(p)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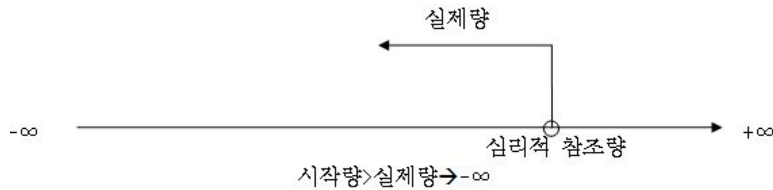
나. 이원기 후보의 득표수는 2만7,200표. 당선자와는 **불과** 2표차이었다.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

다. 고(高)물가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단돈** 1,000원에 짜장면을 파는 식당이 눈길을 끌고 있다.

(65가)에서 실제량은 0.5%이고 시작량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인데 0.5%보다 작은 양이다. (65나)에서 실제량은 2표이고 시작량은 실제량보다 양이 적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다. 마찬가지로 (65다)에서 실제량은 1000원이고 시작량인 화자의 심리적 주관량은 실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가, 나, 다)에서 나온 시작량과 실제량의 관계를 수직선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4>



<그림 44>에서 수직선위에 있는 빈 동그라미는 심리적 참조량이고 세로줄과 화살표는 실제량이다. 그런데 세로줄은 빈 동그라미 즉 심리적 참조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화살표는 심리적 참조량의 왼쪽에 있는 실제량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점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량은 마이너스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부등식으로 보이면 '시작량>실제량→-∞'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보면 수량의 주관 부정적 표현법인 주관 소량은 실제량이 시작량의 왼쪽에 있어 늘 마이너스 경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주관 소량은 주로 부정적 표현에 의해 나타난다.

요컨대, 수량의 객관 부정적 표현법이라든지 주관 부정적 표현법이라든지 부정적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은 실제량이 시작량의 왼쪽에 있어 늘 마이너스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1.2.2. 일치

'-밖에+부정표현'/'-에 불과하다'/'-ㄹ/을 뿐이다'/'-에 지나지 않다'/'-에 그치다'/-에 갇혀 있다/-에 머무르다/-에서 제자리걸음하다/'-만 해도'/'-만 되어도'

1) '-밖에+부정표현'

'밖에'는 조사로서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국립국어원 1999: 2447). 그런데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그래서 본 목에서도 조사인 '밖에' 말고 통사적 표현인 '-밖에+부정표현'으로 다루기로 한다. 수량사구가 통사적 표현인 '-밖에+부정표현'의 앞에 나오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만 있고 더는 없음을 나타내며, 심리적 참조량보다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주관 소량이며, 통사적 표현인 '-밖에+부정표현'은 주관 소량의 표현이 된다. 그리고 '-밖에+부정표현'과 공기된 양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밖에+부정표현'은 일치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66) 가. 이번 월드컵은 노이어 역시 7경기를 치르는 동안 4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나. 이날 공효진은 "차사고 직후에 잠을 10분씩**밖에 못** 잤다. 차가 달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자꾸 잠에서 깼다"며…
　　다. 하루에 2시간**밖에** 만날 수 **없는** 부부가 있어 눈물짓게 하고 있다. 있다. 10일 방송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아이가 되어버린 아내 곁을 19년간 지켜온 해바라기 남편의 하루가 방송됐다.

(66가)는 수문장인 노이어의 실점이 겨우 4점뿐임을 나타낸다. 통사적 표현 '-밖에 하지 않다'와 공기된 '4실점'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은 실점이라서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4실점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66나, 다)에서는 화자가 각각 통사적 표현 '-밖에 못'과 '-밖에…없다'를 이용해서 '자는 시간 겨우 10분씩임'과 '하루에 만나는 시간 겨우 2시간임'이라는 일치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2) '-에 불과하다'

'불과하다'는 형용사로서 '무엇이 어떤 상태나 정도에 머무르고 말다'(국립국어원 1999: 2898)라는 뜻으로 쓰인다. 상태나 정도나 수량 뒤에 '-에'가 붙어야만 '불과하다'앞에 올 수 있다. 수량사구가 통사적 표현인 '-에 불과하다'의 앞에 나오면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임'을 나타

낸다.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67) 가. 거래액 500억**에 불과했던** 산업이 오늘날 그 누가 3조원을 바라보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겠는가?

나. 아르헨티나는 7골에 유효슈팅 비율은 64%**에 불과합**니다.

다. 이달 들어 수도권의 강우량이 예년의 10~20%**에 불과할** 만큼 적었기 때문입니다.

(67가)에서는 산업의 거래액이 500억 원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통사적 표현 '-에 불과하다'와 공기된 '500억 원'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이것은 뒤에서 나온 '3조원이라는 거대시장'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500억 원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통사적 표현 '-에 불과하다'는 일치 주관 소량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67나)에서는 '-에 불과하다'와 공기된 64%의 유효슈팅 비율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67다)에서는 '-에 불과하다'와 공기된 예년의 10~20%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판단되어 일치 주관 소량이 된다. 이것은 (115다)에서 나온 '이번 달 수도권의 강우량이 적었다'라는 말로 입증될 수 있다.

3) '-ㄹ/을 뿐'

'-뿐'은 앞에서 살펴본 조사인 '-뿐'과 달리 의존명사로서 관형사형 어미 '-ㄹ/을' 뒤에 쓰여 '-ㄹ/을 뿐'으로 구성되어 앞에 용언이나 '이다'가 올 수 있다.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국립국어원 1999: 3074). 수량사구가 통사적 표현인 '-ㄹ/을 뿐' 앞에 나오면 '앞 행동이나 상태 오직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대로만 할 따름'이라는 뜻으로 나타난다. 그 수량에 대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적다고 평가나 판

단을 해서 그것은 주관 소량이 된다. 그 수량사구가 '-ㄹ/을 뿐'을 통해 실현된 양은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으나 실제량과 같으므로 '-ㄹ/을 뿐'은 일치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68) 가. 손승연과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사실이 아니다. 두 사람이 밥 한 번 먹었**을 뿐**인데, 이런 기사가 나와 당황스럽다.

나. 지난해와 비교한 부처별 규제 건수에서는 재경부만 4건이 줄었**을 뿐**, 건교부가 50건, 금감위 34건, 노동부 28건, 환경부 20건이 각각 늘어난 …

다. 바꿔 말하면 100원을 벌면 우리나라에서는 집마다 97원 50전을 썼으나, 일본에서는 88원 50전을 썼**을 뿐**이다.

(68가)에서는 두 사람 사이는 연애 관계가 아니라 밥 한 번 먹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관계임을 나타낸다. '-을 뿐'과 공기된 '밥 한 번'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 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다는 횟수인 한 번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68나, 다)에서 '-ㄹ/을 뿐'은 일치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으로서 각각 '4건'과 '88원 50전'의 뒤에 와 일치 주관 소량의 의미를 부여했다.

4) '-에 지나지 않다'

'지나다'는 앞에 수량사구가 올 때 '그 양이 벗어나거나 넘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국립국어원 1999: 5739). 그런데 용법상 수량사구가 직접 '지나다' 앞에 오지 못하고 그 뒤에 조사 '-에'가 붙어야만 '지나다' 앞에 올 수 있다. '-에 지나지 않다'는 조사인 '-에', 자동사인 '지나다', 그리고 부정표현인 '-지 않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수량사구 뒤에 나오게 되면 '그 수량밖에 달리는 되지 않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화자에게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나 판

단이 된다. 그러므로 통사적 표현인 '-에 지나지 않다' 앞에 오는 수량사구는 주관 소량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에 지나지 않다'와 공기된 양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에 지나지 않다'는 일치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69) 가. 산업인력공단이 확보한 해외업체들의 구인 수(2천5백50명)의 21.3%**에 지나지 않**는 숫자다.

나. 그러나 여전히 해외에서 생산하는 석유는 국내 석유수입량 중 3%**에 지나지 않**고 투자액도 이웃 일본의 10%에 크게 못 미친다.

(69가)에서는 그 숫자가 21.3%에 불과함을 나타낸다. '-에 지나지 않다'와 공기된 '21.3%'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매우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그 수량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으로 세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69나)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석유가 국내 석유수입량 중 '3%'만 차지하고 있을 뿐임을 나타낸다. '-에 지나지 않다'와 공기된 '3%'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이것은 문장 뒷부분에서 나온 '일본의 10%에 크게 못 미침'이라는 내용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 그리고 '3%'라는 양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에 그치다/갇혀 있다/머무르다'

'그치다'는 동사로서 '더 진전이 없이 어떤 정도나 한계에 머무름'(국립국어원 1999: 799)이라는 뜻을, '갇히다'는 동사로서 '행동의 제약을 받아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라는 뜻을, '머무르다'는 동사로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일정한 수준이나 범위에 그치다'(국립국어원 1999: 2100)라는 뜻을 나타낸다. 수량사구가 '그치다/갇혀 있다/머무르다' 앞에 나오려면 조사 '-에' 뒤에 붙어

야 된다. 이와 같은 통사적 표현들은 '원하지 않는 어떤 더 이상 진전 없는 양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통사적 표현 '-에 그치다/갇혀 있다/머무르다'와 공기된 수량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실제량은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으므로 '-에 그치다/갇혀 있다/머무르다'는 일치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0) 가. 서청원 의원이 3만 8천 293표로 2위를 기록했고,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이 3위, 이인제 의원이 4위로 새 지도부에 합류했습니다. 김을동 의원은 6위**에 그쳤**지만, 여성 몫으로 최고위에 합류했습니다.

나. 중국 증시는 크게 박스권에 갇혀 있으나 IPO 상장에 따른 시가총액은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지수가 아닌 유망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은 수십 배 상승하나 지수는 17년간 500-1000선**에 갇혀 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무리 인터리그 이후부터 강한 이대호라고 하지만 최근 '4경기 연속 무안타' 에 현재까지 '38타수 5안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70가)에서는 김을동 의원이 6위밖에 안 됨을 나타낸다. '-에 그치다'와 공기된 '6위'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최소한 5위 안으로 들어가야 됨)보다 낮아서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6위라는 양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70나)에서는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은 증시 지수가 원하지 않는 어떤 선에 계속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에 갇혀 있다'와 의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 '500-1000'선은 화자가 원하지 않은 양이며 생각보다 너무나 낮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에 갇혀 있다'에 의한 실제량은 수량사구 '500-1000선'의 양과 같으

므로 일치 주관 소량이 된다. (70다)에서는 '이대호' 선수가 '38타수 5안타' 수준에만 처하게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에 머무르다'와 공기된 실제량 '38타수 5안타'에 대해 화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다. 이것은 '부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8타수 5안타'라는 실제량은 화자의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에 머무르다'를 통해 표현된 대상의 실제량은 수량사구 '38타수 5안타'의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이 된다.

6) '-에서 제자리걸음하다'

'-에서 제자리걸음하다'는 조사'-에서', 명사 '제자리걸음', 접사 '하다'로 구성된다. '제자리걸음하다'는 동사로서 '상태가 나아가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무르는 일. 또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통사적 표현 '-에서 제자리걸음하다' 앞에 수량사구가 오게 되면 '화자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어떤 양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에서 제자리걸음하다'와 공기된 실제량은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참조량에 비하여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에서 제자리걸음하다'에 의한 실제량은 수량사구의 양과 같으므로 '-에서 제자리걸음하다'는 일치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1) 가. 코스피지수가 2050선 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2일 1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오후장 들어 외국인 매수 폭이 늘어나며 205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은 제한된 모습이다.

나. 수십 년 동안 60% 선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던 주택 보유율이 199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말에는 68%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고 수치다.

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1일 1578억6459만 원에서 12일 1577억6571만 원으로 **제자리 걸음**(-0.1%)을 했으나 23일에는

1652억9379만 원까지 치솟으며 4.77%의 증가율(12일 대비)을 나타냈다.

(71가)에서는 코스피지수가 어떤 수준에 머무르게 됨을 나타낸다. '2050선'은 회복된 지수이지만 '추가 상승은 제한된 모습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가 '-에서 제자리걸음하다'와 공기된 '2050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에서 제자리걸음하다'와 공기된 '2050선'은 화자의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 '2050선 위'의 양과 같으므로 일치 주관 소량이 된다. 마찬가지로 (71나, 다)에서 '-에서/로 제자리걸음하다'와 공기된 '60% 선'과 '1577억 6571만'도 일치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 있다.

7) '-만 해도'

'-만 해도'는 조사 '-만', 동사'하다', 그리고 연결어미 '아/어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조사 '-만'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배제함'을 나타내어 '오로지, 단지, 오직'의 뜻으로 쓰인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653). '해도'는 '앞선 행위나 상태를 근거로 들어 말함'을 나타낸다. '-만'과 '해도'로 구성된 통사적 표현인 '-만 해도'는 '이것 하나를 한정해서 들어 말한다고 하더라도'라는 뜻으로 쓰인다. 만약 수량사구 뒤에 '-만 해도'가 오게 되면 '단지 그 수량만 근거로 해도 뒤의 어떤 결과나 상황이 나올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만 해도' 앞에 나온 수량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거나 빠르다는 평가가 담겨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만 해도'와 공기된 수량과 같으므로 통사적 표현인 '-만 해도'는 일치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2) 가. 문제는 이렇게 받은 돈이 10만 원씩 1천 명**만 해도** 1억 원을 가뿐히 넘는데, 회계 보고의 의무도, 모금 한도도 없습니다.

나. 방송에 따르면 간헐적 운동법은 4분**만 해도** 1시간 운동효과를

발휘하는 운동이다. 1분 동안 최대 능력의 60% 강도 운동 후 1분 휴식을 10회 반복하면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에서는 계속 칼로리를 연소시킨다.

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인구 억제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

(72가)에서는 10만 원씩 단지 1천명이 되더라도 1억 원이 됨을 나타낸다. '-만 해도'와 공기된 '10만원 씩 1천 명'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이것은 뒤에서 나온 '1억 원을 가뿐히 넘는 것'이라는 주관 대량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리고 '10만 원씩 1천 명'은 가정(假定)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옮기면 그렇게 될 것이므로 실제량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 해도'와 공기된 '10만 원씩 1천 명'은 일치 주관 소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72나, 다)에서는 '-만 해도'를 통해 표현된 '4분'과 '30년 전'을 일치 주관 소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8) '-만 되어도'

'-만 되어도'는 조사 '-만', 동사 '되다', 그리고 연결어미 '아/어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조사 '-만'은 '단지, 오로지, 오직'이라는 배제의 뜻을 나타낸다. 동사 '되다'는 '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름'이라는 뜻을 나타낸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653). 연결어미 '-아도/어도'는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통사적 표현 '-만 되어도' 앞에 수량사구가 나오면 '최소한의 양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짐'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만 되어도'와 공기된 양은 화자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서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그 수량은 실제량과 같으므로 통사적 표현인 '-만 되어도'는 일치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3) 가. -10%**만 되어도** 몇 백만 원이 손해날 수 있고 +10%**만 되어도** 몇 백만 원이 수익날 수 있는 예민한 상품인데도 말이다.

나. 국회방송 시청률이 10%**만 되어도** 우리나라 정치 환경은 금방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즉, 앞으로는 가시거리가 300m**만 되어도** 항공기 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안개 날씨 등으로 시정거리가 최소 500m가 확보 안 되면 착륙이 통제됐다.

(73가)에서는 '단지 10% 차이 나더라도 손해나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만 되어도'와 공기된 '-10%'과 '+10%'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이것은 뒤에 나온 '몇 백만의 손해나 수익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예민한 상품'이라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리고 '-10%'과 '+10%'라는 숫자는 비록 화자가 가정했더라도 사실과 다름없어서 일치 주관 소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73나, 다)에서는 각각 '-만 되어도'와 공기된 '10%'과 '300m'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나온 '정치 환경이 금방 바뀌는 것'과 '최소 500m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4.1.2.3. 미달

'끽해야'/'많아야'/'많아 봤자'/'-도/조차 안 되다'

1) '끽해야'

'끽해야'는 동사 '끽하다'와 연결어미 '-아/어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동사 '끽하다'는 '할 수 있을 만큼 한껏 함'(국립국어원 1999: 1039)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아/어야'는 '아무리 가정하여도 영향이 없음'(국립국어원 1999: 4006)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통사적 표현인 '끽해야'는 '한껏 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하여도 겨우'(이희승 1978: 500)라는 뜻을 나타낸다. 수량사구가 '끽해야' 뒤에 나오게 되면 '아무리 높게, 많게 잡아

도'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끽해야'와 공기된 수량사구의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앞에서 '기껏' 소절에서 나온 <그림17>에서 보였듯이 '끽해야' 뒤에 나온 수량은 실제량과의 관계도 실제량과 같거나 실제량보다 그 수량이 적다는 것이라서 '끽해야'와 공기된 수량은 미달 주관 소량으로 봐야 되며, 통사적 표현인 '끽해야'는 미달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으로 보아야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4) 가. "야. 고등학생 기간은 **끽해야** 3년, 성인은 50년이야. 나중에도 다 할 수 있어. 너 나중에 후회한다. 학생은 학생다운 게 제일 예뻐."

나. 2009년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로 구속된 메이도프는 150년 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란 어떨까요? **끽해야** 5년 살고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금융사기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다. 지난해 3월 1차 서브프라임 사태 때 월가는 "손실이 **끽해야** 5백억 달러 정도다. 끄떡없다"고 호언했다. 웃기는 얘기였다. 미국의 모기지 대출은 10조 달러고, 서브프라임 대출은 1조 2천억 달러다.

(74가)에서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고등학교시절이 3년밖에 안 됨을 나타낸다. '끽해야'와 공기된 '3년'이라는 시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이것은 뒤에서 나온 명시적 참조량인 '성인이 되는 시간이 50년'이라는 긴 세월로 입증될 수 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은 실제량보다 적을 수 있어서 미달 주관 소량으로 세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74나, 다)에서 '끽해야'와 공기된 '5년'과 '5백억 달러'는 화자의 심리적 참자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5년'이 주관 소량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150년 형'이라는 많은 양과의 비교를 통해 받침될 수 있다. '5백억 달러'가 주관 소량

이라는 것은 뒤에 나온 '10조 달러'와 '1조 2천억 달러'라는 큰 양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2) '많아야'

'많아야'는 형용사 '많다'와 연결어미 '-아야'로 구성된다. 형용사 '많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음'(국립국어원 1999: 2029)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아야'는 앞 목에서 설명했듯이 '아무리 가정하여도 영향이 없음'(국립국어원 1999: 4006)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둘이 합해 구성된 통사적 표현인 '많아야'는 수량사구 앞에 쓰여 '아무리 많게 잡아도 그 양을 넘어서지 못함'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많아야'와 공기된 수량사구의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판단되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그 수량사구의 양은 실제량보다 적거나 아니면 실제량과 같으므로 미달 주관 소량으로 볼 수 있다. 통사적 표현인 '많아야'는 미달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5) 가. 크리스탈은 7월 15일 방송된 온스타일 '제시카&크리스탈'에서 "하루에 **많아야** 3시간 잔다. 밤새고 나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나. 구원파에게 날아오는 돌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라도 피할 수 없다. 구원파 관계자는 구원파 관계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 가운데 신도의 비율은 **많아야** 20%를 넘기지 않는다고…

다. 직장인 박아무개(30)씨는 월 70만 원 정도씩 적금을 넣고 싶은데 고민이다. 은행을 이곳저곳 문의해 봤으나 금리가 대부분 연 2%대거나 **많아야** 3%대 초반이었기 때문이다.

(75가)에서는 하루에 잠을 자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시간밖에 안 됨을 나타낸다. '많아야'와 공기된 3시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잠을 자는 3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량과 비교하여 적을 수도 있으므로 미달 주관 소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75다, 나)에서 '많아야'와 공기된 '20%를 넘기지 않는 신도 수'와 '3%대 초반의 금리'는 주관 소량을 나타낸다.

3) '많아 봤자'

'많아 봤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용사 '많다', 연결어미 '-아/어'와 보조동사 '보다'가 함께 구성된 '-아 보다', 그리고 과거시제 어미 '-았-'과 연결어미 '자'가 구성된 '-았자'다. 그 중에서 형용사 '많다'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 더 있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아 보다'는 '어떤 행동 시험 삼아 함'(국립국어원 1999: 2720)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았자'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더라도'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통사적 표현인 '많아 봤자'는 뒤에 수량사구가 나오면 '아무리 많게 잡아도 생각보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양'이라는 뜻이 나타난다. '많아 봤자'에 의해 수식을 받는 수량사구의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판단되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더 나아가 그 양은 실제량보다 적거나 실제량과 같으므로 미달 주관 소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많아 봤자'는 미달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6) 가. 시공간을 초월해 서로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재능을 공유했다는 점이 인터넷과 비슷하다. 답변들은 짧다. 1페이지에서 **많아봤자** 5페이지이다.

나. 30대 중반의 한 남성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마주치는 실종자 가족은 **많아봤자** 2～3명 정도"라며 "예전에는 식사 때면 취재진과 봉사자들이 천막에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끼니때가 돼도 20～30명가량만 식사를 하러 온다."고 말했다.

다. 이곳에서는 가까운 서울대 학생들도 자주 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1대1 혹은 **많아봤자** 3~4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

(76가)에서는 답변이 별로 많지 않고 5쪽밖에 안 됨을 나타낸다. ‘많아봤자’와 공기된 ‘5페이지’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5페이지’에 미달될 수도 있으므로 ‘많아봤자’의 수식을 받는 ‘5페이지’는 미달 주관 소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76나, 다)에서 화자는 ‘많아봤자’를 통해서 ‘2~3명 정도의 실종자 가족’과 ‘3~4명 정도의 아이’라는 미달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4) ‘-조차 안 되다’

‘-조차 안 되다’는 조사 ‘-조차’, 부정부사 ‘안’, 그리고 동사 ‘되다’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조차’는 조사로서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국립국어원 1999: 5553)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안’은 부정부사로서 ‘부정이나 반대’(국립국어원 1999: 3971, 4038)의 뜻으로 쓰인다. ‘되다’는 자동사로서 ‘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름’(국립국어원 1999: 1671)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통사적 표현인 ‘-조차 안 되다’ 앞에 수량사구가 나오면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은 화자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친다는 뜻이 드러나게 된다. 말하자면 그 양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실제량은 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못 미치므로 ‘-조차 안 되다’와 공기된 수량사구의 양은 미달 주관 소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통사구조 ‘-조차 안 되다’는 미달 주관 소량의 통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7) 가.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7.2㎏으로 쌀 한 가마니(80㎏)**조차 안 된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에서 2005년 80.7㎏으로 11년 만에 24.2% 줄었고, 2005~2013년간 16.7%가 줄었다.

나. 이대호는 팬 투표를 할 당시 1루수에선 순위 내에도 들지 못했고, 지명타자에선 1위로 선정된 W.페냐의 득표수 3분의 1**조차 안 된** 3위에 그쳤다

다. 김 과장은 "수화통역 화면의 경우 16분의 1, 공영방송인 KBS 는 16분의 1**조차 안 되**는 수준으로 화면이 너무 작아 제대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77가)에서는 지난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7.2kg으로 쌀 한 가마니도 이르지 못함을 나타낸다. '-조차 안 되다'와 공기된 '쌀 한가마니(80kg)'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80kg에 못 미치므로 '쌀 한가마니(80kg)'는 '-조차 안 되다' 때문에 미달 주관 소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77나, 다)에서 화자는 '-조차 안 되다'를 이용해 'W. 페냐의 득표수의 1/3도 못 이르는 것'과 '수화통역 화면이 1/16도 못 이르는 것'이라는 미달 주관 소량을 나타내었다.

4.2. 복합 통사적 주관량 표현

앞에서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을 살펴보았다. 본 소절에서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이란 의미·통사적 합리성에 따라 주관량의 형태적 표현들이 서로 간이나 다른 문법 요소 간이나 주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과 교차·적용시켜 조합된 통사적 표현이다. 예를 들면, '무려…-나', '단지…-에 그치다', '-어서야…겨우' 등등이다.

4.2.1. 의미협력 및 의미변형

이선희(2003a: 112~115)에서 중국어 주관량에 대해 '語義協同' 이론과 '語義應變'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소통 편의상 본고에서 '語義協同'이라는 술어(術語)를 '의미협력'으로 부르고, '語義應變'이라는 술어를 '의미변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이론은 한국어의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협력'과 '의미변형'이라는 이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선희(2003a)에 의하면, 두 개

이상의 주관량 표현들이 함께 나타날 때 서로 간의 영향으로 의미가 변할 수 있는데 이는 '의미협력'과 '의미변형'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의미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주관량 표현들이 한 문장 안에 함께 나타날 때 의미상 서로 어울리게 된 현상이다. '의미협력' 현상은 또다시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의미가 반대인 주관량 표현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며, 다른 한 가지는 의미가 같은 주관량 표현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주관량의 표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관량 표현이 서로 간 협력한 것이다(이선희, 2003a: 112). 그리고 '의미변형'이란 한 문장에 함께 나타난 두 가지 주관량 표현이 의미상 반대로 될 때 그 중에서 한 가지 주관량 표현의 의미가 다른 주관량 표현의 의미에 따라 적극적으로나 강제적으로 맞추어 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이선희, 2003a: 115).

'의미협력'과 '의미변형'이론은 한국어 주관량 연구에도 적용 가능하다. 의미협력 이론에 따라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의미가 상반된 주관량 표현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며, 다른 한 가지는 의미가 같은 주관량 표현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전자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관 대량 표현+주관 소량 표현' 유형과 '주관 소량 표현+주관 대량 표현' 유형이다. 후자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관 대량 표현+주관 대량 표현' 유형과 '주관 소량 표현+주관 소량 표현'유형이다. 의미변형 이론에 따라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은 또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주관 소량 표현이 주관 대량 표현에 따라 맞춰 변형하는 경우다. 다른 한 가지는 주관 대량 표현이 주관 소량 표현에 따라 맞춰 변형하는 경우다.

4.2.1.1. 의미협력 현상

1) 의미가 반대인 주관량 표현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① '대량+소량' 유형

'대량+소량 표현' 유형은 명칭대로 주관 대량 표현과 주관 소량 표현이

함께 한 문장 안에 나타나며, 주관 대량 표현은 앞부분에서 나오며, 주관 소량 표현은 뒷부분에서 나온다. 그리고 두 개의 주관량 표현은 서로 다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을 지향함으로써 주관 대량과 주관 소량 간의 선명한 대조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함께 쓰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8) 가. 30℃**를 넘**는 무더위 때문인지 10명**도 채 안 되**는 방문객들은 옛 고려의 도읍터 이곳저곳을 둘러보곤 이내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혔다.

나. '광해'는 1100만**까지 불과** 7000여 명을 남겨 두고 있어 30일 중 1100만 관객 돌파가 확실히 된다.

(78가)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 고려의 도읍터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별로 없음을 나타낸다. 주관 대량 표현인 '넘다'는 30도의 날씨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관 소량 표현인 '-도 안 되다'는 '1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주관 대량과 소량 표현은 서로 다른 양을 지향함으로써 무더운 날씨와 별로 없는 방문객 간에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찬가지로 (78나)에서 '-까지'와 공기된 1100만은 주관 대량이 되고 '불과'와 공기된 '7000여 명'이 주관 소량이 된다. 이런 '주관 대량+주관 소량'이라는 복합 통사적 표현을 통해 '영화 관객 수가 매우 많음'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② '소량+대량' 유형

'주관 소량 표현+주관 대량 표현' 유형도 '주관 대량 표현+주관 소량' 유형처럼 주관 소량 표현과 주관 대량 표현이 함께 한 문장 안에 나타나고 있지만 '주관 대량 표현+주관 소량' 유형과 달리 주관 소량 표현이 앞부분에서 나오며, 주관 대량 표현이 뒷부분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주관량 표현도 서로 다른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을 지향함으로써 주관 소량과 주관 대량 간의 선명한 대조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함께 쓰인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79) 가. **불과** 5년 전 비용이 천만 원**에 달하**고 수술결과가 안정적이지 못했다면 지금은 3000모 390만 원까지 대중화 되면서 정밀 분리와 정밀 채취로 생착률이 절개식과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나. 한편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 공격에 맞서 싸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명량 대첩을 그린 작품이다.
다. 연달아 상대 공격을 막아내며 **불과** 50초 만에 56-52**까지** 점수 차를 줄이기도 했다.

(79가)는 5년 전만 해도 수술비가 천만 원이나 되었음을 나타낸다. 주관 소량 표현인 '불과'는 '5년 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주관 대량 표현인 '-에 달하다'는 '천만 원'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복합 통사적 구조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비싼 수술비용이 크게 내렸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79나)에서 주관 소량 표현인 '단'은 '12척의 배'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관 대량 표현인 '달하다'는 '300척의 배'를 지향하고 있다. 화자는 이런 구조를 통해 아군과 적군 간의 병력 차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군이 승리를 거둔 것이 대단히 위대함을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79다)에서 주관 소량 표현인 '불과'와 공기된 '50초'는 주관 대량 표현인 '-까지'와 공기된 '56-52의 점수 차'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해당 농구 선수의 실력이 대단함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2) 의미가 같은 주관량 표현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① '대량+대량' 유형

'대량+대량' 유형은 두 개의 주관 대량 표현이 한 문장에 나와서 같은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을 지향한다. 화자는 이런 복합 통사적 유형을

통해 주관 대량을 더 강렬하게 선명하게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80) 가. '폭탄주'의 화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외국의 유사 폭탄주에 비해 **최소한** 5~10 배**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나. 미국인들에겐 **무려** 5대씩**이나** 거슬러 올라가 뿌리를 찾아내는 일이 사뭇 충격적인 일이었던지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면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책이다.
다. 세계 여러 나라의 위대한 정치가가 그 위대함을 나타낼 때는 **거의** 70이 **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80가)에서는 '폭탄주'라는 술이 외국 폭탄주보다 5~10배나 셈을 나타낸다. '최소한'과 '-에 이르다'와 공기된 주관 대량인 '5~10배'는 더 선명하게 '폭탄주가 셈'을 나타내게 한다. (80나)에서는 '5대'이라는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뿌리를 찾아냄을 나타낸다. 화자는 주관 대량 표현인 '무려'와 '-이나'를 이용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인 '5대'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80다)에서도 화자는 주관 대량 표현인 '거의'와 '넘다'와 공기된 '70세'를 통해 위대한 정치가들이 70세 쯤 되어야만 그 위대함을 나타냄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소량+소량' 유형

'주관 소량+주관 소량' 유형은 두 개 주관 소량 표현이 한 문장에 나타나 같은 양을 지향함으로써 주관 소량을 더 선명하게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81) 가. 당시 아파트들이 **고작해야** 5층 **남짓한** 점을 감안할 때 힐탑아파트의 11층은 파격적이었다. 풍부한 일조량과 북쪽의 판자촌을 가리기 위해 'V 자형'으로 설계됐으며 꺾인 중앙부분에는 국내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도…

나. 하지만 공장에 나가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다. 나머지는 직장이 없거나, 공장에서 쫓겨나 놀고 있다.

다. 임원들과의 점심은 거의 없다. 임원들과 회식자리는 1년에 **끽해야** 2~3번**에 불과하다**. 골프도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라. [편지의 2중창]이 나오는 장면도 3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보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81가)에서는 아무리 많게 잡아도 5 층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임을 나타낸다. 화자는 주관 소량인 '고작해야'와 '남짓하다'와 공기된 '5 층'을 통해 그 당시 대부분의 아파트의 층수가 적은 것에 비해 11층으로 건축된 힐탑아파트가 파격적임을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 (81나)에서는 주관 소량 표현인 '단'과 '-뿐'이 함께 '두 사람'을 지향하고 있으며, 화자는 두 개의 주관 소량 표현과 공기된 '두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 중에서 공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음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81다)에서는 1년에 임원들과 가진 회식자리가 너무나 적음을 나타낸다. 화자는 주관 소량 표현인 '끽해야'와 '-에 불과하다'를 통해 1년의 회식자리 횟수가 너무나 적음을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81라)에서 화자는 주관 소량의 표현인 '남짓'과 '-에 불과하다'와 공기된 '3분'을 통해 [편지의 2중창]이 나오는 장면의 길이가 너무 짧음을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

4.2.1.2. 의미변형 현상

앞에서 언급한 '의미변형'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반대된 주관량 표현 중에서 한 쪽은 다른 한 쪽의 영향을 받아 변형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주관화 정도와 관련된 과제다. 말하자면 어느 쪽이 변형하는 지는 주관화 정도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주관화 정도가 낮은 주관량 표현은 주관화 정도가 높은 주관량 표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

형이 발생한다. 앞에서 인용했던 윤병달(1993:4)의 품사의 주관성 위계설(位階說)을 여기서 다시 한 번 인용하기로 한다. 즉, 품사의 주관성 위계는 ‘감탄사>기능어>부사>동사/형용사>명사’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말하자면 부사나 조사(기능어)로서의 주관량 표현은 동사나 형용사로서의 주관량 표현에 쉽게 변형 영향을 끼치며, 주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 소량 표현은 주관 대량 표현에 쉽게 변형 영향을 끼친다. 바꾸어 말하자면, 주관 대량 표현이 주관 소량 표현에 따라 맞춰 변형하는 경우가 주관 소량 표현이 주관 대량 표현에 따라 맞춰 변형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 주관 소량 표현이 주관 대량 표현에 맞춰 변형된 경우

(82) 이들의 만남은 ‘빨간 책방 Cafe’ 3층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무려** 4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82)에서는 만남이 4시간이나 달함을 나타낸다. ‘무려’는 부사로서 주관 대량 표현이며, ‘남짓하다’는 형용사로서 주관 소량 표현이다. ‘무려’의 주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주관화 정도가 비교적 낮은 ‘남짓하다’에 영향을 미쳐 ‘무려’와 ‘남짓하다’와 공기된 ‘4시간’은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주관 대량 표현이 주관 소량 표현에 맞추어 변형된 경우

(83) 가. 앵커 LP들은 투자집행률이 20%를 **겨우 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다. 가지고 있는 실탄도 아직 소모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출자는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 터키 탄광 폭발사고의 사망자가 **많아야** 3백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측 발표에 정확한 희생자 숫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3가)는 '투자집행률이 20% 남짓밖에 안 됨'을 나타낸다. '겨우'는 부사로서의 주관 소량의 표현이며, '넘다'는 동사로서의 주관 대량 표현이다. 주관 소량 표현인 '겨우'의 주관화 정도가 매우 높아서 주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넘다'에 영향을 미쳐 '겨우'와 '넘다'와 공기된 '20%'는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83나)는 사망자가 아무리 많게 잡아도 300명쯤 될 것이고 별로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 주관 소량 표현인 '많아야'는 '많다+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사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주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주관 대량 표현인 '-에 이르다'는 동사 성격을 가진 통사적 표현으로서 경우에 따라 주관량도 표현할 수도 있고 객관량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관화 정도가 낮은 것이다. 그래서 '많아야'와 '-에 이르다'의 의해 실현된 '3백 명 수준'은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의미변형에 있어서 주관화 정도는 품사의 주관성 위계설보다 더 앞서서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84) 하지만 좋은 자재로 제대로 된 자동차도색 시설에서 작업을 하고 매뉴얼 시공을 한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100%**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지요.

(84)에서는 자동차도색 시공이 되도록 100% 고객 만족을 실현함을 나타낸다. 비록 주관 소량 표현인 '최대한'이 부사이기는 하지만 형용사 '가깝다'를 핵심으로 구성된 '-에 가깝다'는 주관 대량 표현으로서 주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여기서 '최대한'과 '-에 가깝다'와 공기된 '100%'는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의미협력과 의미변형 이론을 가지고 한국어 주관량의 복합 통

사적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같은 양을 지향하는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것도 주관량의 구분 기준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크게 주관 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과 주관 소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의 두 가지로 나뉜다. 그 다음에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에 초과인지 미달인지에 따라 각각 초과, 일치 주관 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으로 나뉜다. 그럼 이제부터 이와 같은 각각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2.2. 주관 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

4.2.2.1. 초과

초과 주관 대량은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많아야 되므로 복합 통사적 표현에서 항상 초과 주관 대량의 동사/부사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초과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복합 통사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1) '일치 주관 대량의 부사/조사 표현+수량사구+초과 주관 대량의 동사 표현'

예를 들면, (85)에서 나온 '무려…넘다', (86)에서 나온 '-(이)나…넘어서다' 등이다.

(85) 사실 전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탄생 시점이 **무려** 15년 **넘게** 차이 나는 신세대와 구세대 전투기의 공중전을 보며 몰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체격과 외형 뿐만 아니라 성능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86) 약속 시각이 한 시간**이나 넘어서야** 그는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다.

2) ‘초과 주관 대량의 부사 표현+수량사구+일치 주관 대량의 조사/부사 표현’

예를 들면, (87)에서 나온 ‘적어도…실히’ 등이다.

(87). …엿새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적어도** 몇 달은 **실히** 된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가 …

3) ‘초과 주관 대량의 부사 표현+수량사구+초과/일치 주관 대량의 동사 표현

예를 들면, (88), (89)에서 각각 나온 ‘최소한…넘어서다’, ‘적어도…에 달하다’ 등이다.

(88) 보도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최소한** 410명, 부상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89)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공약에 내놓으셨지만 정당공천 폐지문제다. 이를 빨리 저희 당에서도 확정을 지어서 처리해주셔야 **적어도** 79.8%**에 달하는** 국민들로부터 납득할 것이다.

4.2.2.2. 일치

일치 주관 대량은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아야 되므로 수량사구 앞뒤에 일치 주관 대량 표현만 올 수 있다. 말하자면 일치 주관 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1) ‘일치 주관 대량의 조사/부사 표현+NumP+일치 주관 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

예를 들면, (90)에서 나온 ‘-(이)나…-어서야’, (91)에서 나온 ‘물경…-

에 이르다’ 등이다.

(90) 아이들 다 보내고 나니 1시 반이**나** 되어**서야** 최군이 왔다. 주사를 맞도록 말이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 다 가 …

(91) 조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조달시장 네트워크’의 규모가 **물경** 5000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보고는 나라장터 전시회의 진면목이 되고도 남기 때문이다

2) ‘일치 주관 대량의 부사 표현+NumP+일치 주관 대량의 조사 표현’

예를 들면, (92)에서 나온 ‘무려…-(이)나’ 등이다.

(92) 법정 최고 현상금이 5000만 원인데도 **무려** 5억 원**이나** 걸려 있다.

3) ‘미달 주관 소량의 일부 부사 표현+NumP+일치 주관 대량의 일부 조사 표현’

예를 들면, (93)에서 나온 ‘최대한…-까지’ 등이다. 이것은 의미변형 현상으로 봐야 된다.

(93) 또 정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있는 일반 편입학의 경우도 2002학년도에 11개 교대가 실시한 편입학 규모가 807명으로 3학년 정원의 17%에 불과해 2003학년도에는 **최대한** 20%**까지** 편입학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4.2.2.3. 미달

미달 주관 대량은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적으므로 복합 통사적 표현으로 미달 주관 대량을 나타내려면 항상 미달 주관 대량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미달 주관 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은 다

음과 같이 나뉜다.

1) ‘미달 주관 대량의 부사표현+NumP+초과/중립/미달 주관 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

예를 들면, (94)에서 나온 ‘거의…넘다’, (95)에서 나온 ‘가까이…넘다’, (96)에서 나온 ‘거의…-에 이르다’, (97)에서 나온 ‘거의…-에 가깝다’ 등이다.

(94) 글로벌에서 국가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400%를 넘었고 미국은 260%, 영국은 270%이다. 1, 2, 3등 권에 있는 그룹이 **거의** 200%가 **넘었다**.

(95) 일반세균은 340CFU/mLFH로 기준(100)의 3배 이상이었고, 질산성질소는 17.5 ㎎/L로 기준치(10)를 2배 **가까이 넘었다.**

(96)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식민지 때 강제징용 또는 취업을 위하여 **거의** 400만**에 이르**는 국외로 나간 인구가 대거 귀국하고, 인구의 80퍼센트를 점하는 …

(97) 6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종합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78개 국가 중 43위를 차지했지만 ‘미세먼지 지표’는 178개 국가 중 **거의** 꼴찌**에 가까운** 171위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이슈페이퍼 ‘현안과 정책‘ 제25호를 통해 발표했다.

2) ‘미달 주관 대량의 부사 표현+NumP+미달 주관 대량의 부사표현’

예를 들면, (98)에서 나온 ‘거의…가까이’, (99)에서 나온 ‘무려…가까이’ 등이다.

(98) 끄덕이었다. 그들은 매운탕을 시키었고 식사를 하고 보니 **거의** 아홉 시 **가까이** 되어 있었다. 식탁이 치우어지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탈의장에서 술을 마시던..

(99) 최근 아프리카에서 9살 소년과 62세 여성의 결혼식이 열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무려**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부의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3) '일치 주관 대량의 조사/부사표현+NumP+미달 주관 대량의 부사/단순 통사적 표현'

예를 들면, (100)에서 나온 '물경…-에 가깝다' 등이다.

(100). 이러한 중국이 **물경** 7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경기부양책으로 쏟아 부었고 그 덕에 우리 수출도 작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4.2.3. 주관 소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

4.2.3.1. 초과

초과 주관 소량은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많아야 되므로 복합 통사적 표현에서 항상 초과 주관 소량의 형태적 표현(남짓/남짓하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초과 주관 소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1) '일치 주관 소량의 부사/관형사 표현+NumP+남짓/남짓하다'

예를 들면, (101), (102), (103), (104)에서 각각 나온 '겨우…남짓', '불과…남짓하다', '고작해야…남짓하다', '단…남짓하다' 등이다.

(101) 서비스 장애로 회사 업무에 큰 차질이 있었는데 **겨우** 몇 천 원 **남짓**으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냐?

(102) 오늘 오후 부산지역에 돌풍과 함께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인데요. 도심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3) 신혼 초에는 동네 고시원이 작업실이었고, 그 후로도 **고작해야**

대여섯 평 **남짓한** 크기의 공간을 옮겨 다녔다.

(104) 이만큼 훌륭한 시스템과 아름다운 세계가 **단** 열 시간 **남짓한** 시간 만에 더이상 플레이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닐까.

2) 'NumP+남짓+일치 주관 소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

예를 들면, (105), (106)에서 각각 나온 '남짓+에 그치다', '남짓+밖에+부정표현' 등이다.

(105)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0거래일 만에 매도우위로 돌아섰지만, 순매도액은 600억원 **남짓에 그쳤다.**

(106) 노조는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이번 달 월급은 100만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성장하고 임원들이 고액 연봉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노동자들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했다.

3) '미달 주관 소량의 형태적 표현/단순 통사적 표현+NumP+남짓/남짓하다'

예를 들면, (107), (108)에서 각각 나온 '기껏해야…남짓', '많아야…남짓' 등이다.

(107) 피케티의 장기 통계에 따르면 자본의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4~5% 주위에서 움직였는데 현재의 인구성장률 추이를 감안하면 21세기의 경제성장률은 **기껏해야** 1.5% **남짓**일 것이다.

(108) 제2구장으로서 1년 동안 **많아야** 10경기 **남짓** 프로야구를 펼치는 공간들의 노력이 놀랍다.

4.2.3.2. 일치

일치 주관 소량은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 같아야 되므로

수량사구 앞뒤에 일치 주관 소량 표현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일치 주관 소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1) '일치 주관 소량의 형태적 표현+NumP+일치 주관 소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

예를 들면, (109), (110), (111), (112)에서 각각 나온 '고작…-에 불과하다', '고작…-에 그치다', '고작해야…-밖에+부정표현', '불과…불과하다' 등이다.

(109) 그러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취락지구 336곳(2010년 말 기준)에는 주민 2만1640명이 거주한다. 지구당 **고작** 64명 꼴**에 불과하다**.

(110)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체납 징수율이 **고작** 0.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1) 농촌의 사립유치원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면 **고작해야** 한 해 62억 원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

(112) 현재 도내 185곳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9시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학교는 **불과** 6.4%인 12곳**에 불과하다.**

2) '일치 주관 소량의 부사/관형사 표현+NumP+일치 주관 소량의 조사 표현'

예를 들면, (113), (114), (115), (116)에서 각각 나온 '고작…만', '불과…만', '단돈…만', '단…뿐' 등이다.

(113) 100만원을 잘 굴려 10% 수익을 얻더라도 수중엔 **고작** 10만원**만** 떨어지지만 10억원은 수익률이 1%만 돼도 1000만원이 생긴다.

(114) 코스타리카는 8강까지 치른 5경기에서 **불과** 2실점**만**을 기록, 강력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115) 매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수도 하갓냐에 있는 챠모로 빌리지의

광장에 가서 **단돈** 2달러**만** 지불하면 바로 참가할 수 있다. 13세 미만은 반드시 어른과 동행해야 한다.

(116) 바스코는 "'쇼미더머니3'에 나온 이유는 바로 **단**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라며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아들 섭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4.2.3.3. 미달

미달 주관 소량은 실제량이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보다 적으므로 복합 통사적 표현으로 미달 주관 소량을 나타내려면 항상 미달 주관 소량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말하자면 수량사구 앞에 미달 주관 소량의 부사 표현(기껏해야, 잘해야, 최대한…) 혹은 일부 단순 통사적 표현(끽해야, 많아야, 많아 봤자, 길어야…)이 와야 하거나, 수량사구 뒤에 미달 주관 소량의 조사 표현(마저…) 혹은 일부 단순 통사적 표현(조차 안 되다, 도+부정표현…)이 와야 한다. 그래서 미달 주관 소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미달 주관 소량의 부사/부사성 단순 통사적 표현+NumP+초과/일치 주관 소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

예를 들면, (117), (118), (119), (120)에서 각각 나온 '기껏…넘지 않다', '기껏…-에 지나지 않다', '많아봤자…불과하다', '많아봤자…밖에+부정표현' 등이다.

(117)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평소에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기껏** 2,3백 명을 **넘기가 어렵고**, 사람의 뇌에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은 **기껏** 2,3천을 **넘지 않는다**

(118) …안주 한 접시에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거나, 땅콩 봉지를 터뜨려 놓고 생맥주 작은 잔으로 한두 잔씩 마시는 정도여서 술값은 **기껏** 2, 3천 원**에 지나지 않았다**.

(119) 문제는 이들 법률이 개인들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도 수백만원에서 **많아봤자** 수천만 원**에 불과한** 과징금 또는 과태

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120) 검은 색은 40가지다. 우리나라는 **많아봤자** 5~6가지 **밖에 안 된다**. 녹색과 검은색이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 수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인들은 그 많은 녹색과 검은색 중에 서로 어울리는 색을 찾아낸다.

2) '미달 주관 소량의 부사/부사성 단순 통사적 표현+NumP+일치 주관 소량의 조사 표현'

예를 들면, (121), (122)에서 각각 나온 '최대한…만', '끽해야…만' 등이다.

(121) 한 바이트로는 **최대한** 256가지의 문자**만**을 표상할 수 있지만, 자모음을 모아서 쓴 음절 문자로서의 한글의 가짓수는 훨씬 많기 때문이다.

(122) 그쯤 되는 거리야 오 킬로미터도 안 되고 **끽해야** 한두 시간**만** 걸어가면 넉넉하리라 보았으므로. 한국방송 88체육관이 있는 곳부터 발길을 뗀다.

3) '일치 주관 소량의 형태적 표현+NumP+미달 주관 소량의 조사 표현/조사성 단순 통사적 표현'

예를 들면, (123), (124)에서 각각 나온 '단돈…도 안 되다', '끽해야…도 안 되다' 등이다.

(123) 춘자비어는 20~30대를 겨냥한 맥주전문점으로, **단돈**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크림생맥주 두 잔과 맛있는 안주까지 맛볼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24) 물론 1시간 반이 넘는 영화와 **끽해야** 3분**도 안 되는** 예고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겠으나, 그렇다 해도 본 영화 상영 전 기습 등장하여…

5. 주관량의 다른 표현

5.1. 주관량의 조어론적 표현

5.1.1. 중첩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

그동안 한국어 중첩 현상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았는데 박승빈(1935)을 비롯하여 이희승(1955), 이익섭(1982), 채완(1986) 등을 거쳐 곽동기(1987), 최경애(1992), 송재목(2003), 박동근(2009), 송정근(2009, 2010, 2011), 김유권(2012), 손달임(2012), 박종후(2013)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연구의 성과는 주로 한국어 중첩의 개념, 유형, 구분 기준, 형성과정, 특성 등을 밝힌 것으로 중첩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음운적 형태적, 의미 기능적, 그리고 통시적 접근 등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첩 현상을 인지적 차원에서 주관량 이론과 연계시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언어 중첩 현상은 일반적으로 분배, 복수, 반복, 습관적인 행위, 크기의 증가, 강세, 연속 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Sapir, 1921:76; 김영석·이상억, 2008:158에서 재인용). 언어 중첩이 가지는 두 가지 큰 의미 범주가 있는데 즉 '증가'의 의미와 '축소'의 의미이다. 양적인 음성상징, 즉 소리와 의미의 형태적 유연성이 중첩이라는 언어적 형태의 증가를 통해 의미 내용의 증가를 불러일으켜 확장되면 '복수/증가/집합(plurality/increase/collectivity/abundance/size/diffuse)', '강조(intensification/intensity/empathy)', '반복(frequency/repetition/habitual)', '계속/연속/진행(continuation/continuity/progressive/durative)', '배분(distributive)', '완료(completion/perfectivity)'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질적인 음성상징, 즉 소리와 의미의 음운적 유연성에 의해 음상이 의미에 반영되어 중첩을 통해 확장이 이루어지면 '어린이(baby/child)', '작음(diminution/attenuation/small)', '경멸(contempt/pejorative)', '혼란/무질서/불안정(confusion/lack of control/disorder/non-uniformity/unsteady)', '분산(spread out/scatter)', '애정(a

ffection)'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이영길, 2004:276-277; 박종후, 2013:114에서 재인용).

첩어는 인지의미론에서 도상성(圖象性, iconicity) 이론에 의해 해석되고 있다. 인지의미론에서 뜻하는 도상성이란 사물의 모습이 기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듯이, 우리의 인지체계, 곧 '개념·사고·의미'의 모습이 언어의 '형태·구조'에 투영된 것을 말한다(임지룡, 1997: 378).

양의 원리(Quantity Principle)는 도상성의 의미 양상의 하나로서 첩어를 분석하는 데 적용해 볼 만하다. 양의 원리란 개념의 양과 형태의 양이 비례관계에 있는 도상성을 말한다. 곧 개념의 양이 많으면 형태의 양도 많고, 개념의 양이 적으면 형태의 양도 적어진다. 즉, 형태적으로 중첩 전보다 중첩 후에 인지적으로 개념의 내포가 확장되기도 하며 의미가 많아지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이론을 통하여, 중첩 후에 의미가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 약화/경감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화 및 약화 장치는 객관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지만,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일이 많다. 그런 점에서 중첩은 주관량과 관련된다. 즉, 화자가 지시대상에 대해 생각보다 많다거나 적다고 느낄 때 중첩 전의 중립적 성분에다가 중첩을 통해 그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해당 주관 대량이나 소량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중첩 현상을 중첩 성분의 품사에 따라 명사의 중첩, 대명사의 중첩, 수사의 중첩, 부사의 중첩, 형용사의 중첩 등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주관량 현상과 연계시켜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 주로 중첩 전의 뜻과 중첩 후의 뜻 간에 보이는 인지적 변화를 대조함으로써 중첩을 통해 나타나는 주관량 현상을 다루기로 한다.

1) 명사 중첩

주관량 이론과 연계시켜 다루고자 하는 명사 첩어는 '가닥가닥', '개개', '거리거리', '겹겹', '겸사겸사', '고생고생', '골목골목', '곳곳', '구석구석',

‘군데군데’, ‘나날’, ‘낱낱’, ‘다달’, ‘마디마디’, ‘면면’, ‘요소요소’, ‘조각조각’, ‘집집’, ‘층층’, ‘차례차례’, ‘토막토막’, ‘하루하루’, ‘일일이’, ‘번번이’, ‘샅샅이’, ‘틈틈이’ 등이다. 이와 같은 명사 중첩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가닥가닥

‘가닥가닥’은 형태적으로 볼 때 ‘가닥’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명사 첩어이다. 의미적으로 볼 때 주로 ‘여러 가닥’(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7)이라는 뜻으로, 즉 ‘여러 군데서 갈려 나온 낱낱의 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한 군데서 갈려 나온 낱낱의 줄’의 뜻으로 쓰이는 ‘가닥’보다 양이 많고 개체성이 분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는 ‘가닥가닥’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가닥’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가닥가닥’이라는 주관 대량 표현이 생성된 것이다.

② 개개

‘개개’는 형태적으로 볼 때 ‘개(箇)’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명사 첩어이다. 의미적으로 볼 때 주로 ‘여럿 가운데서 낱낱의 것’(국립국어원 1999: 183, 1135)이라는 뜻으로 쓰여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국립국어원 1999: 182)의 뜻으로 쓰이는 ‘개(箇)’보다 양이 많고 개체성이 분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는 ‘개개’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개’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개개’가 생성된 것이다.

③ 거리거리

‘거리거리’는 형태적으로 ‘거리’의 중첩으로 이뤄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러 길거리. 또는 각각의 길거리’(국립국어원 1999: 236)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거리’보다 양이 많고 개체성이 분배된 것을 나타낸다. 인지적으로 ‘거리거리’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거리’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

관 대량 표현인 ‘거리거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④ 겹겹

‘겹겹’은 형태적으로 ‘겹’의 중첩으로 이뤄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러 겹’(국립국어원 1999: 339)의 뜻으로 쓰이는데 ‘겹’보다 양이 많다는 복수의 뜻을 가진다. 인지적으로 ‘겹겹’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겹’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겹겹’이 생성된 것이다.

⑤ 고생고생

‘고생고생’은 형태적으로 ‘고생’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온갖 고생을 거듭하면서’(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34)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고생’보다 양적으로 겪은 수고가 많고 ‘모든 고생’을 겪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고생고생’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고생이 많다고 느끼게 되어 ‘고생’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의 표현인 ‘고생고생’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⑥ 골목골목

‘골목골목’은 형태적으로 ‘골목’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각각의 골목. 또는 모든 골목’(국립국어원 1999: 488)의 뜻으로 쓰이는데 ‘골목’보다 양적으로 많고 ‘모든 골목’이라는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골목골목’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골목’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골목골목’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⑦ 곳곳

‘곳곳’은 형태적으로 ‘곳’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러 곳 또는 이곳저곳’(국립국어원 1999: 501)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곳’

보다 양적으로 많고 '모든 곳'이라는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곳곳'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곳'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대량의 표현인 '곳곳'을 만들게 된다.

⑧ 구석구석

'구석구석'은 형태적으로 '구석'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이 구석 저 구석. 모든 구석'(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98/국립국어원 1999: 658)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구석'보다 양적으로 많고 '모든 구석'이라는 전체성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인지적으로 '구석구석'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구석'에다가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구석구석'을 주관 대량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⑨ 군데군데

'군데군데'는 형태적으로 '군데'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기저기 여러 곳에'(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210)라는 뜻으로 쓰인다. '군데'보다 양적으로 많고 '여지저기', '모든 곳'이라는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군데군데'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군데'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군데군데'를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⑩ 나날

'나날'은 형태적으로 '날'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이고 중첩 과정에서 첫째 '날'에서 받침 'ㄹ'이 탈락한 것이다. 의미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날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322)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날'보다 양적으로 많고 개체성의 배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나날'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날'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나날'을 만들게 된다.

⑪ 낱낱

'낱낱'은 형태적으로 '낱'의 중첩으로 생성된 것이다. 의미적으로 '여럿 가운데서 따로 떼어 낸 하나하나'(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349)라는 뜻으로 쓰인다. '낱'보다 양적으로 많고 개체성의 배분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낱낱'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낱'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낱낱'을 주관 대량 표현으로 만들게 된다.

⑫ 다달

'다달'은 위에서 살펴본 '나날'의 형성 과정과 비슷하다. 형태적으로 '달'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이고 중첩 과정에서 첫째 '달'에서 받침 'ㄹ'이 탈락한 것이다. 의미적으로 '달로 이어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개개의 달'(국립국어원 1999: 1342)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달'보다 양적으로 많고 개체성의 배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다달'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달'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다달'을 만들게 된다.

⑬ 마디마디

'마디마디'는 형태적으로 '마디'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이고 의미적으로 '각각의 모든 마디'(국립국어원 1999: 1979)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마디'보다 양적으로 많고 '모든 마디'의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마디마디'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마디'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마디마디'를 만들게 된다. '마디마디'와 '마디'는 서로 상대방을 참고량으로 삼아 주관량의 대립쌍이 된다. '마디마디'는 주관

대량으로 평가되는 반면 '마디'는 주관 소량으로 된다.

⑭ 면면

'면면'은 형태적으로 '면'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각각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얼굴'(국립국어원 1999: 2132)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면'보다 양적으로 많고 '각각의'라는 개체성 배분의 뉘앙스가 부각된다. 인지적으로 '면면'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면'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면면'을 만들게 된다.

⑮ 요소요소

'요소요소'는 형태적으로 '요소'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이고 의미적으로 '여러 중요한 장소나 지점'(국립국어원 1999: 4608)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요소'보다 양적으로 많고 '모든 요소'의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요소요소'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요소'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요소요소'를 만들게 된다.

⑯ 조각조각

'조각조각'은 형태적으로 '조각'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러 조각. 또는 각각의 조각'(국립국어원 1999: 5512)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조각'보다 양적으로 많고 '각각의'라는 개체성 배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조각조각'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조각'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조각조각'을 만들게 된다.

⑰ 집집

'집집'은 형태적으로 '집'의 중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의미적으로 '각 집. 또는 모든 집'(국립국어원 1999: 5854)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집’보다 양적으로 많고 ‘각각의’라는 개체성 배분과 ‘모든’이라는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집집’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집’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집집’을 만들게 된다.

⑱ 층층

‘층층’은 형태적으로 ‘층’의 중첩에 의해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인 층’(국립국어원 1999: 6179)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층’보다 양적으로 많고 ‘여러 층’이라는 복수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층층’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은 층으로 쌓인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층’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층층’을 만들게 된다.

⑲ 차례차례

‘차례차례’는 형태적으로 ‘차례’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이고 의미적으로 ‘차례에 따라 순서대로 하나하나씩’(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771)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차례’보다 양적으로 많고 ‘순서대로 하나하나씩’이라는 개체성의 배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차례차례’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차례’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차례차례’를 만들게 된다.

⑳ 토막토막

‘토막토막’은 형태적으로 ‘토막’의 중첩에 의해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토막마다 모두. 또는 여러 개의 토막’(국립국어원 1999: 6405)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토막’보다 양적으로 많고 ‘모든 토막’이라는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토막토막’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토막이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토막’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토막토막’을

만들게 된다.

㉑ **하루하루**

'하루하루'는 형태적으로 '하루'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매일매일의 시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998)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하루'보다 양적으로 많고 개체성 배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하루하루'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하루'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하루하루'를 만들게 된다.

2) 대명사 중첩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쪽저쪽, 너도나도 등.

① **여기저기**

'여기저기'는 형태적으로 '여기'와 '저기'의 부분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러 장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1999: 4306)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저기'보다 양적으로 많고 '여러 장소, 도처'의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여기저기'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여기/저기'에 부분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여기저기'를 만들게 된다.

② **이것저것**

'이것저것'은 형태적으로 '이것'와 '저것'의 부분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러 개의 사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1999: 4900)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것/저것'보다 양적으로 많고 '여러 개의'라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이것저것'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이것/저것'에 부분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이

것저것'을 만들게 된다.

③ **이쪽저쪽**

'이쪽저쪽'은 형태적으로 '이쪽'와 '저쪽'의 부분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이쪽과 저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1999: 4963)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쪽/저쪽'보다 양적으로 많고 '도처'라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이쪽저쪽'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이쪽/저쪽'에 부분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이쪽저쪽'을 만들게 된다.

④ **너도나도**

'너도나도'는 형태적으로 '너도'와 '나도'의 부분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서로 뒤지거나 빠지지 않으려고 모두'(국립국어원 1999: 1178)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너도/나도'보다 양적으로 많고 '모두'라는 전체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너도나도'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너도/나도'에 부분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너도나도'를 만들게 된다.

3) 수사 중첩

하나하나, 삼사오오 등

① **하나하나**

'하나하나'는 형태적으로 '하나'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이고 의미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는 낱낱의 대상'(국립국어원 1999: 6704)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보다 양적으로 많고 '낱낱의'라는 개체성 배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하나하나'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하나'에 중첩을 통해 주관

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하나하나'를 만들게 된다.

② 삼삼오오

'삼삼오오'는 형태적으로 '삼'와 '오'의 부분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이고 의미적으로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함. 또는 그 모양'(국립국어원 1999: 3245)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삼/오'보다 양적으로 많고 '흩어져 있다'는 분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삼삼오오'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삼/오'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대량 표현인 '삼삼오오'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명사 중첩에 의해 주관 소량이 생성된 경우가 없지 않는데 주로 어린이의 말에 나타난 첩어들이다. 예를 들면, '돼지'를 보고 '꿀꿀이'라고 하며, '개'를 보고 '멍멍이'라고 하며, '기차'를 보고 '칙칙폭폭'이라고 하며, '양치질'을 보고 '치카치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첩어는 객관량에 대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작음', '귀여움', '애정' 같은 '어린이'의 뉘앙스를 주입시킴으로써 생각보다 너무나 작다고 평가되어 주관적으로 소량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첩어로는 또 예를 들면, 곤지곤지, 죄암죄암 등등이 있다.

4) 부사 중첩

주관량 이론과 연계시켜 다루고자 하는 부사 첩어는 '꼭꼭', '가득가득', '가만가만', '금방금방', '문득문득', '거듭거듭', '길이길이' '깊이깊이', '너무너무', '두루두루', '따로따로', '무지무지', '미리미리', '빨리빨리' 등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부사 중첩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꼭꼭

'꼭꼭'은 형태적으로 '꼭'의 중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의미적으로 주로 두 가지의 뜻으로 쓰이는데 첫째는 의태어로서 '잇따라 또는 매우

야무지게 힘을 주어 누르거나 죄는 모양'이나 '잇따라 또는 매우 힘들여 참거나 견디는 모양'이나 '드러나지 않게 아주 단단히 숨거나 들어박히는 모양'의 뜻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1000). 둘째는 성분부사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틀림없이'나 '아주 조금도 어김없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의태어로 쓰이는 경우 '꼭꼭'은 '꼭'보다 의태의 정도성에 있어 높고 반복 및 지속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분부사로 쓰이는 경우 '꼭꼭'은 '꼭'보다 확실함의 정도성이 높고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볼 때 '꼭꼭'은 의태어로 쓰이는 경우라든지 성분부사로 쓰이는 경우라든지 그것에 의한 지시 양태나 수식 역할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정도성이 높다고 느끼게 되어 '꼭'에다가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반복, 지속,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주관 대량 표현인 '꼭꼭'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② 가득가득

'가득가득'은 형태적으로 '가득'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이 있는데 즉, '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여럿이 다 또는 매우 꽉 찬 모양'이나 '여럿이 다 빈 데가 없을 만큼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매우 많은 모양'이나 '냄새나 빛 따위가 공간에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상태'이라는 것이다(국립국어원 1999: 18). '가득'보다는 어떤 범위나 한도에 찬 정도성이 더 높거나 양적으로 더 많거나 공간적으로 매우 더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뉘앙스에 있어 '가득'보다 주체의 복수성(複數性)과 정도성의 강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25)

가. 그들은 커다란 접시마다 **가득가득** 담긴 빵과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가'. 아내는 바구니에 빨래를 **가득** 담아 가지고 나오다가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 제발 우리 고깃배가 터질 만큼 고등어를 **가득가득** 잡아 갔으면 좋겠다.

나'.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 대고 있었다.

(125가)에서는 '가득가득'을 통해 하나의 접시가 아니라 여러 접시가 가득 빵과 과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반면에 (125가')에서는 '가득'을 통해 바구니의 수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25나')에서 '가득'을 통해 술집 안에 찬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람들이 들어찬 정도가 (125나)보다 덜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터질 만큼'이라는 표현을 통해 쉽게 느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인지적으로는 '가득가득'에 의해 표현된 양이나 상태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너무 많거나 정도성이 높다고 느끼게 되어 '가득'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와 '복수'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주관 대량인 '가득가득'을 만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만가만

'가만가만'은 형태적으로 '가만'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나지 않도록 조용조용'이나 '움직임 따위 남이 모르도록 아주 살그머니'라는 뜻(국립국어원 1999: 33)으로 쓰이는데 '말이나 행동 등을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라는 뜻으로 쓰이는 '가만'에 비하여 지속성과 강조의 뉘앙스를 지닌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26) 가.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가만가만** 얘기해.

나. 아이들은 촛불을 조심스레 들고 **가만가만** 걸어 나왔다.

(126)에서 '가만가만'을 '가만'으로 바꾸면 어색하다. 왜냐하면 (126가)에서는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양'을 강조하기 위해 '가만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에서 '가만'으로 바뀐다면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강조의 뉘앙스가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가만 얘기해’는 ‘이야기 하는 것을 그만둬라’는 뜻으로 쓰여 오해가 생길 수 있다. (126나)에서 ‘가만가만’은 ‘가만’보다 ‘조용히 걷는 동작’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잘 보여 준다.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는 ‘가만가만’에 의한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생각보다 ‘조용히 하는 정도성’이 더 높다고 느끼게 되어 ‘가만’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와 지속성을 나타내는 ‘가만가만’이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④ 금방금방

‘금방금방’은 형태적으로 ‘금방’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일이나 행동 따위를 빨리빨리 하는 모양’(국립국어원 1999: 833)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라는 뜻으로 쓰이는 ‘금방’보다 시간 간격이 더 짧아서 사람에게 더 빠르게 진행된 강조 뉘앙스를 느껴 주며, 빨리빨리 하는 모양으로의 지속성의 뉘앙스도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27) 가. 볕이 좋아서 빨래가 **금방금방** 마른다.
나. 볕이 좋아서 빨래가 **금방** 마른다.

(127)에서는 볕이 좋아서 빨래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마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금방’에 의한 (127나)에서 ‘빨래가 마른 시간이 짧음’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낸다. 그런데 ‘금방금방’에 의한 (127가)에서는 강조의 뉘앙스로 ‘빨래가 마른 시간이 더 짧음’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빨래가 빨리 마른 모양 지속적이다’라는 화자의 뉘앙스도 함께 나타낸다.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는 ‘금방금방’에 의한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생각보다 더 빠르다고 느끼게 되어 ‘금방’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

입시킴으로써 강조와 지속성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금방금방'이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⑤ 문득문득

'문득문득'은 형태적으로 '문득'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미적으로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자꾸 떠오르는 모양'이나 '어떤 행위가 갑자기 자꾸 이루어지는 모양'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2281). '문득'보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위의 빈도수가 높고 '자꾸'라는 지속과 반복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28) 가. **문득**/*문득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나. 그냥 하루에도 **여러 번 문득문득** 위에서 위액이 쭉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비타민을 안 먹었더니 그 증상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

(128가)에서 '한 번'이라는 표현은 '문득'과 공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득문득'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위가 갑자기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28가)와 같은 문장에는 쓰일 수 없다. (128나)에는 '여러 번'이라는 고빈도 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와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는 '문득문득'에 의한 동작에 대해 생각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느끼게 되어 '문득'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지속성과 반복성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문득문득'이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⑥ 거듭거듭

'거듭거듭'은 형태적으로 '거듭'의 중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의미적

으로 '어떤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국립국어원 1999: 233)라는 뜻으로 쓰인다. '거듭'보다 더 많이 되풀이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여준 것이다.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는 '거듭거듭'에 의한 동작에 대해 생각보다 빈도수가 더 높다고 느끼게 되어 '거듭'에 중첩을 통해 평가된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와 지속반복성을 나타내는 '거듭거듭'이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⑦ 길이길이

'길이길이'는 형태적으로 '길이'의 중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의미적으로 '아주 오래도록'(국립국어원 1999: 934)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길이'보다 더 오래도록 지난다는 강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화자는 '길이길이'에 의한 동작(예: 길이길이 간직하다 등)이나 상태(예: 길이길이 푸르리니 등)에 대해 생각보다 더 긴 세월이 된다고 느끼게 되어 '길이'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길이길이'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⑧ 깊이깊이

'깊이깊이'는 형태적으로 '깊이'의 중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의미적으로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즉,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아주 멀게', '생각이 아주 듬쑥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수준이 아주 높게. 또는 정도가 아주 심하게'라는 뜻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952). '깊이'보다 더 깊다는 강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화자는 '깊이깊이'에 의한 동작에 대해 생각보다 더 깊다고 느끼게 되어 '깊이'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깊이깊이'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⑨ 너무너무

'너무너무'는 형태적으로 '너무'의 중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아주 대단히, '너무'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372)이다. 앞서 사전의 표제항으로 해석되듯이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뜻으로 쓰이는 '너무'보다 정도성이 더 지나쳐 강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화자는 '너무너무'에 의한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생각보다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는 정도성이 더 높다고 느끼게 되어 '너무'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너무너무'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⑩ 두루두루

'두루두루'는 형태적으로 '두루'의 중첩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의미적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이것저것 모두'(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550)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두루'보다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화자는 '두루두루'에 의한 동작에 대해 생각보다 정도성이 더 높다고 느끼게 되어 '두루'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두루두루'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⑪ 따로따로

'따로따로'는 형태적으로 '따로'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한데 섞이거나 함께 있지 않고 여럿이 다 각각 떨어져서'(국립국어원 1999: 1790)라는 뜻으로 쓰인다. '따로'보다 복수성과 개체성의 배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29) 가. 그들은 **따로** 떠났지만 가는 길에 합류했다고 한다.
나. 그들은 **따로따로** 떠났지만 가는 길에 합류했다고 한다.

(129)에서 '따로'나 '따로따로'의 수식을 받아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129가)와 (129나)의 뜻은 '따로'나 '따로따로'의 쓰임에 따라 많이 다르다. (129가)에서 '따로'에 의한 '그들'은 하나로 뭉쳐서 그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해서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129나)에서 ‘따로따로’에 의한 ‘그들’은 다 각각 개체로 떨어져서 떠났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따로따로’는 ‘따로’보다 복수성의 주체나 대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주체나 대상 내부의 구성원을 각각 떨어져서 해당 행동으로 영향을 미쳐준다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화자는 ‘따로따로’에 의한 행동에 대해 생각보다 주체나 객체의 복수성과 배분된 개체성이 높다고 느끼게 되어 ‘따로’에 중첩을 통해 해당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복수성과 개체성의 분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따로따로’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⑫ 무지무지

‘무지무지’는 형태적으로 ‘무지’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몹시 놀랄 만큼 대단히’(국립국어원 1999: 2267)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보통보다 훨씬 정도에 지나치게’라는 뜻으로 쓰이는 ‘무지’보다 강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화자는 ‘무지무지’에 의한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 생각보다 정도성이 더 높다고 느끼게 되어 ‘무지’에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무지무지’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⑬ 미리미리

‘미리미리’는 형태적으로 ‘미리’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첩어다. 의미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게 먼저’(국립국어원 1999: 2346)라는 뜻으로 쓰인다. ‘미리’보다 강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화자는 ‘미리미리’에 의한 행동에 대해 생각보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더 충분한 여유를 가진다고 느끼게 되어 ‘미리’에 중첩을 통해 생각보다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미리미리’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⑭ 빨리빨리

‘빨리빨리’는 형태적으로 ‘빨리’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국립국어원 1999: 3044)라는 뜻으로 쓰인다. ‘빨리’보다 강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화자는 ‘빨리빨리’에 의한 행동에 대해 생각보다 더 빠르다고 느끼게 되어 ‘빨리’에 중첩을 통해 생각보다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빨리빨리’라는 주관 대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5) 형용사 어근 중첩

주관량 이론과 연계시켜 다루고자 할 형용사 첩어는 ‘둥글둥글하다’, ‘비뚤비뚤하다’, ‘희끗희끗하다’, ‘길쭉길쭉하다’, ‘넙적넙적하다’, ‘검디검다’, ‘깊디깊다’, ‘기나길다’, ‘크나크다’, ‘하고하다’ 등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형용사 중첩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둥글둥글하다

‘둥글둥글하다’는 형태적으로 ‘둥글하다’의 어근인 ‘둥글-’의 중첩에 접사 ‘-하-’가 결합된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럿이 다 또는 매우 둥글다’(국립국어원 1999: 1709)는 뜻으로 쓰이는데 ‘둥글하다’보다 작용된 주체나 대상의 수가 많고 둥근 정도가 더 높아서 복수와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30) 가. 강바닥은 주먹 크기의 자갈들이 깔려 있었고 자갈들은 대부분 오리 알처럼 **둥글둥글했다/*둥글했다**.

나. 눈에 묻힌 판문점은 장난감처럼 **둥글하게/*둥글둥글하게** 납작하고 옴폭해 보였다.

(130가)에서는 강바닥에 깔려 있는 자갈이 복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둥글했다’보다 ‘둥글둥글했다’는 자연스럽다. (130나)에서는 눈에 묻힌 판문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둥글둥글하게’보다 ‘둥글하게’가 자연스럽다.

인지적으로 볼 때 '둥글둥글하다'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작용된 주체나 대상이 많고 둥근 정도가 높다고 느끼게 되어 '둥글하다'에 '둥글'의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복수와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주관 대량의 표현인 '둥글둥글하다'를 만들게 된 것이다.

② 비뚤비뚤하다

'비뚤비뚤하다'는 형태적으로 '비뚤다'의 어간인 '비뚤-'의 중첩에 접사 '-하-'가 결합된 첩어다. 의미적으로 '물체가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다'(국립국어원 1999: 2972)라는 뜻으로 쓰인다.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린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비뚤다'보다 비뚠 분포 범위가 여러 곳이 있어서 넓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131) 가. 글씨들이 너무 **비뚤비뚤해서/*비뚤어서** 읽기가 어렵다

나. 그는 나와 얘기하는 동안 벽에 기대어 **비뚤게/*비뚤비뚤하게** 앉아 있었다.

(131가)에서는 글씨가 복수적으로 나와서 '비뚤어서'보다 '비뚤비뚤해서'는 자연스럽다. (131나)에서는 비뚤게 앉아 있는 사람이 단수적으로 나와서 '비뚤비뚤하게'보다 '비뚤게'는 자연스럽다.

인지적으로 볼 때 '비뚤비뚤하다'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작용된 분포 범위가 많다고 느끼게 되어 '비뚤다'에 '비뚤'의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복수와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주관 대량의 표현인 '비뚤비뚤하다'를 만들게 된 것이다.

③ 희끗희끗하다

'희끗희끗하다'는 형태적으로 '희끗하다'의 어근인 '희끗'의 중첩에 접사 '-하-'가 결합된 첩어다. 의미적으로 '군데군데 희다. 검든가 어두운 바탕

에 흰 빛깔이 여기 저기 섞여 있다'(국립국어원 1999: 7132/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2115)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한 군데에 얼핏 흰 빛깔이 있다'(국립국어원 1999: 7132)라는 뜻으로 쓰이는 '희끗하다'보다 흰 곳은 여러 군데가 있고 흰 빛의 정도성이 높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32) 강의실 유리창 너머로 머리가 **희끗희끗한/?희끗한** 노교수의 얼굴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라든지 '희끗한 머리'라든지 다 맞는 말인데 (132)에서 노교수의 머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 '희끗한'보다 '희끗희끗한'은 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든 사람의 머리가 군데군데 희다고 하기 때문이다.

인지적으로 '희끗희끗하다'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작용된 분포 범위가 많고 흰 빛의 정도성이 높다고 느끼게 되어 '희끗하다'에 '희끗'의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복수와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주관 대량의 표현인 '희끗희끗하다'를 만들게 된 것이다.

④ 길쭉길쭉하다

'길쭉길쭉하다'는 형태적으로 '길쭉하다'의 어근인 '길쭉'의 중첩에 접사 '-하-'가 결합된 첩어다. 의미적으로 '여럿이 다 조금 길다'(국립국어원 1999: 935)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조금 길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길쭉하다'보다 긴 것은 여럿이라서 좀 긴 것의 분포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33) 가. 가장자리에 **길쭉길쭉한/*길쭉한** 잡초가 무성하게 뻗어 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머리통이 **길쭉해서/*길쭉길쭉해서** 별명이

망치였지요.

(133가)에서 가장자리에 뻗어 있는 잡초가 한 두 포기가 아니라서 '길쭉한'보다 '길쭉길쭉한'은 자연스럽다. (133나)에서 머리통이 하나밖에 없어 '길쭉길쭉해서'보다 '길쭉해서'는 자연스럽다.

인지적으로 '길쭉길쭉하다'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작용된 주체나 대상이 여럿이라서 많다고 느끼게 되어 '길쭉하다'에 '길쭉'의 중첩을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복수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주관 대량의 표현인 '길쭉길쭉하다'를 만들게 된 것이다.

⑤ 검디검다

'검디검다'는 형태적으로 '검다'의 어간인 '검-'의 개재중첩에 어미 '-디-'의 매개로 결합된 첩어다. 의미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검다'(국립국어원 1999: 284)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검다'보다 검은 색의 색채도(色彩度)가 너무나 높고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검디검다'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색채도의 정도성이 너무나 높다고 느끼게 되어 '검다'의 개재 중첩에 극적 강조 역할을 담당하는 어미 '-디-'를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주관 대량의 표현인 '검디검다'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형용사 어간의 개재 중첩에 어미 '-디'가 매개로 결합된 주관량 표현들은 적지 않은데 송정근(2009: 125)에 의하면, 색채에 관련된 표현은 '희디희다', '누르디누르다', '붉디붉다', '푸르디푸르다' 등이 있다. 명암에 관련된 표현은 '짙디짙다', '옅디옅다' 등이 있으며 크기에 관련된 표현은 '길디길다', '높디높다', '크디크다' 등이, 촉감에 관련된 표현은 '거칠디거칠다', '둥글디둥글다' 등이, 미각에 관련된 표현은 '쓰디쓰다', '맵디맵다', '시디시다', '짜디짜다' 등이 있다.

⑥ 크나크다

'크나크다'는 형태적으로 '크다'의 어간인 '크-'의 개재중첩에 어미 '-나'

의 매개로 결합된 첩어다. 의미적으로 '사물이나 사건의 크기나 규모가 보통 정도를 훨씬 넘다'(국립국어원 1999: 6291)라는 뜻으로, 즉 '몹시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크다'보다 크기의 정도성가 너무나 높고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크나크다'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크기의 정도성이 너무나 높다고 느끼게 되어 '크다'의 개재 중첩에 강조 뜻으로 쓰이는 어미 '-나'를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주관 대량의 표현인 '크나크다'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생성된 주관량 표현들은 '기나길다'. '머나멀다', '하나하다' 등이 있다.

⑥ 하고하다

'하고하다'는 형태적으로 형용사 '하다(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의 어간인 '하-'가 어미 '-고'의 매개로 중첩하여 결합된 첩어다. 의미적으로 '많고 많다'(국립국어원 1999: 6702)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하다(많다)'보다 양이 너무나 많고 극적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으로 '하고하다'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는 생각보다 양이 너무나 많다고 느끼게 되어 '하다'의 개재 중첩에 강조 뜻으로 쓰이는 어미 '-고'를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강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주관 대량의 표현인 '하고하다'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생성된 주관량 표현으로는 '하고많다' 등이 있다.

5.1.2 지소사와 지대사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

사물·동물·인간 등을 가리키는 명사에 지소사(指小辭, diminutive)나 지대사(指大辭, augmentative)를 붙일 수 있는 언어들이 있다. 지소사나 지대사가 파생접사의 성격을 띠고 생산성이 높지 않아 매우 제한된 명사에만 붙을 수 있는 언어도 있지만, 이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은 언어도 있다. 이 때 지소사나 지대사가 붙지 않은 중립적인 명사를 쓰는 경우는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소사를

붙이는 경우는 화자가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그 크기가 작다고 느끼는 경우이고, 지대사를 붙이는 경우는 화자가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그 크기가 크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즉 지소사는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지대사는 주관 대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지대사는 접두사 '불-', '날-', '된-', '한-', '뒤-', '짓-', '왕-' 등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지대사에 의한 주관 대량을 살펴보자.

1) 불-

'불-'은 지대사로서 주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몹시 심한'의 뜻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2893).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가 중립적 명사 앞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 명사에 생각보다 '몹시 심하다'는 주관성을 넣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립적 명사는 주관 대량 표현이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불가물', '불상놈', '불깍쟁이' 등이다. 대표적으로 '불가물'을 분석해 보자. '불가물'은 '아주 심한 가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화자가 '불-'을 통해 중립적 명사 '가물'에다가 생각보다 몹시 심하다는 주관성을 개입시켜 만든 주관 대량의 표현이다.

2) 날-

'날-'은 지대사로서 주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지독한'의 뜻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1098). 인지적으로는 화자가 중립적 명사 앞에 '날-'을 붙임으로써 그 명사에 생각보다 너무나 '지독한'의 주관성을 넣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날'과 공기된 표현은 주관 대량의 표현이 된다. 예를 들면, '날강도', '날건달', '날도둑놈' 등이다. 대표적으로 '날강도'를 살펴보자. '날강도'는 화자가 중립적 명사 '강도'에다가 '날-'을 통해 생각보다 너무나 지독하다는 평가의 주관성을 넣어 만든 주관 대량의 표현이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보면 중립적 명사 '강도'보다 '날강도'는 '아주 악독한 강도'라는 뜻으로 주관 대량을 나타내고 있다.

3) 된-

‘된-’은 지대사로서 주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몹시 심한’의 뜻으로 쓰인다(한글학회 1992). 인지적으로는 화자가 중립적 명사 앞에 ‘된-’을 붙임으로써 그 명사에 생각보다 ‘몹시 심한’의 주관성을 넣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립적 명사는 ‘된-’에 의해 주관 대량의 표현이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된길’, ‘된더위’, ‘된맛’ 등이다. 다음으로 대표적으로 ‘된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된길’은 ‘험하거나 하여 힘이 몹시 드는 길’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화자가 중립적 명사 ‘길’ 앞에 지대사 ‘된-’을 붙임으로써 생각보다 몹시 심하다는 평가의 주관성을 넣어 만든 주관 대량의 표현이다.

4) 한-

‘한-’은 지대사로서 주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큰’의 뜻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6738). 인지적으로는 화자가 중립적 명사 앞에 ‘한-’을 붙여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된 ‘큰’의 주관성을 개입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한걱정’, ‘한길’, ‘한시름’ 등이다. 다음으로 대표적으로 ‘한걱정’을 분석해 보자. ‘한걱정’은 지대사 ‘한-’과 중립적 명사 ‘걱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큰 걱정’의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중립적 명사 ‘걱정’에다가 ‘한-’을 통해 생각보다 매우 크다고 평가된 주관성을 넣어 주관 대량 ‘한걱정’을 만들게 된 것이다.

5) 뒤-

‘뒤-’는 지대사로서 주로 일부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붙어 ‘몹시, 마구, 온통’의 뜻으로 쓰이는데(국립국어원 1999: 1712) 예를 들면, ‘뒤꼬다’, ‘뒤끓다’, ‘뒤변덕스럽다’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본고에서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서 이에 대해 많이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뒤-’는 드물게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마구’나 ‘몹시’의 뜻으로 쓰인다(한글학회 1992: 1157). 인지적으로는 화자는 중립적 명사 앞에 정도가 높다고 평가된 ‘뒤-’를 붙임으로써 중립적 명사에다가 ‘마구/몹시’의 주관성을 넣어 주관 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뒤설레’, ‘뒤범벅’ 등이다. 다음으로 대표적으

로 '뒤설레'를 살펴보기로 한다. '뒤설레'는 화자가 중립적 명사 '설레'에다가 지대사 '뒤-'를 통해 생각보다 몹시 심하다는 평가의 주관성을 넣어 만든 주관 대량의 표현이다.

6) 짓-

'짓-'은 지대사로서 주로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심한'의 뜻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5856). 인지적으로는 화자가 중립적 명사 앞에 '짓-'을 붙여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된 '심한'의 주관성을 넣어서 중립적 표현을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짓고생', '짓망신', '짓북새' 등이다. '짓고생'은 지대사 '짓-'과 중립적 명사 '고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심한 고생'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중립적 명사 '고생'에다가 '짓-'을 통해 생각보다 심하다는 평가의 주관성을 개입시켜 주관 대량의 표현 '짓고생'을 만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짓망신'과 '짓북새'도 각각 '아주 심한 망신', '아주 심한 북새'라는 뜻으로 주관 대량을 나타낸다.

7) 왕-

'왕-'은 지대사로서 주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매우 큰/ 매우 심한'의 뜻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4559). 인지적으로는 화자가 중립적 명사 앞에 지대사 '왕-'을 붙임으로써 생각보다 크거나 심하게 평가한 '매우 크다/심하다'의 주관성을 넣어 중립적 표현을 주관 대량의 표현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왕소금', '왕가뭄' 등이다. 다음으로 '왕소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왕소금'은 지대사 '왕'과 중립적 명사 '소금'의 구성으로, '알이 거칠고 굵은 소금'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중립적 명사 '소금'에다가 지대사 '왕'을 통해 생각보다 매우 크다고 평가된 주관성을 개입시켜 주관 대량의 표현 '왕소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지대사에 의한 주관 대량의 표현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소사에 의한 주관 대량의 표현을 다루기로 한다. 지소사의 의미가 단순히 크기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주관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일도 흔히 있다. 즉 크기가 작다는 뜻으로부터 친근함, 귀여움, 긍정적 평가 등

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쪽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의해 지소사가 지니는 주관성도 더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지소사에는 '-개비, -곳, -댕이, -따니/-내미, -맹이/-멩이, -사귀, -생이, -아귀, -아기, -아리, -아미, -아지, -앙이, -어지, -억지, -엉, -엉이, -오리, -짜기' 등의 축소접미사가 있다.

1) -개비

'-개비'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낱개의 것', '쪼개진 것', '보잘 것 없는 것', '잔 것', '줄기만 남는 것' 등의 뜻으로 쓰여 새 단어를 파생시킨다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볼 때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그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앞 명사의 의미에다가 '-개비'를 통해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성냥개비', '장작개비', '그릇개비', '나뭇개비', '잡장개비', '자장개비', '자장개비' 등이다.

① '낱개의 것'의 뜻:

성냥개비: 낱개의 성냥;

잡장개비: 잡살뱅이 나뭇가지의 낱개비

장작개비: 쪼갠 장작의 낱개

② '쪼개진 것'의 뜻:

나뭇개비: 가늘고 길게 쪼개진 나뭇조각(국립국어원 1999: 1060).

싸릿개비: 싸리의 한 줄기나 그것을 가늘게 쪼갠 한 도막(국립국어원 1999: 3914).

③ '보잘 것 없는 것'의 뜻:

그릇개비: 보잘 것 없는 그릇 또는 그릇붙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1999: 790).

④ **‘잔 것’의 뜻:**

자장개비: 마른 소나무 잔가지를 일컫는다. 처음에 불을 피면서 사용하면 쉽게 인화가 되면서 화력이 좋고 잘 탄다(네이버 지식iN 오픈국어사전).

⑤ **‘줄기만 남은 것’의 뜻:**

자잔개비: 소나무가 잎이 죽고 가는 줄기만 남은 것을 일컫는다. 겨울에 불을 지필 때에 사용한다(네이버 지식iN 오픈국어사전).

더 자세한 예를 들어 분석하자면 ‘성냥개비’는 중립적인 뜻으로 쓰이는 ‘성냥’에다가 화자가 ‘개비’를 덧붙여 이것으로 적고 개별적으로 평가된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낱개의 성냥’이라는 주관 소량 표현이 된다. ‘잡장(雜杖)개비’, ‘장작개비’도 마찬가지다. ‘나뭇개비’와 ‘싸릿개비’는 중립적 ‘나무’와 ‘싸리’에다가 화자가 ‘개비’를 통해 작고 적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모두 주관 소량 표현이 된다. ‘그릇개비’는 중립적인 ‘그릇’에다가 화자가 ‘개비’를 통해 매우 약하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보잘 것 없는 그릇’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이 된다. ‘자장개비’는 중립적 ‘잡장’에다가 화자가 ‘개비’를 통해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마른 소나무 잔가지’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이 된다.

2) -끗

‘-끗’은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제한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작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인지적으로 볼 때 ‘-끗’에 의해 파생된 지시 대상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작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앞 명사에다가 ‘-끗’을 통해 주관 소량이라는 평가나 판단을 주입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이끗’ 등이다. ‘이끗’에 대해 화자가 작다고 생각되어 중립적 ‘이익’에다가 ‘끗’을 통해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재물의 이익이 되는 실마리’(국립국어원 1999: 4905)라

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인 '이끗'이 생성된 것이다.

3) -댕이

'-댕이'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친근함'(국립국어원 1999: 1510)의 뜻을 더해 줌으로써 새 단어를 파생시킨다. 인지적으로 볼 때 앞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게 되어 '-댕이'를 덧붙여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다. 예를 들면, '옆댕이', '검댕이' 등이다. '옆'의 지시대상에 대해 생각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평가되어 화자가 '옆'에다가 '-댕이'를 덧붙여 주관 소량 표현인 '옆댕이'가 생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은 것'에 대해 생각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평가되어 화자가 '검-'에다가 '-댕이'를 덧붙여 '연기나 그을음 따위가 맺혀서 된 검은 빛깔의 물질'(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89)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인 '검댕이'를 만들게 된다.

4) -따니/-내미

'-따니/-내미'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주로 '딸'이라는 명사 뒤에 붙어 '딸따니/딸내미' 구성으로 '딸'을 귀엽게 이르는 것이다(국립국어원 1999: 1797).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는 '딸따니/딸내미'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귀엽고 작다고 생각되어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딸'에다가 '-따니/-내미'를 통해 귀엽고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딸따니/딸내미' 같은 주관 소량 표현이 생성된 것이다.

5) -(으)랑이/ 렁이

'-(으)랑이/렁이'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일부 명사 뒤에 '어떠한 작은 부분'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인지적으로 볼 때 '-(으)랑이/렁이'에 의한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작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앞 명사 뒤에 '-(으)랑이/렁이'를 통해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소량 표현이 생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겨드랑이' 등이다. '겨드랑

이'는 어원을 따져보면 '겯/곁(측)+ᄋ랑(접사)+이(접사)'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김민수 외 1997: 65).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는 '겨드랑이'에 대해 작다고 생각하게 되어 중립적 '곁'에다가 '-(으)랑이'를 통해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가슴의 양편 옆'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인 '겨드랑이'가 된다.

6) -맹이/-멩이

'-맹이/-멩이'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일부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크지 않은 단단한 물체'의 뜻으로 쓰여 새 단어를 파생시킨다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볼 때 앞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생각보다 작다고 느끼게 되어 '-맹이/-멩이'를 덧붙여 주관 소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알맹이', '돌멩이' 등이다. '알맹이'는 '물건의 껍데기나 껍질을 벗기고 남은 속 부분'(국립국어원 1999: 4075)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알'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작다고 느끼게 되어 '알' 뒤에 '맹이'를 덧붙여 주관 소량 표현인 '알맹이'가 생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돌멩이'는 '돌덩이보다 작고 자갈보다는 큰 돌'(국립국어원 1999: 1618)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돌'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작다고 느끼게 되어 '-멩이'를 덧붙여 주관 소량 표현인 '돌멩이'가 생성된 것이다.

7)-사귀

'-사귀'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제한된 개별적 명사 뒤에 붙어 '낱낱의 것, 개별적인 것'(이성하 2001: 140)이라는 뜻으로 쓰여 새 단어를 파생시킨다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볼 때 앞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적고 개별적이라고 느끼게 되어 '-사귀'를 덧붙여 주관 소량의 표현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잎사귀' 등이다. '잎'은 중립적 뜻으로 쓰이는데 '잎사귀'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잎'보다 '잎사귀'가 더 개별적이라고 평가되어 중립적인 '잎'에다가 '-사귀'를 통해 주관 소량이라는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낱낱의 잎'(국립

국어원 1999: 5081)이라는 뜻으로 쓰인 '잎사귀'의 주관 소량 표현이 생성된 것이다.

8) -생이

'-생이'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일부 동물의 신체 부위 표지 명사와 동물명 뒤에 붙어 사투리에서 '동물명의 지소사 표지'(이성하 2001: 141)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새끼'(구본관 1999: 136)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인지적으로 볼 때 앞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작거나 귀엽고 친근하다고 느끼게 되어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를 '-생이'를 통해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염생이', '망생이', '강생이' 등이다. '염생이'는 '염소'의 방언(경기, 경남, 전라, 충청)으로서 나타나는데(국립국어원 1999: 4394) '염[염소/염쇼/羖攊]+생이'(한글학회 1992: 5276)로 분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염생이'는 중립적 '염[염소/염쇼/羖攊]'에다가 '작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소사 표지'인 '생이'를 덧붙임으로써 생성된 주관 소량의 표현이다. '망생이'는 '말의 새끼'의 제주 방언으로 쓰이고(국립국어원 1999: 2055) '강생이'는 '개의 새끼'의 제주, 경상 방언으로 쓰인다(국립국어원 1999: 166). 이들은 '말'과 '개'에다가 주관 소량의 표현인 '-생이'가 붙음으로써 '동물 새끼'라는 뜻으로 나타나는 주관 소량 표현 '망생이'와 '강생이'가 생성된 것이다.

9) -아기/-어기

'-아기/-어기'는 축소접미사로 '-악/-억'에 '-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형태적으로 볼 때 주로 끝소리가 'ㄹ'인 일부 식물이나 사물 이름 뒤에 주로 붙어 '작은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 새 단어를 파생시킨다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볼 때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작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인 앞 명사 뒤에 '-아기/-어기'를 통해 주관 소량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소량 표현이 생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가스라기', '지스러기' 등이다. '가스라기'는 중립적인 식물 명사인 '가슬'

뒤에 '-아기'를 통해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덧붙여 '풀이나 나무의 가시 부스러기'(국립국어원 1999: 47, 52)라는 주관 소량 표현이 된다. '지스러기'는 중립적인 사물 명사인 '지실(地實)→지슬'에다가 '-어기'를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골라내거나 잘라 내고 남은 나머지'(국립국어원 1999: 5764)라는 뜻으로 쓰인 주관 소량 표현이 된다.

10) -아리

'-아리'는 축소접미사로서 어원을 따져보면 '알+이'(애칭표시, hypocoristic marker)로 분석할 수 있다(이성하 2001: 136). 형태적으로 볼 때 주로 제한된 일부 동물 명사나 식물 명사 뒤에 쓰여 각 '작음'(이성하 2001: 137), '새끼'(구본관 1999: 32)나 '개별화'(이성하 2001: 140)이라는 뜻으로 새 단어를 파생시키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볼 때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작다고 평가되어 중립적 앞 명사 뒤에 '-아리'를 덧붙임으로써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병아리', '이파리' 등이다. '병아리'는 중립적인 뜻으로 쓰인 '비육(爲鷄雛≪훈민정음 해례≫)→병'(구본관 1999: 127; 김무림 2012: 426)에다가 화자가 '-아리'를 통해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닭의 새끼'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이 된다. '이파리'는 중립적인 뜻으로 쓰이는 '잎'에다가 화자가 '-아리'를 통해 적고 개별적으로 평가된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나무나 풀의 살아 있는 낱 잎'(국립국어원 1999: 4969)이라는 뜻의 주관 소량 표현이 된다.

11) -아미

'-아미'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주로 일부 동물 명사 뒤에 쓰여 '작음'이라는 뜻으로 새 단어를 파생시킨 것이다. 인지적으로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귀엽고 작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앞 명사 뒤에 '-아미'를 덧붙여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귀뚜라미' 등이다. '귀뚜라미'의 어원을 따져보면, '귓돌[의성어]+와미/아미[접사]'(김민수 외 1997: 134)로 분석할 수 있고 '귓돌와미(두해

20:47)/귓돌아미(두해 7-36)> 귀뚜라미'(김민수 외 1997: 134)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즉, '귀뚜라미'는 화자가 중립적인 '귀뚜리'에다가 '-아미'를 붙여 작고 귀엽게 평가된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킴으로써 주관 소량의 표현이 된다.

12) -아지

'-아지'는 축소접미사로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주로 '동물의 새끼'(구본관 1999: 130; 이성하 2001: 137), '작은 것'(김철남 1992: 31), '낮은 것'(김기영 2004: 89) 같은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바가지 등이다. 이와 같은 예시들은 형태적으로 각각의 어기에 '-ㅇ'과 '-아지' 접미사가 결합된 것이며(구본관 1999: 131), 의미적으로는 해당 명사에다가 주관 소량 표현인 '-아지'가 붙어 '축소' 내지 '동물의 새끼'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아지'는 '개'라는 객관적 의미에다가 '새끼'라는 주관 소량 표현 '-아지'가 붙어 '개의 새끼'(국립국어원 1999: 168)라는 뜻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망아지'와 '송아지'는 '말'과 '소'라는 객관적 의미에다가 '새끼'라는 주관 소량 표현인 '-아지'가 붙어 '말의 새끼'(국립국어원 1999: 2056)와 '소의 새끼'(국립국어원 1999: 3597)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바가지'는 '박[瓠]'(김민수 외 1997: 395)이라는 객관적 의미에다가 '작은 것'이라는 주관 소량 표현 '-아지'가 붙어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앙이

'-앙이'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작은 동물이나 식물 등 사물 명사 뒤에 결합하여 그 명사를 확장해 주는 기능을 담당'(구본관 1999: 135)을 하고 주로 '작음' 같은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꼬랑이', '고양이' 등이다. 인지적으로 볼 때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작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앞 명사 뒤에 '-앙이'를 덧붙임으로써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자세한 예를 들어 분석하자면,

‘꼬랑이’는 화자가 중립적 ‘꼬리’에다가 ‘-앙이’를 통해 작고 귀엽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꼬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1999: 992)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이 생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양이’는 형태적으로 ‘고이/괴[猫]’+앙이[축소접사]’(김민수 외 1997: 92; 최학은 1956.9.30)로 분석할 수 있고 ‘괴앙이> 고양이’의 변화를 거쳐 형성된 것이다. 인지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중립적 ‘고이/괴[猫]’에다가 작다고 평가할 수 있는 축소접미사 ‘-앙이’를 덧붙임으로써 형성된 주관 소량의 표현이다.

14) -어지

‘-어지’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개별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어떻게 된 부분’(김기영 2004: 96)이라는 뜻으로 쓰여 새 단어를 파생시킨 것이다.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가 ‘어떻게 된 부분’에 대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게 되어 ‘-어지’를 통해 ‘양이 적다’는 뉘앙스를 덧붙였다. 예를 들면, 나머지 등이다. ‘나머지’는 어원을 따져 보면 ‘남-[餘]+어지’로 구성되어 있다(김민수 외 1997: 173). 화자가 중립적 ‘남-’에다가 ‘-어지’를 통해서 적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김민수 외 1997: 1056)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인 ‘나머지’가 생성된 것이다.

15) -악지

‘-악지’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일부 동물명 명사 뒤에 붙어 주로 사투리에서 잘 쓰인다. 그리고 축소접미사 ‘-악지’에 의해 파생된 단어들은 특정 지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인지적으로 볼 때 해당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화자가 생각보다 친근하고 가깝다는게 느끼게 되어 중립적 앞 동물명 명사에다가 ‘-악지’를 덧붙여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깨구락지, 미꾸락지, 꾸구락지 등이다. ‘깨구락지’는 중립적 ‘개구리’에다가 화자가 ‘-악지’를 통해 친근하고 가깝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개구리’보다 가깝

게 느끼게 된 주관 소량 표현이 생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꾸락지'와 '꾸구락지'도 각각 '미꾸리'와 '꾸구리'에다가 축소접미사 '-악지'를 통해 화자가 친근하고 가깝다는 주관적 판단을 넣어 이루어진 주관 소량 표현들이다.

16) -앙/-엉

'-앙/-엉'은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작음'(이성하 2001: 138)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인지적으로 볼 때 축소접미사 '-앙/-엉'에 의해 생성된 파생명사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작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앞 명사 뒤에 '-앙/-엉'을 통해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고랑(<골)(김민수 외 1997: 84), 구렁(<굴)(김민수 외 1997: 119), 구멍(<구무/굼ㄱ)(김민수 외 1997: 121) 등이다. '고랑'은 화자가 중립적 '골'에다가 '-앙'을 통해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두둑한 땅과 땅 사이에 길고 좁게 들어간 곳'(국립국어원 1999: 419)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이 된 것이다. '구렁'은 화자가 중립적 '굴'에다가 '-엉'을 통해 작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움쑥하게 팬 땅'(국립국어원 1999: 645)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탕'은 '밭'에다가, '구멍'은 '구무' 혹은 '굼ㄱ'에다가, '마당'은 '맏(場)'에다가 화자가 작다고 느끼게 된 주관적 판단을 '-앙/-엉'을 통해 주입 넣어 주관 소량 표현이 된 것이다.

17) -오리

'-오리'는 '올(條)+이(접미사)'(김민수 외 1997: 629) 구성에서 온 것인데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제한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개별적인 낱낱의 것'이라는 뜻으로 쓰여 새 단어를 파생시킨 것이다. 인지적으로 볼 때 '-오리'에 의해 생성된 파생어에 대해 화자가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게 되어 '-오리'를 통해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실오리 등이다. '실오리'는 화자

가 중립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실'에다가 '-오리'를 통해 적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 넣어 '한 가닥의 실'(국립국어원 1999: 3868)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이 된 것이다.

18) -짜기

'-짜기'는 축소접미사로서 형태적으로 볼 때 개별적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작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인지적으로 볼 때 '-짜기'에 의해 파생된 단어에 대해 화자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작다고 느끼게 되어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앞 명사 뒤에 '-짜기'를 덧붙여 주관 소량 표현을 만들게 된다. 예를 들면, '골짜기', '산골짜기' 등이다. '골짜기(<골)'는 형태적으로 어원을 따져보면 '골(谷)+작(접사)+이(접사)>골작이>골짜기' 구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김민수 외 1997: 99). 인지적으로 볼 때 화자가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골'에다가 화자가 '-짜기'를 통해 작다고 평가된다는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국립국어원 1999: 492)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관 소량 표현이 된 것이다.

5.2. 과장 표현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

본 절에서 과장 표현에 나타난 주관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과장(誇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의하면 과장이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내는 것이다(국립국어원 1999: 560). 『우리말 큰사전(1992)』에 의하면 과장이란 사실보다 지나치게 나타내는 것이다(어문각 1992: 381). 이와 같은 두 가지 정의는 거의 비슷하다.『문학비평용어사전(2006)』은 앞과 같이 정의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서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과장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먼저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과장(향대과장, 向大誇張)의 경우, 사물의 모습, 크기, 특징 정도 등을 실제보다 좋고 크고 강하고 무거운 방향으로 확대하여 표현한다. 감정, 사상, 사물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더욱 선명한 인상과 강렬한 감동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실제 사실보다 줄여서 말하는 경우(향소과장, 向小誇張), 사물이나 사실의 크기나 규모 특징, 정도 등을 축소하여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과장은 과장을 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늘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량, 수효, 거리, 액수, 시간, 강도, 정도 같은 양범주와 연계시켜 평가한다면 주관량이 생성된 것이다. 향대과장의 경우에는 해당 양이 생각보다 많거나, 크거나, 강하거나, 무겁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 것이며, 향소과장의 경우에는 해당 양이 생각보다 적거나, 작거나, 약하거나, 가볍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 것이다.

향대과장에 나타난 주관량의 생성원리는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5>

향대과장(向大誇張)에 나타난 주관 대량



<그림 45>에서 수직선의 오른쪽은 플러스 무한대이며,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왼쪽 첫 짧은 세로줄은 심리적 참조량이며, 둘째 세로줄은 수량사구이다. 그리고 수직선 위의 작은 화살표는 실제량이다. 향대과장에 나타난 주관 대량에 있어 실제량은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많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 것이며, 실제량은 향대과장에 나타난 수량사구의 양보다 적으므로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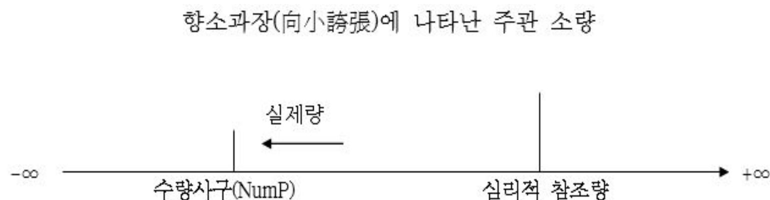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34)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야.

(134)에서는 너무나 졸림을 나타낸다. 너무나 졸릴 때 눈꺼풀이 무겁다고 느껴지게 되어 '천근만근'의 느낌이 들게 된다. 너무 졸려서 느끼게 된 눈꺼풀의 무게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무겁다고 느끼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화자가 졸릴 때 느끼게 된 눈꺼풀의 실제 무게는 수량사구인 '천근만근'이 나타내는 양보다 적어서 향대과장 표현은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향소과장에 나타난 주관량의 생성원리를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6>



<그림 46>에서 왼쪽 첫 세로줄은 수량사구이며, 둘째 짧은 세로줄은 심리적 참조량이다. 그리고 수직선 위의 작은 화살표는 실제량이다. 향소과장에 나타난 주관량은 실제량은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 것이다. 이때 실제량은 향소과장에 나타난 수량사구의 양보다 많으므로 초과 주관 소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35) 얼굴이 반쪽이 됐어.

(135)에서 얼굴이 평소에 비해 살이 많이 빠져 몹시 여윔을 나타낸다. 얼굴이 너무나 말라서 '반쪽'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 화자는 실제로 그 얼굴을 보고 심리적 참조량보다 살이 너무나 빠져서 얼굴이 작다고 평가하였으므로 주관 소량이 된다. 얼굴에 관한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반쪽'이 나타내는 양보다 많으므로 향소과장 표현은 초과 주관 소량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숫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향대과장에 나타난 주관 대량과 향소과장에 나타난 주관 소량의 양상을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과장 표현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수에 따라 과장 표현은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 2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 전후 대비 과장 표현, 수사 중첩 과장 표현, 수사가 없는 과장 표현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은 수사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다. 2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은 수사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다. 전후 대비 과장 표현은 수사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전후에 위치하여 서로 간에 대비가 되는 경우다. 수사 중첩 과장 표현은 숫자들이 중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다. 수사가 없는 과장 표현은 수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수사에 상당한 명사가 들어 있는 경우다.

5.2.1. 향대과장에 의한 주관 대량의 양상

1)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

(136) 가. 갈 길이 **천**리다.
나. 그것 나온 지 **백년**도 더 넘었다.
다. 할 일이 **삼만** 개다.
라. 군대 얘기는 **열흘** 밤낮으로 해도 모자란다.
마. 왜 전화 안 받아 **백**통도 넘게 했는데…
바. 그 일 다 하려면 **백**년 걸리겠다.
사. **만**병통치약

(136가)에서는 갈 길이 긺을 나타낸다. 실제로 갈 길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많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천리'의 양보다 적으므로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136나)에

서는 그것이 나온 지 오래되었음을 나타낸다. 그 제품이 나온 것은 화자에게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백년'이라는 과장적 표현을 썼다. 실제량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오래되었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백년'의 양보다 적으므로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차가지로 (136다, 라, 마, 바, 사)에서의 과장표현도 미달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2) 2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

(137) 철없는 딸을 억지로 쫓아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갈기처럼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졌다.

(137)에서는 딸을 쫓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매우 속상함을 나타낸다. 실제로 부모님의 속상하신 정도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천 갈래 만 갈래'가 나타내는 양보다 적으므로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전후 대비 과장 표현

(138) **한 조각 잠시**의 시간도 **삼 년** 같다.

(138)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 긴 세월처럼 느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 과장 표현에 대비되는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한 조각 잠시'와 '삼 년'이다. 이 두 개의 숫자의 대비를 통해 '기다린 시간'이 길다는 것이 더 현저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실제로 느끼게 된 기다린 시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길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런 기다려진 느낌은 한 순간도 '삼 년'과 같다. 전후 대비를 통해서 시간의 지루한 느낌을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삼

년’의 양보다 적으므로 미달 주관 대량이라 할 수 있다.

4) 수사 중첩 과장 표현

(139) 우리는 뒤늦게나마 정부와 당무자들이 防諜對策의 위급성을 시인하고 실천에 옮기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을 **萬萬多幸**(만만다행)으로 여기는 바이다.

(139)에서는 간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다행스러움을 나타낸다. 방첩대책은 실천에 옮기는 움직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만만’이 나타내는 양보다 적으므로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5) 수사가 없지만 양에 상당한 표현이 들어 있는 과장 표현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40) 가. 배가 **남산**만하다
　　나. 키가 **장대**만하다

(140가)에서는 배가 너무나 큼을, (140나)에서는 키가 너무나 큼을 나타낸다. 실제로 나온 배와 키가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나 크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나온 배와 키가 ‘남산’과 ‘장대’에 못해서 미달 주관 대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5.2.2. 향소과장에 의한 주관 소량의 양상

1)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41) 저도 나이 들면서 눈물도 많아지고,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말이죠.

(141)에서는 살생(殺生)을 전혀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과장 표현에 들어간 숫자는 단지 '한'뿐이다. 살생하지 않은 실제량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한 마리'보다 많을 것이므로 초과 주관 소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2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42) 걸음마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디로 튈지 몰라 단 **일분일초**도 눈을 뗄 수 없고, 좀 더 크면 자기주장이 강해져 뭐든지 뜻대로 하려한다.

(142)에서는 틈이 너무나 짧음을 나타낸다. '일분일초'라는 과장 표현은 '쌍수'가 들어가 있다. 문맥에 따라 걸음마 때 장난 너무 심해서 항상 아이 옆에 잘 지켜야 된다. 실제로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너무나 적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에게 눈을 뗄 실제량은 수량사구인 '일분일초'가 나타내는 양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초과 주관 소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전후 대비(對比) 과장 표현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43) **천년**을 **하루**같이 솟아있는 저산아래 무심한 진달래는 해마다 피고지네.

(143)에서는 천년 이래 변함없음을 나타낸다. 이 과장 표현에 대비될 수 있는 ‘천년’과 ‘하루’가 함께 들어가 있다. 대비를 통해서 천년 이래 하나도 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솟아 있는 저산의 변화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천년 이래 실제로 변하는 양은 수량사구인 ‘하루’가 나타내는 양보다 많으므로 초과 주관 소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4) **수사가 없지만 양에 상당한 표현이 들어 있는 과장 표현.**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44) 가.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나. **거북이걸음**도 저런 걸음이 없지

(144)에서는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양에 상당한 명사가 들어가 있다. (144가)에서 양이 코처럼 너무나 적음을 나타낸다. 실제량은 화자의 생각보다 너무나 적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실제량은 양에 상당된 ‘코’보다 많으므로 초과 주관 소량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44나)에서 ‘거북이걸음’도 초과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 있다.

5.2.3. 과장적 사자성어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

사자성어 연구는 한자어 연구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부 사자성어는 수사와 다른 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예를 들어, 일승일패(一勝一敗)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수사 ‘일’은 ‘승’자 및 ‘패’자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나타난 수사 ‘일’자는 실제로 나온 이기고 진 횟수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자성어에 나타난 수사는 대부분 객관량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자성어에 함축된 내재적 뜻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허수뿐이다. 예를 들면, ‘팔방미인(八方美人)’에 나타난 ‘팔’자는 ‘여덟’의 뜻만으로 해

석하면 안 된다. '팔방미인'은 '어느 모로 보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팔'자는 '여덟'보다 '모든 방면, 모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더 적절하다. 따라서 사자성어에 나타난 수사들은 해석에 따라 주관적 판단의 경향이 큰데 특히 과장적 뉘앙스가 늘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사들은 순수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양, 범위, 정도 등의 크기를 뜻한 것이다. 말하자면 내포되어 있는 수사에 의한 과장적 사자성어는 주관량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된 과장적 사자성어 표현은 주관 대량이 되는 반면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된 과장적 사자성어 표현은 주관 소량이 된다.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전자는 향대과장으로서 과장적 표현에 의해 주관적 양이 확대된 것인데 예를 들면, 앞서 말한 '팔방미인'은 '팔'에 의한 과장적 표현을 통해 아름다운 정도가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의 표현이 된다. 후자는 향소과장으로서 과장적 표현에 의해 주관적 양이 축소된 것인데 예를 들면 '일'에 의한 '창해일속(滄海一粟)'은 '넓고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인데 과장적 표현으로 하찮고 작은 정도가 생각보다 너무나 낮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다음으로 주관 대량과 소량으로 나타난 과장적 사자성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5.2.3.1. 과장적 사자성어에 의한 주관 대량의 표현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 사자성어의 과장적 표현은 내포되어 있는 수사의 수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이 나뉜다. 첫째, 수사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적 사자성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구회지장(九回之腸)'은 '장이 뒤틀릴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움'이라는 뜻인데 괴롭과 고통스러운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둘째, 수사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2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적 사자성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삼령오신(三令五申)'은 '세 번 호령하고 다섯 번 거듭 일러준다는 뜻

으로, 옛 군대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자세히 명령함을 이르는 말'인데 명령을 되풀이하는 횟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셋째, 전후 수사간의 비교에 의한 사자성어인 경우는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십중팔구(十中八九)'는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열'과 '팔구' 간의 대비를 통해 차지하는 양의 정도나 확실한 정도가 생각보다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넷째, 수사가 중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수사 중첩 과장적 사자성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만만다행(萬萬多幸)'는 '-만'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아주 다행함'이라는 뜻인데 생각보다 운이 너무나 좋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1)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적 사자성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는 형식적으로 수사 하나만 들어가 있고 의미적으로는 해당 수사보다 더 많다고 평가된 과장적 의미가 나타나 주관 대량으로 표현된다. 들어가 있는 수사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팔: 팔방미인(八方美人), 팔면영롱(八面玲瓏)

구: 구곡간장(九曲肝腸), 구회지장(九回之腸),

십: 십보방초(十步芳草), 십지불동(十指不動), 십년한창(十年寒窓), 십년창하(十年窓下), 십벌지목(十伐之木)

백: 백가쟁명(百家爭鳴), 백고불마(百古不磨), 백사불성(百事不成), 백사여의(百事如意), 백세지사(百世之師), 백년해로(百年偕老), 백배치사(百拜致謝), 백배치은(百拜致恩), 백전불패(百戰不敗), 백절불굴(百折不屈), 백태구비(百態具備), 백폐구흥(百弊俱興), 백계무책(百計無策), 백단교집(百端交集), 백무가관(百無可觀), 백무소성(百無所成), 백병통치(百病通治), 백복지원(百福之源)

천: 천리강산(千里江山), 천리타향(千里他鄕), 천리장성(千里長城), 천고

불역(千古不易), 천고불후(千古不朽), 천고소단(千古笑端), 천근역사(千斤力士)

만: 만사여생(萬死餘生), 만사무심(萬事無心), 만사여의(萬事如意), 만사태평(萬事太平), 만사형통(萬事亨通), 만사휴의(萬事休矣), 만세무강(萬世無疆), 만세불간(萬世不刊), 만세불망(萬世不忘), 만세불변(萬世不變), 만세불역(萬世不易), 만장공도(萬丈公道), 만장생광(萬丈生光), 만구성비(萬口成碑), 만구전파(萬口傳播), 만구칭선(萬口稱善), 만권시서(萬卷詩書), 만대불변(萬代不變), 만대불역(萬代不易), 만대영화(萬代榮華), 만분다행(萬分多幸), 만인동락(萬人同樂), 만고강산(萬古江山), 만고불멸(萬古不滅), 만고불변(萬古不變), 만고상청(萬古常靑), 만고절담(萬古絶談), 만고절색(萬古絶色), 만고절창(萬古絶唱), 만고충절(萬古忠節), 만고풍상(萬古風霜), 만구칭송(萬口稱頌), 만구칭찬(萬口稱讚), 만부부당(萬夫不當), 만년불패(萬年不敗), 만륙유경(萬戮猶輕), 만세동락(萬歲同樂), 만단설화(萬端說話), 만단수심(萬端愁心), 만단의혹(萬端疑惑), 만단정화(萬端情話), 만단정회(萬端情懷), 만물박사(萬物博士), 만병통치(萬病通治), 만우난회(萬牛難回), 만첩산중(萬疊山中), 만첩심산(萬疊深山), 만화방초(萬花芳草), 만경창파(萬頃蒼波), 만리장천(萬里長天), 만리전정(萬里前程), 만리지임(萬里之任), 만리창파(萬里滄波), 만리타국(萬里他國), 만불근리(萬不近理), 만불성설(萬不成說), 만불성양(萬不成樣)

억: 억장지성(億丈之城)

2) 2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적 사자성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 2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는 형식적으로 수사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중첩된 수사가 아니다. 보통 앞에서 나온 수사보다 뒤에서 나온 수사가 더 크다. 의미적으로는 두 개의 수사가 점차 커진 것을 통해 같은 내용을 지향하여 그 내용을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인지적으로는 두 개의 수사에 의한 양이나 정도가 생각보다 더 많거나 높다고 평가된 과장적 의미가 나타나 주관 대

량이 된다. 앞의 수사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 일파만파(一波萬波)

삼: 삼령오신(三令五申), 삼배구배(三拜九拜), 삼지사방(三池四方), 재삼재사(再三再四)

사: 설삼도사(說三道四), 삼분오열(三分五裂), 사통오달(四通五達), 사고팔고(四苦八苦), 사각팔방(四角八方), 사방팔방(四方八方), 사비팔산(四飛八散), 사도팔도(四道八道)

오: 오장육부(五臟六腑)

칠: 칠령팔락(七零八落), 칠락팔락(七落八落), 칠전팔기(七顚八起), 칠전팔도(七顚八倒)

구: 삼순구식(三旬九食), 구산팔해(九山八海), 십전구도(十顚九倒)

백: 백공천창(百孔千瘡), 백방천계(百方千計), 백태천광(百態千光), 백고천난(百苦千難), 백발백중(百發百中), 백술천려(百術千慮)

천: 천만~~: 천만다행(千萬多幸), 천만당부(千萬當付), 감사천만(感謝千萬), 기괴천만(奇怪千萬), 낙심천만(落心千萬), 천만부당(千萬不當), 천만의외(千萬意外), 천만장자(千萬長者)

천~만~: 천근만근(千斤萬斤), 천년만년(千年萬年), 천리만리(千里萬里), 천길만길(千-萬-), 천년만세(千年萬歲),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 천객만래(千客萬來), 천병만마(千兵萬馬), 천사만량(千思萬量), 천사만려(千思萬慮), 천산만수(千山萬水), 천암만학(千巖萬壑), 천자만태(千姿萬態), 천차만별(千差萬別), 천호만환(千呼萬喚), 천고만난(千苦萬難), 천서만단(千緖萬端), 천야만야(千耶萬耶), 천자만홍(千紫萬紅), 천추만세(千秋萬世), 천태만교(千態萬嬌), 천태만상(千態萬象), 천태만염(千態萬艶), 천파만파(千波萬波), 천군만마(千軍萬馬), 천리만리(千里萬里), 천변만화(千變萬化), 천신만고(千辛萬苦), 천언만어(千言萬語), 천난만고(千難萬苦), 천문만호(千門萬戶)

만: 만~천~: 만세천추(萬世千秋), 만학천봉(萬壑千峰), 만자천홍(萬紫千紅)

억: 억만지심(億萬之心), 억만지중(億萬之衆), 억만창생(億萬蒼生)

3)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는 형식적으로 수사 두 개나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수사 간의 비교를 통해 과장적으로 양이 많거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분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인데 보통 뒤의 수사가 앞의 수사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한 ‘십중팔구(十中八九)’가 있다. 둘째는 수사 ‘일’과 다른 수사(삼, 구, 십, 백, 천, 만 등)가 함께 나타난 것인데 보통 ‘일’과 다른 수사간의 큰 차이를 통해 어떤 내용을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일각삼추(一刻三秋)’은 ‘매우 짧은 시간이 삼 년 같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려지거나 지루한 느낌을 이르는 말’인데 짧은 ‘일각’과 긴 ‘삼추’ 간의 선명한 차이를 통해 ‘몹시 기다려지거나 지루한 느낌’을 더 강렬하게 나타낸 것이다.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를 앞에 나온 수사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분수 형식으로 나타난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

오: 오시사중(五矢四中), 오고삼상(五考三上),
십: 십양구목(十羊九牧), 십중팔구(十中八九), 십상팔구(十常八九),
십실구공(十室九空), 십생구사(十生九死)

① 수사 ‘일(一)’자와 다른 수사가 함께 나타난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

삼: 일일삼추(一日三秋), 일각삼추(一刻三秋),
일념삼천(一念三千), 일창삼탄(一唱三嘆)
구: 구사일생(九死一生), 일세구천(一歲九遷),
일월구천(一月九遷), 일일구천(一日九遷)
백: 백사일생(百死一生)
천: 천편일률(千篇一律), 천려일득(千慮一得),

만: 만구일담(萬口一談), 만무일실(萬無一失),
만사일생(萬死一生), 만불실일(萬不失一)

5) 수사 중첩 과장적 사자성어

'수사 중첩 과장적 사자성어'는 형식적으로 수사가 중첩으로 들어가 있고, 의미적으로는 중첩된 수사에 의해 그 사자성어가 나타내는 내용을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다. 인지적으로 중첩된 수사와 공기된 양이나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거나 높다고 느끼게 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만만부당(萬萬不當), 만만다행(萬萬多幸), 만만불가(萬萬不可)' 등이 그 예이다.

5.2.3.2. 과장적 사사성어에 의한 주관 소량의 표현

주관 소량으로 나타난 과장적 사자성어는 들어 있는 수사의 수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수사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적 사자성어'로 명명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삼일작심(三日作心)'은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인데 '삼'에 의한 '작심'은 생각보다 너무 약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둘째, '일'과 '반'이 들어가는데 "일A반B'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과장적 사자성어'이다. 예를 들면, '일자반급(一資半級)'은 '옛날에 보잘것없는 작은 벼슬을 이르던 말'인데 '일'과 '반'과 공기된 벼슬의 급이 생각보다 너무 낮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셋째, 앞뒤 수사간의 대비에 의한 사자성어인 경우로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라고 일컫기로 한다. 예를 들어, '구우일모(九牛一毛)'는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르는 말'인데 '구우(九牛)'와'일모(一毛)' 간의 비교를 통해 생각보다 너무나 적다고 평가된 '극히 적은 수'라는 뜻을 나타낸다. 유의할 점은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 과장적 사자성어보다 주관 소량으로 나타난 과장적 사자성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1)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적 사자성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난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적 사자성어는 형식적으로 수사 하나만 들어가 있고 의미적으로는 해당 수사와 공기된 양이나 정도가 생각보다 너무나 적거나 낮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들어가 있는 수사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일: 일면지분(一面之分), 일개서생(一介書生), 일개지사(一介之士),
　　일간두옥(一間斗屋), 미달일간(未達一間), 창해일속(滄海一粟),
삼: 삼일천하(三日天下), 삼일작심(三日作心)
백: 백일천하(百日天下)

2) '일A반B'의 구성으로 나타난 과장적 사자성어

'일A반B'의 구성으로 나타난 과장적 사자성어에서 보통 '일'과 '반'은 같은 내용을 지향하고 'A'와 'B'는 같은 내용을 뜻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일계반급(一階半級)'에서 '계(階)'와 '급(級)'은 모두 '벼슬의 등급'을 뜻하고 '일'과 '반'은 '벼슬의 등급'에 지향한다. '일'과 '반'과 공기된 '일계반급(一階半級)'은 생각보다 '벼슬의 등급'이 너무나 낮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다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일지반해(一知半解), 일자반급(一資半級), 일계반급(一階半級),
일지반전(一紙半錢), 일언반구(一言半句)

3)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난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는 형식적으로 수사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앞 수사가 큰 것이고 뒤 수사가 작은 것이다. 늘 분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뒤 수사가 앞 수사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의미적으로는 이와 같은 수사 간의 비교를 통해 과장적으로 양이 적거나 정도가 낮다고 평가된 주관 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후 대비 과장적 사자성어에 나타난 앞의 수사별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 구우일모(九牛一毛)
백: 백무일실(百無一失)
천: 천재일우(千載一遇), 천무일실(千無一失),

5.3. 주관량의 음운적 표현

주관량은 한국어 음운론에 반영되어 운소에 의해 실현된 것과 음운 교체에 의해 실현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운소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은 화자가 강조를 위한 의미초점을 억양, 강세, 음장 등 운소와 주관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정도•성상•등급의 양범주에다가 운소를 덧붙여 심리적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많거나 적다고 평가된 주관량을 표현한 것이다. 음운 교체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은 화자가 음운 교체에 의해 이루어진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에다가 모음이나 자음 교체를 통해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추가함으로써 참조량이 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많거나 적다고 평가된 주관량을 표현한 것이다. 음운론에 반영되어 있는 주관량은 주로 정도· 성상의 양범주에 심리적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많거나 적다는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추가시킴으로써 생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운소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과 음운 교체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을 각각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5.3.1. 운소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

운소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은 주로 화자가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발화할 양범주에 억양, 강세, 음장 등 운소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많다거나 적다는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내려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주관적 평가나 판단은 심리상 내포되어 있는 참조량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리적 참조량과 비교하고 나서 해당 양범주는 의미초점이 된다. 화자는

의미초점이 놓이는 성분의 음절에 프로미넌스를 덧붙임으로써 억양이나 강세나 음장에 일정한 변동이 발생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운소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이 생성된 것이다.

5.3.1.1. 억양

억양(intonation)은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 따라 잉여적으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화용적·의미적 맥락을 타고 화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억양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경중이 억양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김현, 2003: 208). 따라서 억양은 단순히 음운적 차원과 통사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발화적 차원에서 화자의 평가와 판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관량이 반영되는 억양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다.

첫째, 화자는 정도·성상의 양범주로 구성된 성분에다가 높은 억양을 놓음으로써 주관성을 넣어 해당 성분이 주관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45) 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여기서 '강하게'는 다른 음절보다 높은 억양으로 발화되는 것이다. 주관량 관점으로 보면 화자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강하다'의 기본적 의미에 대한 심리적 이해가 참조량이 된다. 즉, 참조량은 '강하다'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원형 의미인 '수준이나 정도가 높다'라는 객관량이다. 그런데 화자가 '불었던 강한 바람'에 대해 참조량보다 더 높은 수준이나 정도로 느끼게 되어 '강하게'에다가 주관성을 주입시켜 높은 억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말하자면 높은 억양을 얹은 '강하게'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정도나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되는

것이다.

이런 주관량은 보통 긍정적 단어에다가 높은 억양을 추가하는 경우와 부정적 단어에다가 높은 억양을 추가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전자는 긍정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보다 정도, 양상, 등급 같은 양이 주관적으로 더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긍정적 단어의 원형적 의미를 'X'로 친다면 주관 대량은 'X보다도 더 낫다'라는 주관적 뜻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부정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보다 정도, 양상, 등급 같은 양이 주관적으로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정적 단어의 원형적 의미를 'X'로 친다면 주관 소량은 'X보다도 못하다'라는 주관적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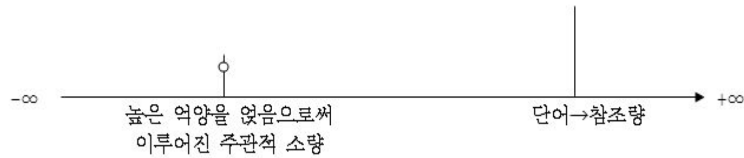
<그림 47>

긍정적 단어에 높은 억양을 얹음으로써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경우



<그림 47>에서 아래 가장 긴 화살표는 성상, 정도, 등급을 나타내는 양의 수직선인데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무한대이며, 오른쪽 방향은 무한대이다. 왼쪽 첫째 짧은 세로줄은 원래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높은 억양이 얹히고 나서 원래의 단어가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는 뜻이다. 오른쪽 긴 세로줄에 표시된 동그라미는 높은 억양을 뜻하는 것이다. 오른쪽 긴 세로줄은 화자가 긍정적 단어에다가 높은 억양을 얹음으로써 해당 단어에 주관성을 넣어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된 대상의 양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예문(145)에서 나온 '강하게'는 이에 부합하다.

<그림 48>



<그림 48>에서 수직선의 오른쪽 긴 세로줄은 원래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높은 억양이 얹히고 나서 원래 단어가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는 뜻이다. 수직선의 왼쪽 짧은 세로줄에 표시된 동그라미는 높은 억양을 뜻하는 것이다. 수직선의 왼쪽 짧은 세로줄은 화자가 부정적 단어에다가 높은 억양을 얹음으로써 해당 단어에 주관성을 넣어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조량과 비교를 통해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된 정도, 양상, 등급 등의 양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146) 이것을 **작은** 어깨와 **약한** 몸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146)에서 나온 '작다'와 '약하다'는 형용사로서 각각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와 '힘의 정도가 작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작다'와 '약하다'에다가 높은 억양을 추가함으로써 주관성을 넣어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다'와 '약하다'는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화자가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높은 억양을 얹은 '작다'와 '약하다'는 정도, 양상 등이 양적으로 생각보다 더 못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둘째, 화맥이나 문맥과 같은 담화맥락에서 억양에 의해 주관량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47) 가. **5만원**? 그렇게 비싸요? (채옥자, 2013b: 95)
나. **5만원**? 왜 이렇게 싸요?

(147가)에서 ‘그렇게 비싸요’라는 화맥(話脈)을 타고 ‘5만원’에다 높은 억양을 놓으면 ‘많은 양’이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채옥자, 2013b: 95). 주관량 관점으로 보면 ‘5만원’이라는 양은 객관량인데 화자가 이 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참조량이 된다. 화자는 이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량인 ‘5만원’에다가 주관성을 넣어 높은 억양을 얹음으로써 ‘5만원’을 생각보다 많다는 평가의 주관 대량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반면에 (147나)에서 ‘왜 이렇게 싸요’라는 화맥을 타고 ‘5만원’에다 높은 억양을 놓으면 ‘적은 양’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주관량 관점으로 보면 ‘5만원’이라는 양은 객관량인데 화자가 이 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화자는 이것을 참조량으로 삼고 이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량인 ‘5만원’에다가 주관성을 넣어 높은 억양으로 표현하게 된다. 높은 억양을 얹은 ‘5만원’은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채옥자(2013b: 100-101)에 따르면, “‘이제’는 억양에 따라 (148가)와 같이 부사 ‘이제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삼십대’라는 수량이 ‘적은 연령대’라는 의미를 가지게 할 수도 있고 (148나)와 같이 명사 ‘이제’과 함께 ‘많은 연령대’라는 의미를 가지게 할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148다)와 같이 주관적 평가가 부여되지 않은 ‘바로 이때’, ‘지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148가)의 ‘삼십대’는 주관 소량이 되고 (13나)의 ‘삼십대’는 주관 대량이 되며 (148다)의 ‘삼십대’는 객관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8)

가. 이제 삼십대야
나. 이제 삼십대야
다. 이제 삼십대야

채옥자(2013b: 101)

다음으로 주관량이 반영되어 있는 강세와 음장에 대해 살펴보자.

5.3.1.2. 강세와 장음

이병근(1986:37)에서는 “강조를 위한 의미초점이 화자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 그 의미초점이 놓이는 성분의 첫음절에 자연히 프로미넌스(prominence)가 얹히는데, 이때에 단어차원에서 장음(長音)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미넌스와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주관량에 적용하여 다시 말하자면 의미초점이 된 양범주에 화자의 의지에 의한 강조를 넣으면 그 의미초점이 놓이는 양범주 성분의 첫음절에 자연히 프로미넌스가 얹히는데 음장이 길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미넌스가 의미초점의 표시가 된다. 순수히 표현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실현된 장음은 그에 따른 뉘앙스의 차이를 나타내는 듯하다”(이병근, 1986: 37). 따라서 화자에게서 주관적 강조를 받는 양범주 표현은 주관량이 되면서 장음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프로미넌스가 되면서 강세도 강해진다. 그리고 장음과 강세에 따른 뉘앙스의 차이도 나타내게 된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런 주관량 표현은 보통 성상, 정도, 등급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형, 형용사, 명사 등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주관량은 보통 긍정적 단어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추가하는 경우와 부정적 단어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추가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전자는 긍정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보다 정도, 양상, 등급 같은 양이 주관적으로 더 많다고 평가된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긍정적 단어의 원형적 의미를 ‘X’로 친다면 주관 대량은 ‘X보다도 더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부정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보다 정도, 양상, 등급 같은 양이 주관적으로 적어진다고 평가된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정적 단어의 원형적 의미를 ‘X’로 친다면 주관 소량은 ‘X보다도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9>



<그림 49>에서 수직선의 왼쪽 첫째 짧은 세로줄은 원래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그것에다 음장과 강세가 얹히고 나서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는 뜻이다. 오른쪽 긴 세로줄에 달아 있는 동그라미는 음장과 강세를 뜻한 것이다. 오른쪽 긴 세로줄은 화자는 긍정적 단어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해당 단어에 주관성을 넣어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된 정도 같은 양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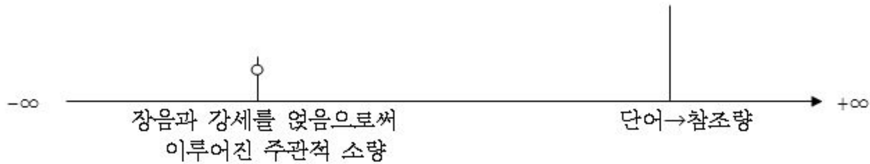
(149) 고 녀석 **<u>자알~</u>** 생겼다. 제발 저 코가 주저앉지 말아야 할 텐데 …(정도)

(149)에서 나온 ‘잘’은 부사로서 ‘아주 멋지게. 또는 아름답고 예쁘게’라는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잘’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성을 넣게 된다. 그리고 화자는 음장과 강세를 통해 ‘잘’이 내포되어 있는 원형적 뜻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참조량과 비교를 통해 음장과 강세를 얹은 ‘자알~’은 멋지거나 아름답고 예쁜 정도가 생각보다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적 단어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 경우를 그림으로 살펴보자.

<그림 50>

부정적 품사에 장음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경우



<그림 50>에서 수직선의 오른쪽 긴 세로줄은 원래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음장과 강세가 얹히고 나서 그 단어가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는 뜻이다. 수직선의 왼쪽 짧은 세로줄에 달려 있는 동그라미는 음장과 강세를 뜻하는 것이다. 수직선의 왼쪽 짧은 세로줄은 화자가 부정적 단어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해당 단어에 주관성을 넣어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된 정도, 양상, 등급 등의 양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50) 며칠 날밤을 새워 오늘에야 **겨~우** 작품을 완성했다.

(150)에서 나온 '겨우'는 부사로서 '어렵게 힘들여'라는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겨우'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추가함으로써 주관성을 넣어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겨우'는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화자는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음장과 강세를 얹은 부정적 '겨~우'는 정도, 양상 같은 양적으로 생각보다 더 못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성상, 정도, 등급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형, 형용사, 명사 등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은 주관량에 관련된 예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굵은 글씨로 표기한 단어는 주관량이 나타난 강세가 걸리는 것이며, 밑줄 친 부분(뒤에 물결표가 있는 것)은 길게 높은 내림 억양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다.

1) 성상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형의 경우

(151) 가. 물러났다구요. 물정부가 막을 내린 지 벌써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나 봐줬으면 **엄~청** 봐준 거예요. 이번에 다른 사람은 다 물러갔는데 여태 끄떡없이 자리를 …(정도)

나. 제가 평일에 저녁을 한 5시 반쯤 먹다보니 그 시간이 익숙해졌나 봐요. 달걀 먹어서 조금 배고픈 것은 아주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배고파서 저녁 먹었어요.

다. 한 농가 처마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양상)

라. 함께 모았습니다. 이렇게 될 걸 가지고 왜 두 달 동안이나 **질~질** 끌었습니까? 우리 근로자들은 하나를 들어주면 둘 셋을 요구해요. 회사도…(양상)

마. 한 게 고작일 텐데. 그렇지요? 세상 바뀌니까 용기 있는 사람 **많~이** 나왔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유분수지 은행이 수천억원씩 어떻게 … (정도)

바. 그 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정도)

(151가~바)에서 주관량 표현은 주로 성상 부사와 부사형에다 음장과 강세를 넣음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151가,나)에서는 주관량 표현은 순수한 성상부사에다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151가)의 '엄청'은 부사로서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친 상태'라는 긍정적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엄청'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성을 넣게 되고 '엄청'이 사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원형 의미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참조량보다 음장과 강세를 얹은 '엄~청'은 주관적으로 정도를 긍정적 방향으로 더 낫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났다. (151나)에서는 '조금'이 부사로서 '적은 정도나 분량'이라는 부정적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조금'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성을 넣게 된

다. 때문에 '조금'이 사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원형 의미는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참조량보다 음장과 강세를 얹은 '조~금'은 더 못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났다.

(151다,라)에서 주관량 표현은 주로 상징부사(의태어)에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151다)에서 '주렁주렁'은 사전에 올려 있는 표제어대로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이라는 긍정적 뜻으로 쓰이는데 화자가 그것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성을 넣게 된다. '주렁주렁'이 사전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원형 의미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실제로 생각보다 열매 따위가 훨씬 많이 달려 있는 모양을 보고 화자는 '주렁주렁'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참조량보다 더 낫다고 평가된 주관 대량을 나타냈다. (151라)에서 '질질'은 상징부사로서 '정한 날짜나 기한 따위를 자꾸 뒤로 미루는 모양'이라는 부정적 뜻으로 쓰인다. 끄는 시간이 두 달이나 된 상황을 보고 화자는 '질질'이 사전 표제어로 올려 있는 원형적 의미보다 더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화자는 '질질'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개인적 주관성을 넣었다. '질질'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원형 의미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보다 음장과 강세를 얹은 '질~질'은 부정적으로 심해져 주관적으로 더 못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151마)에서 주관량 표현은 주로 형용사 어간에 부사화 접미사가 붙는 성상부사에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많이'는 부사로서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라는 긍정적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나온 사람의 수를 보고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고 평가되어 '많이'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성을 넣는다. 이에 따라 '많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원형 의미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참조량보다 음장과 강세를 얹은 '많~이'는 긍정적으로 정도가 높아져 주관적으로 더 낫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151바)에서 주관량 표현은 주로 형용사 어간에 전성어미 '-게'가 붙는 부사형에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어렴풋하게'는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라는 부정적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생각보다 더 흐릿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고 '어렴풋하게' 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성을 넣었다. 때문에 '어렴풋하게' 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원형 의미가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보다 음장과 강세를 얹은 '어렴풋하게~'는 '흐릿하다'의 정도가 부정적으로 더 심해져 주관적으로 '어렴풋하게'보다 못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정도나 성상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

(152) 가. 처음에 극장에 앉아서 기다릴 때는 좀 지루할거 같기도 하고, 어딘가 허무할 거 같기도 해서, 괜히 보러 왔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간 중간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정말 **좋~은** 영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 협력업체중에는 간혹 **나~쁜** 판매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 초기불량의 교환문제로 시끄럽지, 물품을 사기당한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152)에서 주관량 표현은 형용사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다. (152가)에서 '좋다'는 형용사로서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라는 긍정적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영화를 보고 보통 수준의 좋은 영화가 아니라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자는 '좋은 영화'에서 '좋-'에다 강세와 음장을 가함으로써 주관성을 넣고 영화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평가로부터 주관적 평가로 바꿨다. '좋다'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원형 의미는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보다 음장과 강세를 얹은 '좋~다'는 긍정적 정도가 더 강해져 주관적으로 '좋다'보다 더 낫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152나)에서 '나쁘다'는 형용사로서 '좋지 아니하다'라는 부정적 뜻으로 쓰인다. 화자는 나쁜 판매자를 보고 나쁜 수준

이 보통이 아니고 너무나 나쁘다고 평가해서 '나쁘다'에다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성을 넣게 된다. 이에 따라 '좋지 아니하다'라는 사전적 원형 의미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과의 비교를 통해 음장과 강세를 얹은 '나~쁜'은 생각보다 부정적 정도가 더 심해져 주관적으로 '나쁜'보다 못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3) 정도의 등급을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153) 가. 산골마을 **부~자** 됐네. 원주 황둔송계마을·춘천 솔바우마을 등 강원도 두메산골 마을들이 '드림 빌리지'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보화 물결이 요동치고 있다.

나. 이렇게 남쪽 유럽 사람들은 모든 게 가정 중심, 아내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우리 날 남자들 가운데 아직도…
"이그~ 저런 못난이, 공처가, **바~보**!" (정도)

(153가,나)에서 주관량 표현은 주로 정도의 등급을 가진 명사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넣음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명사의 정도 등급이란 어떤 기준으로 하여 해당 명사들을 등급별로 서열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으로 하여 '빈자(貧者)<부자<왕부자<갑부(甲富)' ('<'부호는 왼쪽의 등급이 오른쪽보다 낮다는 뜻으로 쓰임. 아래와 같음) 라는 서열, 그리고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인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인지에 따라 '왕바보<바보<일반인<천재'라는 서열이 이루어진다. 이런 명사들은 해당 자기의 원형으로 쓰이게 되면 사전에 올려 있는 표제어의 뜻대로 '부자'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긍정적 뜻으로, '바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부정적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153가)를 보면, 산골마을이 인터넷 직거래 때문에 부자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화자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보통 수준의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왕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 화자는 '부자'에다

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성을 넣게 된다. 이에 따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원형 의미는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보다 음장과 강세를 얹은 '부~자'는 '재물이 많다'는 정도가 더 강해진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따라서 '부~자'는 주관적으로 생각보다 더 낫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153나)를 보면, 한국 남자들에게 가정 중심, 아내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화자에게는 가정 중심, 아내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보통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평가되어 화자는 '바보'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달아줌으로써 주관성을 넣는다. 이에 따라 '바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원형 의미는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보다 음장과 강세를 얹은 '바~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부정적으로 더 심해져 주관적으로 '바보'보다 더 못한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주관량은 주로 성상이나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형, 형용사, 그리고 명사에다가 음장과 강세를 얹음으로써 주관성을 넣게 된다. 긍정적 경우에는 음장과 강세를 얹은 해당 단어는 원형 의미보다 긍정적 정도가 강해져 주관적으로 더 낫다고 평가된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부정적 경우에는 음장과 강세를 얹은 해당 단어는 원형 의미보다 부정적 정도가 심해져 주관적으로 더 못하다고 평가된 주관 소량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주관량이 음운론에 반영되어 있는 억양, 음장과 강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화자는 해당 양범주에다가 억양, 음장과 강세를 달아줌으로써 객관적 평가를 주관적 평가로 바꾸며 이때 원래 가지고 있는 사전(辭典)적 원형(原形) 의미가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과 비교함으로써 억양, 음장과 강세를 얹은 양범주는 긍정적 단어가 될 경우 참조량보다 더 낫다고 주관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생성되는 것이며, 부정적 단어가 될 경우 참조량보다 더 못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생성되는 것이다. 화맥이나 문맥에 따

라 수량사구에 억양, 음장과 강세를 놓음으로써 주관량으로 나타나는 경우 일치 주관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표현적 장음화

표현적 장음화란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단어의 어느 한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현상'이다(최혜원, 2004). 이에 대해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1972)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표현상의 강조를 달리할 필요를 느꼈을 때 쓰는 긴소리'로 설명했고, 이병근(1986)에서는 뉘앙스의 변이를 나타내는 표현적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김창섭(1991, 1994)에서 '표현적 장음'이라고 언급했다. 김선철(2011)에서는 '화용적 표면장음'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화자가 감정이나 태도를 보다 적절히 표현하려는 의도로서 단어나 어절의 일부 음을 장음화시키는 현상이다(김선철 2011: 51)'. 본고에서는 논의의 평의상 '표현적 장음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표현적 장음화 현상은 '하다' 형용사의 어근이나 반복형 의성의태어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높직:하다', '시원:하다'(김창섭 1994); '조용:조용', '자르르:'(최혜원 2004) 등이다. 이러한 표현적 장음은 두 번째 음절 이하는 물론 첫 번째 음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말:하다', '방:송' 등이다.

장음을 어느 정도 길게 하느냐에 있어서, 최혜원(2004)에 따르면 "말:하다', '방:송' 등의 첫 음절이 보통 음절의 두 배 미만의 길이로 고정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 '넉넉:하다'의 '넉:'은 보통 음절의 2배, 3배, 4배 등의 발음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길게 하느냐는 정서적인 강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장음화의 기능에 있어서 김창섭(1994: 132)에 따르면 '그 어근과 관련된 어떤 양(量)에 대한 화자의 강조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적 장음화'와 주관량 간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자세히 말하자면 화자가 마음속에 상정한 참조량과 비교를 통해

실제량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평가할 때 표현적 장음화에 의해 주관 소량이 실현되고 실제량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평가할 때 표현적 장음화에 의해 주관 대량이 실현된다. 표현적 장음화에 의한 주관량이 주관 대량으로 실현되는지 아니면 주관 소량으로 실현되는지는 표현적 장음을 입을 수 있는 표현의 성격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긍정적 단어에 표현적 장음이 얹히면 늘 '그것보다 더 낫다'는 주관 대량으로 실현되는 반면, 부정적 단어에 표현적 장음이 입히면 늘 '그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주관 소량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54) 가. 일이 안 풀리니까 속이 **답답:하다**.
나. 피부가 **야들야들: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154가)에서 '답답하다'는 '애가 타고 갑갑하다'라는 뜻으로 부정적 표현이다. 화자는 '일이 안 풀린 것'을 보고 마음이 답답할 정도가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느끼면서 '답답하다'에다가 표현적 장음을 얹음으로써 생각보다 더 답답하다는 평가의 주관 소량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154나)에서 '야들야들하다'와 '자르르'는 모두 긍정적 표현이다. 화자는 '좋은 피부'를 보고 보통 '야들야들하고 자르르'의 수준이 아니라고 느끼면서 '야들야들하다'와 '자르르'에다가 더 좋고 윤기있다는 평가의 주관 대량을 나타낸다.

5.3.2. 음운 교체에 의한 주관량의 표현

그동안 내적 변화 파생에 대해 정인승(1938)에서 시작되어 이희승(1955), 이숭녕(1978), Fünding(1985), 채완(1987), 정경애(1997), 손춘섭(2003) 등에서 논의되었다. 본 항에서는 내적 변화 파생을 주관량과 연계시켜 연구하기로 하며,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내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형태적으로는 '음운 교체', 의미적으로는 공유하는 객관적 의미에다 정도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추가함으로써의 '주관량의 변화'라는 특징을 지니는 주관량 표현들이다.

한국어의 내적 변화란 접두사, 접미사에 의하지 않고 단지 어기 내의 모음이나 자음을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손춘섭, 2003:79).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55) 가. 빨갛다/뻘겋다, 노랗다/누렇다, 동글동글/둥글둥글, 날씬하다/늘씬하다.
나. 감감하다/깜깜하다/캄캄하다, 뚱뚱하다/퉁퉁하다, 가분하다/가뿐하다.

(155가)는 어기 내의 모음을 교체함으로써 만들어진 단어들이고, (155나)는 어기 내의 자음을 교체함으로써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내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이 단어들이 의미적으로는 '정도성의 크기 변화'라는 특징을 지닌다. 말하자면 정도성을 지닌 단어들은 음운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도성을 지니지 않은 단어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56) 가. 달리다→*덜리다/*딸리다
나. 가다→*가아다/*거어다/*까다
다. *매우 기자이다.→*매우 기이자이다.

이것은 손춘섭(2003:86)에 따르면, 내적 변화에 의해 생성되는 단어들은 형태적으로는 '음운 교체', 의미적으로는 '정도성의 크기 변화'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여기서 '정도성의 크기 변화'라는 것은 본고에서 주장한 한국어 개괄적 양범주에 들어가는데 더 자세히 분류한다면 정도의 양범주에 들어 있다. 그리고 '정도성의 크기 변화'에 대한 평정 기준이 반

드시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늘 화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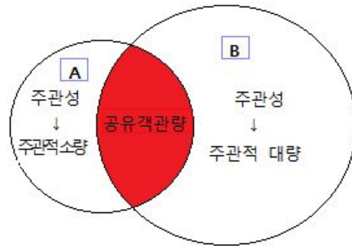
(157) 된장국이 고소하다/구수하다.

(157)에서 같은 된장국을 두고서도 먹는 사람의 미각에 따라 고소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고 구수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예문에서 나온 '고소하다'와 '구수하다'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는 객관적인데, 즉 맛있고 좋은 냄새가 풍긴다는 뜻이다. '고소하다'는 공유 의미보다 맛과 냄새가 좋기는 한데 정도성이 좀 덜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수하다'는 공유 의미보다 입맛이 당기도록 맛과 냄새가 더 좋다는 것이다. 된장국의 맛이 고소한지 구수한지는 화자의 주관적 미각 평가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내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단어들은 화자의 주관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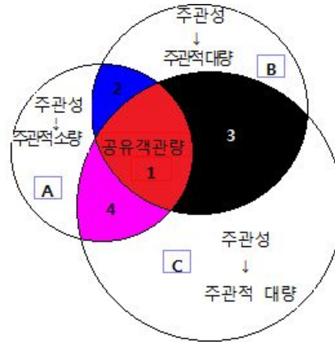
말하자면 내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단어들은 공유하는 객관적 양범주에다가 경우에 따라 주관성을 부여해 준 것이다. 주관량의 정의에 따르면, 주관성이나 주관화가 언어화된 양범주에 실현되면 주관적 양범주, 즉 주관량이 형성된다. 따라서 내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단어는 주관량 표현으로 보아야 된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내적 변화에 의해 형태적으로는 '음운 교체'라는 특징을 지니며, 의미적으로는 '정도성의 크기 변화'라기보다는 정도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추가함으로써의 '주관량의 변화'라는 특징을 지닌다. 내적 변화에 의한 주관량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운 교체에 의해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 이루어진다. 주관량 대립쌍으로 구성된 단어들 간에 공유하고 있는 의미가 객관적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가 공유 의미에 주관적 평가, 감정, 태도, 기분 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표현은 정도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주관 소량이 되며, 정도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주관 대량이 된다. 대립쌍에서 단어 간에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51-1>



<그림 51-2>



<그림 51-1>은 주관량 대립쌍에 음운교체에 의해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다. 예를 들면, 모음교체에 의해 이루어진 주관량 대립쌍인 '삼삼하다'와 '심심하다' 등이며, 자음 교체에 의해 이루어진 주관량 대립쌍인 '달곰하다'와 '달콤하다' 등이다. <그림 51-1>을 보면,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가 음운교체에 의해 이루어진 대립쌍인데 A와 B가 겹친 부분은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양(객관량)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정도성이 약하거나 크기가 작거나 양이 적은 경우에는 화자는 보통 양성모음이나 평음을 통해 주관성을 객관량에다가 넣어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된 주관 소량을 나타내게 된다. 반면에 정도성이 강하거나 크기가 크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화자는 보통 음성모음이나 경음 혹은 격음을 통해 주관성을 객관량에다가 넣어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된 주관 대량을 나타내게 된다.

<그림 51-2>은 주관량 대립쌍에 음운교체에 의해 세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예를 들면, 자음 교체에 의해 이루어진 주관량 대립쌍인 '빙빙', '삥삥', 그리고 '핑핑' 등이다. <그림 51-2>를 보면, 동그라미A, B, 그리고 C가 음운교체에 의해 이루어진 대립쌍이다.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겹친 부분(음영1)은 A, B, 그리고 C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양(객관량)이다.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량은 A와 B가 겹친 부분인데 즉, '1+2'의 음영부분이다. A와 C가 공

유하고 있는 객관량은 A와 C가 겹친 부분인데 즉, '1+4'의 음영부분이다. B와 C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량은 B와 C가 겹친 부분인데 즉, '1+3'의 음영부분이다. A, B, C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량을 바탕으로 하여 정도성이 약하거나 크기가 작거나 양이 적은 경우에는 화자는 보통 양성모음이나 평음을 통해 주관성을 객관량에다가 넣어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된 주관 소량을 나타내게 된다. A보다 정도성이 강하거나 크기가 크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화자는 보통 음성모음(B/C)이나 경음(B) 혹은 격음(C)을 통해 주관성을 객관량에다가 넣어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된 주관 대량을 나타내게 된다.

다음에서는 앞에서 다룬 원리에 대하여 자세한 예를 통하여 살펴기로 한다.

모음 교체에 의해 생성된 단어의 예를 들자면, '삼삼하다'와 '심심하다'는 'ㅏ'와 'ㅣ'의 모음 교체에 의해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 된다. '삼삼하-'는 양성모음형인 '숨숨ᄒᆞ-'에서 왔는데 '맛이 담백하다'라는 뜻으로(김무림 2012: 465)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고 '심심하-'는 음성모음형인 '슴슴ᄒᆞ-'에서 왔는데 '맛이 조금 싱겁다'라는 뜻으로(김민수 외 1997: 663) 부정적 평가를 나타낸다. 말하자면 이 두 단어 간에 공유하고 있는 의미는 맛이 짜지 않고 싱거운 편이라는 객관적인 뜻이다. 이 공유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삼삼하다'는 싱거워서 좋다는 주관적 뉘앙스가 있는데 '심심하다'는 싱거워서 좀 아쉬운 주관적 뉘앙스가 있다. 모음교체에서 양성모음을 지닌 단어들은 보통 '명랑하다', '밝다', '날카롭다', '작고 가볍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좋은 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에 음성모음을 지닌 단어들은 보통 '음침하다', '어둡고 둔하다', '크고 무겁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부정적인 평가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모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에서 양성모음을 지닌 단어는 정도성이 약하거나 크기가 작거나 양이 적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음성 모음을 지닌 단어는 정도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크기가 크거나 양이 많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주관량에 있어 주관적으로 느낀 정도성의 높음과 낮음, 크기의 큼과 작음, 양의 많음과 적음에 대한 이해하기가 쉽지만 주관량에 대한 주관적 부정과 긍정에 대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즉, 도상성(iconicity)의 '양의 원리(quantity principle)'에 따르면 부정은 긍정보다 복잡한 개념이며, 범언어적으로 부정은 긍정의 형태에 부정접사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임지룡, 1997: 378-9). 비록 모음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에서 부정접사 붙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부정'이라는 주관적 뉘앙스는 음운적으로 모음교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양성모음에 의한 긍정적 뉘앙스보다 음성모음에 의한 부정적 뉘앙스는 주관적 양의 차원에서 복잡하고 많다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모음교체에 의한 주관량의 대립쌍에서 양성모음에 의한 단어는 주관 소량이 되는 반면에 음성모음에 의한 단어는 주관 대량이 된다. 따라서 '삼삼하다'와 '심심하다'의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에서 '삼삼하다'는 주관 소량이 되고 '심심하다'는 주관 대량이 된다. '삼삼하다'와 '심심하다'는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자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단어의 예를 들자면, '감감하다/깜깜하다/캄캄하다'는 '평음/경음/유기음'의 교체에 의하여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 이루어진다. '잘 안 보이다'는 객관적인 의미가 일치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감감하다'는 '보이는 것이 희미하고 매우 멀다'라는 주관적 뉘앙스가 있는데 '멀어서 아득하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126)라는 뜻으로 좀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리고 '깜깜하다'는 '감감하다'을 참조량으로 삼아 '전혀 안 보이다'라는 주관적 뉘앙스가 있는데 '아주 까맣게 어둡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972)라는 뜻으로 세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캄캄하다'는 '깜깜하다'를 참조량으로 삼아 '전혀 안 보이다'라는 주관적 뉘앙스가 더 세게 나타나 '깜깜하다'의 더 센말로서 주관 대량이 된다.

말하자면 내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누는 데 모음 교체에 의한 것이고 자음 교체에 의한 것이다. 모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에서 그 '주관량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양성모음→음성모음’의 순서로 커진다. 양성모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공유 의미에다가 ‘긍정’, ‘밝음’, ‘작과 가벼움’ 같은 뉘앙스나 느낌을 덧붙여 음성모음에 의한 주관량보다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되며 반면에 음성모음에 의한 주관량은 공유 의미에다가 ‘부정’, ‘어두움’, ‘큼’ 같은 뉘앙스나 느낌을 덧붙여 양성모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보다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모음교체에 의한 주관량 대립쌍에서 양성모음에 의한 주관량과 음성모음에 의한 주관량 간에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그리고 자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에서 그 ‘주관량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평음→경음→유기음’의 순서로 커진다. 평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공유 의미에다가 약한 주관적 정도성을 덧붙여 경음과 격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보다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되며, 경음이나 유기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공유 의미에다가 높은 주관적 정도성을 덧붙여 평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보다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자음 교체에 의한 주관량의 대립쌍에서 평음, 경음, 그리고 유기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들 간에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음 교체와 자음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3.2.1. 모음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의 양상

모음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양상은 주로 아래와 같은 여덟 가지가 있는데, 즉 (1) ‘ㅏ’와 ‘ㅓ/ㅜ/ㅡ’의 교체, (2) ‘ㅐ’와 ‘ㅔ/ㅢ/ㅣ’의 교체, (3) ‘ㅑ’와 ‘ㅕ/ㅣ’의 교체, (4) ‘ㅗ’와 ‘ㅜ’의 교체, (5) ‘ㅘ’와 ‘ㅜ/ㅝ’의 교체, (6) ‘ㅙ’와 ‘ㅞ’의 교체, (7) ‘ㅗ’와 ‘ㅓ’의 교체, (8) ‘ㅛ’와 ‘ㅕ/ㅣ’의 교체 등이다.

1) ‘ㅏ’와 ‘ㅓ/ㅜ/ㅡ’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1) ‘ㅏ’와 ‘ㅓ’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빨갛다/뻘겋다, 발갛다/벌겋다, 까무스름하다/꺼무스름하다, 판판하다/펀펀하다, 납작하다/넙적하

다’ 등

① ‘빨갛다’/‘뻘겋다’

‘빨갛다’는 ‘피나 익은 고추와 같이 밝고 짙게 붉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3059)라는 뜻으로 쓰이고 ‘뻘겋다’는 ‘어둡고 짙게 붉다’라는 뜻으로 쓰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짙은 붉은 색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빨갛다’는 짙은 붉은 색에다가 좀 밝게 주관적으로 평가되면서 긍정적 뉘앙스를 보여 주는 반면에 ‘뻘겋다’는 짙은 붉은 색에다가 좀 어둡다고 평가되면서 부정적 뉘앙스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58) 가. 색이 **빨갛고/?뻘겋고** 예쁘다.
나. 그는 무안한 듯 얼굴이 **뻘겋게/?빨갛게** 달아올랐다

(158가)는 ‘예쁘다’는 긍정적인 평가의 문맥이라서 양성모음에 의한 ‘빨갛다’와 공기 할 수 있지만 음성모음에 의한 ‘뻘겋다’와 공기할 수 없다. 반면에 (158나)는 ‘무안한 듯’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의 문맥이라서 음성모음에 의한 ‘빨겋다’는 양성모음에 의한 ‘빨갛다’보다 어울리기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긍정보다 부정은 복잡한 개념이고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이 복잡한 개념이라서 주관량 관점에서 이 대립쌍에서 ‘빨갛다’는 주관 소량이 되는 반면에 ‘빨겋다’는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② ‘발갛다’/‘벌겋다’

‘발갛다’는 ‘밝고 엷게 붉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2486)라는 뜻으로 쓰이고 ‘벌겋다’는 ‘어둡고 엷게 붉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2634)’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대립쌍의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엷은 붉은 색인데 ‘발갛다’는 공유의미에다가 좀 밝고 긍정적 평가의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

소량이 되며 반면에 '벌겋다'는 공유의미에다가 좀 어둡고 부정적 평가의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59) 가. 수줍어서 얼굴이 **발갛게/?벌겋게** 달아오르니까 더 예쁘다.

나.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발갛게** 달아올랐는데 정말 볼만하더라.

손세모돌(2000:153)

(159가)에서 '발갛게'는 '벌겋게'보다 자연스럽고 (159나)에서는 '벌겋게'는 자연스럽다. 문맥에 따라 공기 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발갛다'와 '벌겋다'의 대립쌍에서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에다가 추가된 주관적 평가, 감정, 판단이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손세모돌(2000: 153)에 의하면 '발갛다'와 '벌겋다'는 명도나 채도에서 차이를 갖는다기보다 말하는 이의 평가 태도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말하는 이의 평가 태도'는 바로 주관량 범주에 들어가 있다. 화자는 '발갛다'와 '벌겋다'의 대립쌍에서 어느 하나를 참조량으로 삼아 다른 하나는 정도성과 주관성에 따라 주관 대량이나 소량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것에서 유의할 것이 하나가 있다. 위에서 '빨갛다/뻘겋다'의 대립쌍에서 '빨갛다'는 주관 소량이고 '뻘겋다'는 주관 대량, '발갛다/벌겋다'의 대립쌍에서 '발갛다'는 주관 소량이며, '벌겋다'는 주관 대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발갛다/빨갛다'의 대립쌍에서 '발갛다'와 '빨갛다'는 모두 주관 소량으로 여기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해당 대립쌍에서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에다 더해 준 화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에 따라 주관 대량인지 소량인지가 다르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 주관량이라고 본다. 내적 변화로 생성된 대립쌍에 따라 서로 공유하는 객관적 의미가 다르다. 주관 소량인가 아니면 대량인가 하는 것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에다가 더해 준 화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빨갛다/뻘겋다'의 대

립쌍에서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짙은 붉은 색인데 이를 바탕으로 '빨갛다'는 공유의미에다 밝고 긍정적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 소량으로 평가된다. '빨갛다'를 참조량으로 삼아 '뻘겋다'는 '빨갛다'보다 어둡고 부정적 뉘앙스를 보여주어 주관 대량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발갛다/벌겋다'의 대립쌍에서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옅은 붉은 색인데 '발갛다'는 공유의미에다 밝다고 평가되면서 긍정적 뉘앙스를 보여주어 주관 소량이 되는데 '벌겋다'는 '발갛다'를 참조량으로 삼아 어둡다고 평가되면서 부정적 뉘앙스를 보여주어 주관 대량이 된다. 자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발갛다/빨갛다'의 대립쌍에서 '빨갛다'는 '피나 익은 고추와 같이 밝고 짙게 붉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발갛다'는 '밝고 엷게 붉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둘이 공유하는 객관적 의미는 앞과 달리 '밝은 붉은 색'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빨갛다'는 그것에다 짙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되며, 반면에 '발갛다'는 그것에다 얇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는 것이다.

③ '까무스름하다'/'꺼무스름하다'

'까무스름하다'는 '조금 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962)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꺼무스름하다'는 '조금 껌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982)라는 뜻으로 쓰인다. 더 자세히 말하면, '까무스름하다'는 약간 '석탄의 빛깔같이 다소 밝고 짙은'(국립국어연구원 1999: 972 '깜다' 표제어 참고) 색인데 '꺼무스름하다'는 약간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고 짙은' 색이다. 이 두 단어 간에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는 조금 짙은 검은 색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까무스름하다'는 공유의미에다가 좀 밝은 색을 덧붙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되는데 반면에 '꺼무스름하다'는 공유의미에다 좀 어두운 색을 덧붙여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0) 가. 뚜껑을 잠시 열어보니 닭봉이 이렇게 **까무스름하게/?꺼무스**

름하게 맛있게 조려지고 있습니다.

나. 주로 키가 작고 **꺼무스름하고/?까무스름하고** 못 생긴 옷도 맨날 똑같은 거나 입고 다니고 더러운 공부는 바닥을 맴도는 그런 정도의 학생…

(160가)에서는 닭봉이 맛있게 조려진다는 긍정적 문맥에서 '까무스름하게'는 자연스러운데 남을 얕보는 부정적 문맥에서 '꺼무스름하고'는 더 어울린다. 그래서 '까무스름하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주관 소량 표현이고 '꺼무스름하다'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주관 대량 표현이다.

④ '판판하다'/'펀펀하다'

'판판하다'와 '펀펀하다'는 'ㅏ'와 'ㅓ'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인데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물건의 표면이 높낮이가 없이 평평하고 너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6516, 6545)라는 뜻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판판하다'는 그것에다 덜 평평함과 덜 넓은 공간적 의미를 덧붙여 '펀펀하다'보다 평평함의 정도성와 공간적 넓은 정도성이 약간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반면에 '펀펀하다'는 '판판하다'보다 평평함의 정도성과 공간적 넓은 정도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코퍼스를 검색해 보니 '판판하다'는 보통 '길, 돌, 유리판' 등과 수식 공기 관계를 보여주는 반면, '펀펀하다'는 주로 '땅, 지형, 운동장, 들판' 등과 수식 공기 관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1) 가. 대하(大河) 그 흔적은 협곡을 뚫고 지나기도 하고, 폭포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펀펀한/?판판한** 평야에 강폭이 넓은 물길을 내기도 하면서 때로는 빠르고 거칠게, 때로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때로는 흙탕물의 와류를 형성하며 폭류(暴流)하기도 한다.

나. 거울이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얼굴이나 모습을 비추어 보

는 데 쓰이는 도구. 옛날에는 **판판한/?편편한** 쇠붙이(은, 청동, 철 등)의 한 면을 갈아서 썼다.

(161가)를 보면, '평야'라는 명사는 공간적으로 사람에게 너무나 큰 느낌을 주므로 '판판하다'보다 공간적 정도성을 더 강하다고 평가한 '편편하다'가 더 적절하다. (161나)를 보면, 갈아서 거울로 쓴 '쇠붙이'라는 명사는 공간적 정도성이 좀 약해서 보이므로 '편편하다'보다 객관적 의미에다가 공간적 정도성이 약하다고 평가된 '판판하다'는 더 적절하다고 본다.

⑤ '납작하다'/'넙적하다'

'납작하다'와 '넙적하다'는 'ㅏ'와 'ㅓ'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납작하다'는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국립국어원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납작하다' 참고)라는 뜻으로 쓰이고 '넙적하다'는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국립국어원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넙적하다' 참고)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는 '평평하고 얇으면서 넓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납작하다'는 그것에다가 정도성이 좀 약한 표현인 '좀'을 덧붙여 판판하고 얇으면서도 좀 넓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반면에 '넙적하다'는 공유 의미에다 정도성이 강한 표현인 '꽤'의 의미를 덧붙여 편편하고 얇으면서도 꽤 넓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2) 가. 저녁 회식을 하게 되면 직접 '대포주'를 제조해서 돌린다. 술잔은 냉면그릇이나 **넙적한/?납작한** 사발이다. 술은 꼭 라거맥주다. 대포주는 원샷이 원칙이다.

나. 아주 **납작한/?넙적한** 칼집에 든 칼은 날렵한 두께에 길이가 7센티미터 정도 되는 스위스 칼이었다.

(162가)를 보면 '사발'이라는 명사는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위

는 넓고 아래는 좁으며 굽이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화자에게는 '사발'이라는 것은 '술잔'보다 좀 넓은 것이 아니라 꽤 넓은 용기라고 하므로 '납작하다'보다 주관적으로 꽤 넓다고 평가되는 '넙적하다'는 수식어로 쓰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반면에 (162나)를 보면, 7센티미터쯤 되는 칼이 든 '칼집'은 화자에게 '꽤 넓다'는 느낌보다 '좀 넓다'라는 느낌이 쉽게 판단되므로 여기서 '넙적하다'보다 '납작하다'는 수식어로 쓰이는 게 더 적절하다.

(2) **'ㅏ'와 'ㅜ'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파르스름하다/푸르스름하다, 바지런하다/부지런하다' 등

① **'파르스름하다'/'푸르스름하다'**

'파르스름하다'와 '푸르스름하다'는 'ㅏ'와 '우'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의 대립쌍이다.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명도 낮은 파란색(손세모돌 2000: 142-144)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파르스름하다'는 그것에다가 조금 밝고 선뜻한 채도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반면에 '푸르스름하다'는 공유의미에다가 '파르스름하다'보다 좀 어두운 뉘앙스를 덧붙여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3) 가. 이 까치는 어느 날 귀여운 알 일곱 개를 낳았습니다. **파르스름한/?푸르스름한** 빛깔을 띤 알이 동글동글 매우 귀엽게 생겼습니다.

나. 그러나 그 비단옷은 몇 번을 빨고 다듬었는지 몹시 낡아 보였다. **푸르스름한/?파르스름한** 입술하며 맵시 있게 올린 머리조차 딱하게 보인다. 국향이라는 퇴기다.

(163가)는 까치 알이 귀여움을 표현하는 긍정적 문맥을 담고 있다. '푸르

스름하다'보다 '파르스름하다'는 화자의 주관적 긍정 정서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파르스름하다'는 더 잘 어울린다. (163나)는 국향이라는 퇴기(退妓)의 차림이 별로 안 좋음을 나타낸다고 해서 부정적 문맥이다. '파르스름하다'보다 '푸르스름하다'는 명도 낮은 파란색이라는 객관적 의미에다가 어둡고 부정적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어서 더 잘 어울린다.

② '바지런하다'/'부지런하다'

'바지런하다'와 '부지런하다'는 'ㅏ'와 'ㅜ'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고 그들의 어원을 따져보면 모두 '브즈런ᄒᆞ다'에서 온 것이다(백문식 2014: 263).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하는 일이 재빠르고 꾸준하다'는 뜻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바지런하다'는 그것에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가 '놀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꾸준하다'(국립국어원 1999: 2430)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부지런하다'보다 '근면'의 정도성이 덜하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반면에 '부지런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남보다 먼저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있다'(국립국어원 1999: 2847)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바지런하다'보다 '근면'의 정도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4) 가. 학습능력이 뛰어나 공부를 잘하고 **부지런해서/?바지런해서**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말솜씨가 좋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발표력도 좋다.

나. 이제 베짱이처럼 살 때도 됐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바지런하다/?부지런하다.** 아직도 밭에 나가 밀감을 따고(자식들이 못 하게 말려도), 여전히 손빨래로 의복을 건사한다(할머니는 평생 동안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164가)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에 부지런함을 나타낸다. 화자는 다름 학

생과 비교하면서 그 학생한테 부지런하다고 평가해서 ‘바지런하다’보다 ‘부지런하다’가 더 적절하다. (164나)에서는 할머니가 바지런함을 나타낸다. 화자는 할머니의 근면한 생활 습관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할머니가 ‘놀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꾸준하다’는 주관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부지런하다’보다 ‘바지런하다’가 더 적절하다.

(3) ‘ㅏ’와 ‘ㅡ’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가득하다/그득하다, 살그머니/슬그머니, 날씬하다/늘씬하다’ 등

① ‘가득하다’/‘그득하다’

‘가득하다’와 ‘그득하다’는 ‘ㅏ’와 ‘ㅡ’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가득하다’는 사전 표제어로 보면 ‘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꽉 찬 상태에 있다’(국립국어원 1999: 18)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득하다’는 사전 표제어로 보면 ‘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아주** 꽉 찬 상태에 있다’(국립국어원 1999: 781)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꽉 찬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가득하다’는 그것에다가 ‘꽉 메움, 가득히’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양이 그 공간의 포화상태에 닿을 정도로 많다는 뜻으로 쓰인다. ‘가득하다’는 ‘그득하다’보다 양의 정도성이 덜하게 평가되어 주관소량이 된다. 그런데 ‘그득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넘칠 만큼 많거나 한도에 차 있다’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양이 그 공간의 포화상태에 넘칠 정도로 많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득하다’는 ‘가득하다’보다 양의 정도성이 넘칠 정도로 더 많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5) 가. 올초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이 "자민련은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가득하다/?그득하다**"고 한 발언과 최근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를 겨냥한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의

'기회주의자'발언도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나. 오 원짜리 동전을 찾느라 한참 동안 부산을 피운 끝에 대문을 나선다. 집집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들이 공터에 **그득하다/?가득하다**. 뽑기 장수의 낡은 비치파라솔 밑에도 좁쌀 손님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165가)에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함을 나타낸다. 화자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단체 전체에 찰 정도로 많다고 하므로 '넘칠 정도'로 많다고 평가된 '그득하다'보다 '꽉 차게' 평가된 '가득하다'가 더 적절하다. (165나)에서는 공터에 아이들로 매우 꽉 차 있음을 나타낸다. 화자는 공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쳐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득하다'보다 '넘칠 정도'로 많다고 평가된 '그득하다'는 더 적절하다.

② '살그머니'/'슬그머니'

'살그머니'와 '슬그머니'는 'ㅏ'와 'ㅡ'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대립쌍이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넌지시'(국립국어원 1999: 3218/3743)라는 뜻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살그머니'는 그것에다가 '행동이 가벼워 보이면서도 은근하고 천천히'라는 주관적 뉘앙스에 초점을 덧붙여 '슬그머니'보다 행동이 가볍게 평가되어 주관소량이 되고, '슬그머니'는 공유 의미에다가 '행동이 무거워 보이면서도 천천히 은밀하게'라는 주관적 뉘앙스에 초점을 덧붙여 '살그머니'보다 행동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③ '날씬하다'/'늘씬하다'

'날씬하다'와 '늘씬하다'는 'ㅏ'와 'ㅡ'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날씬하다'는 '몸이 가늘고 키가 좀 커서 맵시가 있다'(국립국어원 1999: 1103)라는 뜻으로 쓰이고 '늘씬하다'는 '몸이 가늘고 키가 커서 맵시가 있다'(국립국어원 1999: 1312)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몸이 가늘고 키가 커서 맵시가 있다'는 뜻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날씬하다'는 그것에다가 가는 몸매에 초점을 더 두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늘씬하다'보다 '키가 크지 않아도 그냥 몸매가 좋으면 된다'는 뜻으로 신장에 대해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늘씬하다'는 공유 의미보다 '몸매가 가늘면서도 키도 많이 크다'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날씬하다'보다 신장에 대해 정도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4) **'ㅏ'와 'ㅣ'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짭짤하다/찝찔하다, 자글자글/지글지글' 등

① **'짭짤하다'/'찝찔하다'**

'짭짤하다'와 '찝찔하다'는 'ㅏ'와 'ㅣ'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짭짤하다'는 '감칠맛이 있게 조금 짜다'(국립국어원 1999: 5857)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찝찔하다'는 '맛이 없이 조금 짜다'(국립국어원 1999: 5908)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좀 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짭짤하다'는 조금 짠 맛에다가 감칠맛이 있고 맛있다는 주관적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어서 '찝찔하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런데 '찝찔하다'는 조금 짠 맛이라는 뜻에다가 맛이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좀 짜서 아쉬운 주관적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어서 '짭짤하다'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6) 가. 참게야말로 게장을 담그면 그 상큼하고 **짭짤한/*찝찔한 맛을** 따를 것이 없다.≪유현종, 들불≫

나.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을 치고 악을 써 대다 보니 코에서 **찝찔하고/*짭짤하고** 뜨겁고 비린 액체가 흘러나왔다.≪한승원, 해일≫

(166가)는 참게로 담근 게장이 맛이 좋을 것이라는 말인데 긍정적 평가가 내포되어 있는 주관 소량 표현인 ‘짭짤하다’를 써야 된다. (166나)에서 ‘뜨겁고 비린 액체’는 ‘코피’를 가리키는데 부정적 평가가 내포되어 있는 주관 대량 표현인 ‘찝찔하다’와 어울리려야 자연스럽다.

② **‘자글자글’/‘지글지글’**

‘자글자글’과 ‘지글지글’은 부사로서 ‘ㅏ’와 ‘ㅣ’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뜻은 ‘적은 양의 액체나 기름 따위가 걸쭉하게 잦아들면서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국립국어원 1999: 5093, 5737)이라는 객관적인 의미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글자글’은 그것에다가 ‘국물이나 기름 따위가 있기는 하지만 적은 상태로 자꾸 끓는 소리나 그 모양’이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지글지글’보다 끓는 정도성에 있어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반면에 ‘지글지글’은 공유 의미에다가 ‘국물이 거의 없고 자꾸 세게’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자글자글’보다 정도성에 있어 세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7) 가. 굴비를 국물과 함께 **자글자글/?지글지글** 끓여서 먹거나, 노릇하게 구워내는 갈치구이는 지금 생각해도 침이 넘어갈 만큼 맛있었다.

나. 뜨거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자글자글** 익어가는 고기와 감자. 분주한 손놀림으로 빵 사이에 끼워 모로코식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167가)에서는 굴비를 국물과 함께 끓임을 나타낸다. 굴비를 끓일 때 국물이 적지만 없지는 않아 ‘지글지글’보다 끓는 정도성이 좀 덜하게 평가되었고 자꾸 끓는 모양이라는 주관적 뉘앙스가 나타나므로 화자에게는 ‘자글자글’은 문맥에 적절하다. (167나)는 고기와 감자가 익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철판 위에 국물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고기에서 빠져 나온 적은 기름만 있는 상태로 자꾸 세게 구워가므로 '자글자글'보다 구운 정도성이 세다고 평가되어 화자에게는 '지글지글'은 문맥에 적절하다.

2) 'ㅐ'와 'ㅔ/ㅢ/ㅣ'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1) 'ㅐ'와 'ㅔ'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애햄/에헴' 등

'애햄'/'에헴'

'애햄'과 '에헴'은 감탄사로서 'ㅐ'와 'ㅔ'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짐짓 점잔을 빼거나 인기척을 낼 때 내는 기침 소리'(국립국어원 1999: 4129, 4295)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애햄'은 그것에다가 '다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기침 소리를 일부러 내기는 하지만 소리가 별로 크지 않다'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에헴'보다 내는 기침 소리의 크기에 있어 덜하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반면에 '에헴'은 공유 의미에다가 '일부러 큰 기침 소리를 내다'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애햄'보다 내는 소리의 크기에 있어 세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8) 굳게 닫은 문 밖에 멀찍이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헴/?애햄** 소리를 꽤 오래도록 한 뒤에 "아, 그가 누구이신가?" 하고 묻는 말에 "염치없는 저올시다" 하고 대답하니…

(168)에서 큰 기침을 냄을 나타낸다. 기침을 한다는 객관적 의미에다가 큰 목소리를 덧붙여 생각보다 크게 평가되어 '애햄'보다 주관 대량으로 평가된 '에헴'은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

(2) 'ㅐ'와 'ㅢ'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해말쑥하다/희멀쑥하다' 등

'해말쑥하다'/'희멀쑥하다'

‘해말쑥하다’와 ‘희멀쑥하다’는 형용사로서 ‘ㅐ’와 ‘ㅢ’, 그리고 ‘ㅏ’와 ‘ㅓ’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해말쑥하다’는 ‘살빛이 희고 말쑥하다’(국립국어원 1999: 6799)라는 뜻으로 쓰이고 ‘희멀쑥하다’는 ‘살빛이 희고 멀쑥하다’(국립국어원 1999: 7134)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러고 보니 ‘해말쑥하다’와 ‘희멀쑥하다’의 구별은 ‘말쑥하다’와 ‘멀쑥하다’의 구별에 달려 있다. ‘말쑥하다’는 ‘지저분함이 없이 말끔하고 깨끗하다’(국립국어원 1999: 2043)라는 뜻으로 쓰이고 ‘멀쑥하다’는 ‘지저분함이 없이 훤하고 깨끗하다’(국립국어원 1999: 2111)라는 뜻으로 쓰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는 ‘살빛이 희고 지저분함이 없이 깨끗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해말쑥하다’는 그것에다가 좀 밝고 환하다거나 잘 생겼다는 뉘앙스를 덧붙이고 때로는 ‘희멀쑥하다’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반면에 ‘희말쑥하다’는 공유 의미에다 좀 흐릿하게 밝다는 뉘앙스를 덧붙이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9) 가. 계집애처럼 **희멀쑥하고/*해말쑥하고**, 성질은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탁 까놓고 말해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재수 없는 녀석.

나. ‘싱겁기는 황새 똥구멍이라’는 말은 **희멀쑥하고/*해말쑥하고** 싱거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169가, 나)는 부정적인 문맥이라서 ‘해말쑥하다’와 공기할 수 없고 ‘희멀쑥하다’와 어울리려야 자연스럽다.

(3) ‘ㅐ’와 ‘ㅣ’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매끈하다/미끈하다’ 등

‘매끈하다’/‘미끈하다’

‘매끈하다’와 ‘미끈하다’는 ‘ㅐ’와 ‘ㅣ’의 교체에 의해 이루진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에서 ‘매끈하다’와 ‘미끈하다’가 공유하고 있

는 의미는 '흠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윤기가 나도록 밋밋하다'(국립국어원 1999: 2069, 2339)라는 것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매끈하다'는 공유 의미에다 '매끄러울 정도로 흠이나 거침새가 없이 반반하다'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미끈하다'보다 부드럽고 매끄러울 정도성이 좀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미끈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미끄러울 정도로 흠이나 거침새가 없이 반들반들하다'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매끈하다'보다 부드럽고 미끄러울 정도성이 좀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3) 'ㅑ'와 'ㅕ/ㅣ'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1) 'ㅑ'와 'ㅕ'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야무지다/여무지다' 등

'야무지다'/'여무지다'

'야무지다'와 '여무지다'는 'ㅑ'와 'ㅕ'의 교체에 의해 이루어진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는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이 없이 단단하고 굳세다'(국립국어원 1999: 4143, 4311)라는 것이다. '야무지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꽤' 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여무지다'보다 단단하고 굳셀 정도성이 좀 덜하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반면에 '여무지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매우'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야무지다'보다 단단하고 굳셀 정도성이 좀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2) 'ㅑ'와 'ㅣ'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갸름하다/기름하다, 갸울다/기울다' 등

① '갸름하다'/'기름하다'

'갸름하다'와 '기름하다'는 'ㅑ'와 'ㅣ'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가름하다'는 '보기 좋을 정도로 조금 가늘고 긴 듯하다'(국립국어원 1999: 225)라는 뜻으로 쓰이고 '기름하다'는 '조금 긴 듯하다'(이희승 1978: 440)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긴 듯하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갸름하다'는 그것에

다가 '모양이나 형체가 보기 좋게 가늘고 긴 듯하다'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반면에 '기름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몸의 일부분이 보통 수준보다 조금 긴 듯하다'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70) 가. 윤상의 생김새 차림새 자체부터가 용호에겐 하나의 배반이며 쓰라림이었다. 말처럼 **기름한/*갸름한** 얼굴, 뾰족한 턱, 온기가 전혀 없는, 비웃음을 머금은 듯한 눈초리…

나. 미적 기준이 서구화되면서 작고 **갸름한/*기름한** 얼굴라인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170가)는 윤상이라는 사람의 얼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화자의 긍정적 뉘앙스를 지닌 '갸름하다'와 공기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기름하다'와 공기할 수 있다. 반면에 (170나)는 긍정적 문맥이라서 '얼굴라인'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주관 소량 표현인 '갸름하다'와 공기할 수 있다.

② '갸울다'/'기울다'

'갸울다'와 '기울다'는 동사로서 'ㅑ'와 'ㅜ'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비스듬하게 한쪽이 낮아지거나 비뚤어지다'(국립국어원 1999: 225, 905)라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갸울다'는 그것에다가 '조금 낮아지거나 비뚤어지다'(국립국어원 1999: 225)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기울다'보다 낮아지거나 비뚤어지는 정도성이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기울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수평이나 수직이 되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한쪽으로 비뚤어지다'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갸울다'보다 한쪽이 낮아지거나 비뚤어지는 정도성이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4) **'ㅗ'와 'ㅜ'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동글다/둥글다, 고리다/구리다' 등

① '동글다'/'둥글다'

'동글다'와 '둥글다'는 'ㅗ'와 'ㅜ'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동글다'는 '작은 것이 원이나 공과 모양이 같거나 비슷하다'(국립국어원 1999: 1633)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둥글다'는 '원이나 공과 모양이 같거나 비슷하다'(국립국어원 1999: 1709)는 뜻으로 쓰인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둘레나 표면의 전체 또는 일부가 모가 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임홍빈, 1993:209)이다. '동글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동글면서도 작은 것'이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겉으로 볼 때 작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둥글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둥글면서 좀 큰 것'이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동글다'보다 크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71) 가. 요건 핫초코 가루를 반쯤 부어, **동글게/?둥글게** 원을 그리며 저어 준 거에요.

나. 객석의 손님들까지 함께 **둥글게/?동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것으로 공연이 끝났다.

(171가, 나)에서 '원을 그리다'라는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171가)는 음료를 저어주면서 그리는 원이라서 화자에게 작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인 '동글게'가 자연스럽다. (171나)에서 사람들을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닌데 좀 크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인 '둥글게'가 잘 어울린다.

② '고리다'/'구리다'

'고리다'와 '구리다'는 형용사로서 'ㅗ'와 'ㅜ'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고리다'는 '썩은 풀이나 썩은 달걀 따위에서 나는 냄새와 같다. 또는 발가락 사이의 때 냄새와 같다'(국립국어원 1999: 424)는 뜻으로 쓰이고 '구리다'는 '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다'(국립국어원 1999: 648)는 뜻으로 쓰인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고약한 냄새'인데 '고리다'는 그것에다가 '썩은 냄새나 특유한 체취'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구리다'보다 냄새가 고약하지만 덜하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구리다'는 공유의미에다가 '똥냄새'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고리다'보다 더 독하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래서 '고리다'는 늘 땀 냄새, 발 냄새, 상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등과 어울리는데 '구리다'는 방귀, 똥 등과 어울린다.

5) 'ㅘ'와 'ㅜ/ㅝ'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1) 'ㅘ'와 'ㅜ'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화끈하다/후끈하다' 등

'화끈하다'/'후끈하다'

'화끈하다'와 '후끈하다'는 형용사로서 'ㅘ'와 'ㅜ'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몸이나 쇠 따위가 뜨거운 기운을 받아 갑자기 달아오르다'라는 것이다. '화끈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분명한 뜨거움이나 따가운 느낌이라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였다. 은유에 의해 확장된 의미는 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즉, (1) '남부끄러운 일로 얼굴 등이 달아오르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2069)(예: 그 때의 그 치욕을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하다), (2) '일을 아주 시원스럽게 하는 맛이 있다'(국립국어원 1999: 6973)(예: 그분의 일 마무리는 너무나 화끈하다), (3) '성격이 시원스럽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2069)(예: 누군가 그를 두고 화끈한 남자라고 했다), (4) '[주로 '화끈하게, 화끈한'의 꼴로 쓰이어] 매우 만족스럽고 시원스럽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2069)(예: 눈이 확 띄는 화끈한 일이 어디 없을까?). 이러고 보니 '화끈하다'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화끈하

다'는 늘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후끈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따끈한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였다. 그런데 '후끈하다'는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내부의 후끈한 열기가 한 순간 불쾌하게 안겨 왔다' 또는 '후끈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은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 이로 인해 공연장은 그 열기가 무더위와 함께 가중되어 사람들의 불쾌지수는 상당히 높았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2092). 따라서 '후끈하다'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화끈하다'와 '후끈하다'로 구성된 대립쌍에서 그들이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6) 'ㅘ'와 'ㅝ'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환하다/훤하다' 등

'환하다'/'훤하다'

'환하다'와 '훤하다'는 형용사로서 'ㅘ'와 'ㅝ'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밝다'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바탕으로 하여 '환하다'는 그것에다가 '빛이 비치어 맑고 밝다'(국립국어원 1999: 7001)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였다. 명도가 높아서 밝은 색이라서 가볍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그런데 '훤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조금 흐릿하게 밝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2099)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였다. 명도가 좀 낮아서 어두운 색이라서 무겁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6) 'ㅙ'와 'ㅞ'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횅하다/휑하다' 등

'횅하다'/'휑하다'

'횅하다'와 '휑하다'는 형용사로서 'ㅙ'와 'ㅞ'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기본 의미는 다음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즉, 첫째, '무슨 일에나 막힘이 없이 다 잘 알아 환하다'라는 것이고, 둘째, '막힌 데 없이 시원스럽게 뚫려 있다'라는 것이며, 셋째, '속이 비고 넓기만 하여 허전하다'라는 것이고, 넷째는 '넓은 곳에 물건이 조금밖에 없어 잘 어울리지 아니하고 빈 것 같다'

라는 것이다(국립국어원 1999: 7039, 7091). 그런데 공유의미에다가 '휑하다'는 '횅하다'보다 더 강한 정도성이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양적으로 보면 더 많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된다. '휑하다'를 참조량으로 삼아 '횅하다'는 주관 소량이 된다.

7) 'ㅕ/ㅣ'와 'ㅛ'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여기/요기, 이것/요것 등

(1) 'ㅕ'와 'ㅛ'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여기/요기' 등

'여기'/'요기'

'여기'와 '요기'는 대명사로서 'ㅕ'와 'ㅛ'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국립국어원 1999: 4305, 4601)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공유의미에다가 '요기'보다 좀 더 넓은 범위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적 정도성의 크기가 더 넓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반면에 '요기'는 공유의미에다가 '여기'보다 좀 더 정확하고 좁은 범위를 가리키는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적 정도성의 크기가 더 좁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2) 'ㅣ'와 'ㅛ'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이것/요것' 등

'이것'/'요것'

'이것'와 '요것'은 대명사로서 'ㅣ'와 'ㅛ'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국립국어원 1999: 4900, 4600)라는 것이다. '이것'은 공유 의미에다가 평범한 뉘앙스를 덧붙여 '요것'보다 크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된다. '요것'은 공유 의미에다가 낮잡아 이르거나 귀엽게 이르는 뉘앙스를 덧붙여 '이것'보다 작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8) 'ㅓ'와 'ㅗ'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저기/조기, 저것/조것,

거기/고기’ 등

① ‘저기’/‘조기’

‘저기’와 ‘조기’는 대명사로서 ‘ㅓ’와 ‘ㅗ’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단어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국립국어원 1999: 5276, 5518)라는 것이다. ‘저기’는 공유 의미에다가 평범한 뉘앙스로 ‘조기’보다 좀 넓은 범위라는 느낌을 덧붙여 주관적 정도성의 크기가 크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반면에 ‘조기’는 공유 의미에다가 ‘범위가 좁은 느낌’이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저기’보다 주관적 정도성의 크기가 작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② ‘저것’/‘조것’

‘저것’과 ‘조것’은 대명사로서 ‘ㅓ’와 ‘ㅗ’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국립국어원 1999: 5275, 5515)라는 것이다. ‘저것’은 공유 의미에다가 평범한 뉘앙스를 덧붙여 ‘조것’보다 크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된다. ‘조것’은 공유 의미에다가 낮잡아 이르거나 귀엽게 이르는 뉘앙스를 덧붙여 ‘저것’보다 주관적으로 작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③ ‘거기’/‘고기’

‘거기’와 ‘고기’는 대명사로서 ‘ㅓ’와 ‘ㅗ’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두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단어는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국립국어원 1999: 227, 409)라는 것이다. ‘거기’는 공유 의미에다가 평범한 뉘앙스로 ‘고기’보다 범위가 좀 넓다는 느낌을 덧붙여 주관적 정도성의 크기가 크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반면에 ‘고기’는 공유 의미에다가 ‘범위가 좁은 느낌’이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거기’보다 주관적 정도성의 크기가 작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5.3.2.2. 자음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의 양상

(1) 평음/경음/유기음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달랑달랑/딸랑딸랑/탈랑탈랑, 빙빙/삥삥/핑핑' 등

평음/경음/유기음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대립쌍은 보통 어떤 객관적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립쌍 내부에서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평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공유 의미에다가 약한 정도성의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경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공유 의미에다가 센 정도성의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적으로 평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보다 주관적으로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격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공유 의미에다가 거센 정도성의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적으로 평음과 경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보다 주관적으로 더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① '달랑달랑'/'딸랑딸랑'/'탈랑탈랑'

'달랑달랑', '딸랑딸랑', '탈랑탈랑'은 'ㄷ/ㄸ/ㅌ'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작은 방울이나 매달린 물체 따위가 자꾸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국립국어원 1999: 1408, 1798, 6350)이라는 것이다. '달랑달랑'은 공유 의미에다가 소리나 모양이 흔들리는 빈도가 '딸랑딸랑'와 '탈랑탈랑'보다 낮다는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적으로 흔들리는 소리 혹은 그 모양의 빈도가 낮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으로 된다. '딸랑딸랑'은 공유 의미에다가 '달랑달랑'보다 소리나 그 모양이 흔들리는 빈도가 높은 뉘앙스를 덧붙여 '달랑달랑'보다 주관적으로 해당 정도성이 세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탈랑탈랑'은 '달랑달랑'보다 심지어 '딸랑딸랑'보다 소리나 그 모양이 흔들리는 빈도가 더 높은 뉘앙스를 덧붙여 '딸랑딸랑'보다 주관적으로 더 거세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72) 가. 귀고리가 **달랑달랑** 흔들린다.

나. 그는 계단을 올라 전당포 문을 열었다. **딸랑딸랑** 문 위에 걸린 종이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다. 재미있는 술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잔을 받치는 높은 굽 안에 방울이 들어 있어서, 잔을 흔들면 **탈랑탈랑** 소리가 났다.

(172가)에서 귀고리가 흔들리는 모양은 '딸랑땅랑'와 '탈랑탈랑'처럼 너무 세게 나타나지 않아 화자가 이것을 주관 소량의 표현인 '달랑달랑'으로 사용했다. (172나)에서는 문 위에 걸린 종이 신경질적으로 울렸으므로 '달랑달랑'할 정도가 아니라 주관 대량의 표현인 '딸랑딸랑'으로 사용했다. (36다)에서는 잔을 흔들면 나는 소리의 빈도수가 '딸랑딸랑'할 정도보다 더 높아 화자는 주관 대량의 표현인 '탈랑탈랑'으로 사용했다.

② '빙빙'/'뼹뼹'/'핑핑'

'빙빙', '삥삥', '핑핑'은 'ㅂ/ㅃ/ㅍ'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약간 넓은 일정한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국립국어원 1999: 3023, 3082, 6699)이라는 것이다. '빙빙'은 공유 의미에다가 도는 빈도수 및 속도감이 '삥삥'이나 '핑핑'보다 약한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적 정도성의 크기가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삥삥'은 공유 의미에다가 '빙빙'보다 높은 도는 빈도수 및 속도감이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적 정도성의 크기가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핑핑'은 공유 의미에다가 '삥삥'보다 더 높은 도는 빈도수 및 속도감이라는 뉘앙스를 덧붙여 주관적 정도성의 크기가 더 강하다고 평가 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빙빙', '삥삥', '핑핑'은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도는 빈도수 및 속도감에 대한 주관량의 크기에 따라 '빙빙'<'삥삥'<'핑핑' 순으로 점점 커진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73) 가. 7일 유튜브에 올라온 수컷 칠면조는 나사가 빠진 듯 **빙빙** 돌

다가 넘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낸다.

나. 나는 마침내 방 안을 **뼁뼁** 돌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텔레비전이 있는 쪽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다. 넘어져 있는 자전거를 보았을 때, 사슬은 끊어져서 흙받기 옆에 붙어 있고, 고무 페달만 싱겁게 **핑핑** 돌다가 멎는다.

(173)는 ‘빙빙’, ‘뼁뼁’, 그리고 ‘핑핑’이 각각 ‘돌다’와 공기하여 쓰는 예들이다. (173가)에서는 화자가 보는 칠면조가 도는 빈도수와 속도감이 그렇게 높다고 평가되지 않아 있다. (173나)에서는 내가 도는 빈도수와 속도감이 높다고 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그리고 (173다)에서는 고무페달이 너무 세게 도는 것처럼 느끼고 빈도수와 속도감이 분명히 ‘뼁뼁’보다 더 세다고 평가되어 있다는 말이다.

(2) 평음과 유기음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달곰하다/달콤하다, 시금하다/시큼하다’ 등

① ‘달곰하다’/‘달콤하다’

‘달곰하다’와 ‘달콤하다’는 ‘ㄱ’와 ‘ㅋ’의 자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감칠맛이 있게 달다’(국립국어원 1999: 1405, 1414)라는 것이다. ‘달곰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단맛이 약간 난다는 뉘앙스를 덧붙여 ‘달콤하다’보다 여린 느낌을 갖고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달콤하다’는 공유 의미에다 단맛이 돌 정도로 난다는 뉘앙스를 덧붙여 ‘달곰하다’보다 단 맛이 더 낫게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뿐만 아니라 ‘달곰하다’는 오직 감칠맛이 있게 달다는 뜻만 갖고 있는 반면에 ‘달콤하다’는 은유에 의해 의미 확장되어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달콤한 휴식)이나 아기자기하거나 간드러진 느낌(달콤한 목소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② ‘시금하다’/‘시큼하다’

‘시금하다’와 ‘시큼하다’는 ‘ㄱ’와 ‘ㅋ’의 자음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

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맛이나 냄새 따위가 시다'(국립국어원 1999: 3766, 3801)는 것이다. '시금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조금 시다'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시큼하다'보다 신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시큼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꽤 시다'(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158)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시금하다'보다 신맛의 정도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3) **평음과 경음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가분하다/가뿐하다, 검다/껌다' 등

① '가분하다'/'가뿐하다'

'가분하다'와 '가뿐하다'는 'ㅂ'와 'ㅃ'의 자음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들기가 가볍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가볍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몸의 상태가 가볍고 상쾌하다'라는 것이며, 넷째는 '마음에 부담이 없이 가볍고 편안하다'라는 것이다(국립국어원 1999: 39, 40). '가분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조금 가볍다'라는 뜻으로 '가뿐하다'보다 여린 뉘앙스를 덧붙여 가볍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가뿐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매우 가볍다'라는 뜻으로 '가분하다'보다 가벼운 정도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② '검다'/'껌다'

'검다', '껌다'는 'ㄱ'와 'ㄲ'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고 짙다'(국립국어원 1999: 283, 987)라는 것이다. '검다'는 공유 의미에다 명도와 농도에 있어 '껌다'보다 약한 뉘앙스를 덧붙여 대립쌍에서 정도성의 크기에 있어 주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껌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검다'보다 명도와 농도에 있어 더 어둡고

짙은 뉘앙스를 덧붙여 대립쌍에서 정도성의 크기에 있어 주관적으로 세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74) 가. 남루하지만 그 얼굴은 햇볕에 타서 **검게** 구릿빛을 하고 있었다.

나. 그의 얼굴은 마치 재를 뒤집어쓴 사람처럼 **껌었다**.

(174)에서 '검다'와 '껌다'가 수식하는 사물은 똑같이 '얼굴'인데 화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다른 주관량 표현을 사용했다. (174가)에서는 얼굴이 햇볕에 구릿빛으로 타서 '껌다'보다 약하다고 평가되어 화자는 주관 소량 표현인 '검다'를 사용했다. 반면에 (174나)에서는 얼굴이 마치 재를 뒤집어쓴 것처럼 '검다'보다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 표현인 '껌다'를 사용했다.

(4) 경음과 유기음의 교체에 의한 주관량 표현: '뭉뚝하다/뭉툭하다, 껌껌하다/컴컴하다' 등

① '뭉뚝하다'/'뭉툭하다'

'뭉뚝하다'와 '뭉툭하다'는 'ㄸ'와 'ㅌ'의 자음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굵은 사물의 끝이 짧고 무디다'(국립국어원 1999: 2329, 2330)라는 것이다. '뭉뚝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생각보다 짧거나 길지 않고 끝이 뚝 끊어진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여 '뭉툭하다'보다 짧고 무딘 느낌에 있어 좀 덜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뭉툭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워낙 짧고 끝이 끊긴 뉘앙스를 덧붙여 '뭉뚝하다'보다 짧고 무딘 느낌에 있어 더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75) 가. **뭉뚝한** 꼬리를 흙바닥에 팡팡 쳐대면서 털썩 주저앉은 네꼬사

마(고양이)는 우리나라 길냥이들이랑은 달리 사람이 가도 도망 은커녕 태평스럽기만 하다.

나. 강아지는 **뭉툭한** 꼬리를 계속 흔들어 댔다

다. 토끼 꼬리는 왜 짧고 **뭉툭할까**?

(175)에서는 화자가 '꼬리' 길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뭉뚝하다'와 '뭉툭하다'를 다르게 사용했다. (175가)에서는 일본 고양이의 꼬리 길이는 생각보다 길지 않고 무디게 평가되어 주관 소량 표현인 '뭉뚝하다'를 사용했다. 반면에 (175나, 다)에서는 강아지와 토끼의 꼬리 길이가 워낙 짧고 무뎌 '뭉뚝하다'보다 짧고 무딘 정도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 표현이 '뭉툭하다'를 사용하게 되었다.

② '껌껌하다'/'컴컴하다'

'껌껌하다'와 '컴컴하다'는 'ㄲ'와 'ㅋ'의 자음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는 '아주 어둡다'(국립국어원 1999: 987, 6249)라는 것이다. '껌껌하다'는 '빛이 아주 모자라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어둡다'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이는데 즉, 빛이 전혀 없는 경우와 빛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모자라 어두우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다. '컴컴하다'보다 어두운 정도성이 조금 덜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다. '컴컴하다'는 공유 의미에다가 '시커멓게 보이도록 매우 어둡다'라는 빛이 전혀 없는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였는데 '껌껌하다'보다 어두운 정도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리고 '컴컴하다'는 은유에 의해 의미 확장되어 '음흉하고 욕심이 많다'와 '앞날이 거칠고 희망이 없다'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76) 가. 전등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이 몹시 **껌껌했다**.

나. 방이 너무 **컴컴해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다.

(176)에서는 주로 '방안이 어둡다'는 것에 대해 화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껌껌하다'와 '컴컴하다'가 다르게 쓰이는 것이다. (176가)에서는 전등이 켜져 있었지만 빛이 여전히 너무 모자라 어둡다는 뜻이라서 '컴컴하다'보다 어둠에 대해 좀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 표현인 '껌껌하다'를 사용했다. (176나)에서는 빛이 전혀 없어서 너무 어둡다는 뉘앙스인데 '껌껌하다'보다 어둠에 대해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 표현인 '컴컴하다'를 사용했다.

이상에서 음운교체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의 양상을 다루어 보았다. 모음 교체에 의해 이루어진 주관량에 있어 여덟 가지의 양상, 자음 교체에 의해 이루어진 주관량에 있어 네 가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음운교체에 의해 실현된 주관량은 항상 대립쌍 형식으로 나타난다. 대립쌍이 이루어진 항들 간에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그 대립쌍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량을 바탕으로 모음이나 자음 교체를 통해 주관성을 넣어 주관량이 생성된 것이다. 모음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에 있어 양성모음에 의한 주관량은 공유하는 객관적 의미에다가 늘 '명랑하다', '밝다', '날카롭다', '작고 가볍다', '긍정' 같은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임으로써 음성모음에 의한 주관량보다 덜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되며, 반면에 음성모음에 의한 주관량은 공유하는 객관적 의미에다가 '음침하다', '어둡고 둔하다', '크고 무겁다', '부정' 같은 주관적 뉘앙스를 덧붙임으로써 양성모음에 의한 주관량보다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자음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에 있어 '주관량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평음→경음→유기음'의 순서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공유하는 객관적 의미를 바탕으로 평음에 의한 주관량은 경음이나 유기음에 의한 주관량보다 항상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되는 반면에 경음이나 유기음에 의한 주관량은 평음에 의한 주관량보다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으로 나타난다.

6.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차원에서 주관량과 관련된 언어적 인지 규칙을 다루었다.

첫째, 본고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연구에 새로운 범주를 도입해 주관량과 관련된 표현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주관량 표현들에 대한 연구는 숨겨져 있는 언어적 인지규칙을 밝히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주관량이란 언어의 주관성이 언어화된 양범주에 반영되어 형성된 개념이며, 인지언어학의 핵심 개념으로서 중국어학계나 영어학계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주관량 연구는 아직 새로운 연구 분야라서 주관량의 정의, 생성원리, 구분기준,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으로 다양한 실례를 살펴보며 먼저 한국어 주관량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개념들, 즉 언어화된 양범주, 주관성 및 주관화와의 관련성을 자세히 해석했고, 그 다음에 수량사구에 관련된 주관량의 형성과정, 정의, 참조량, 생성원리, 구분기준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그리고 나서 주로 형태론, 통사론, 그리고 그 외의 차원에서 해당 주관량 표현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본고는 한국어 주관량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형태적•통사적 부호화 양상을 수집하고 이를 분류하였으며, 그리고 그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주관량의 구분기준에 있어서 본고에서는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과의 비교', 그리고 '실제량이 해당 수량사구가 나타내는 양과의 비교'와 같은 두 가지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주관량을 여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결과 주관량은 초과 주관 대량, 일치 주관 대량, 미달 주관 대량, 그리고 초과 주관 소량, 일치 주관 소량, 미달 주관 소량 등으로 세분된다. 이에 따라 주관량 표현도 여섯 가지로 나뉘는데 초과/일치/미달 주관 대량 표현, 그리고 초과/일치/미달 주관 소량 표현 등이다. 그리고 표현 방식에 따라

주관량 표현을 세분하기도 하였다. 주관량 표현은 그 표현 방식에 따라 형태적 표현(형태소/단어), 통사적 표현(단순/복합), 조어론적 표현(중첩/지소사/지대사), 과장적 표현(사자성어), 음운적 표현(운소, 모음·자음 교체)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주관량의 형태적 표현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언어적 인지규칙을 찾아냈다.

(1) 주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의 품사를 살펴보면 부사와 조사는 주관량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동사, 형용사, 명사, 관형사보다 훨씬 더 우세를 보인다. 이는 주관량과 관련하여 부사와 조사의 주관화 정도가 다른 품사의 주관화 정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2)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의 주관화 정도가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보다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는 경우에 따라 객관량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주관 소량을 나타내는 형태소·단어는 객관량을 거의 나타낼 수 없다.

(3) 주관 대량과 주관 소량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전형적인 예는 조사 '-도'와 '-까지'이다. 이처럼 '-도'와 '-까지'가 주관 대량과 소량을 나타낼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까닭은 현저성 원리(salience principle)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도'와 '-까지'에 의해 주관 대량이 실현되는 것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의 최대치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인지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와 '-까지'에 의해 주관 소량이 실현되는 것은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의 최소치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인지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넷째, 주관량의 통사적 표현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언어적 인지규칙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주관 대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보다 주관 소량의 단순 통사적 표현은 주관화 정도가 높아서 객관량을 표현하기 어렵다.

(2) 주관량의 통사적 표현은 형태적 표현보다 문법 요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3)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에서는 의미협력과 의미변형 등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의미변형 양상보다 의미협력 양상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리고 주관량의 복합 통사적 표현에 있어 보통 주관성이 약한 표현은 주관성이 강한 표현 쪽으로 의미협력이 이루어지거나 의미변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본고는 인지언어학 관점으로 주관량과 긍정/부정적 표현 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주관 대량은 항상 긍정적 표현에 의해 실현되며, 주관 소량은 항상 부정적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이것은 시작량(始作量)과 실제량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주관량 생성 과정에서 심리적 참조량이 바로 시작량이다.

(1) 주관 대량의 경우,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다고 평가되어, 수직선 도식으로 나타낼 때 실제량은 항상 시작량의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실제량은 시작량에 비해 늘 플러스 무한대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긍정적 표현이 필요하다.

(2) 반대로 주관 소량의 경우, 실제량이 심리적 참조량보다 적다고 평가되어, 수직선 도식으로 나타낼 때 실제량은 항상 시작량의 왼쪽에 있다. 그래서 실제량은 시작량에 비해 늘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부정적 표현이 필요하다.

여섯째, 형태적 차원과 통사적 차원 외에 다른 차원에서도 주관량의 표현을 찾아내었다. 주로 다음과 같이 세 차원이다.

1) 조어론적 차원에서 중첩과 지대사/지소사에 의해 주관량을 실현할 수 있다.

(1) 중첩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중첩 현상을 통해 형태적 변화를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중첩은 형태적으로 주로 완전 중첩과 부분 중첩으로 나뉜다. 의미적으로 체언 중첩의 경우 중첩을 통해 복수, 강조, 크기의 증가, 개체성의 배분, 그리고 전체성이라는 뉘앙스를 가져올 수 있다. 용언 및 부사 중첩의 경우 중첩을 통해 지속, 계속, 반복, 강조, 작용된 주체나 대상의 복수성이라는 뉘앙스를 가져올 수 있다. 인지적으로 볼 때는 중첩 전후에 의미가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

약화/경감되는 경우도 있다. 강화 및 약화 장치는 객관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지만,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일이 많다. 그런 점에서 중첩은 주관량과 관련된다. 즉, 화자가 지시대상에 대해 생각보다 많다거나 적다고 느끼게 될 때 중첩 전의 중립적 성분에다가 중첩을 통해 많다거나 적다고 평가된 주관적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해당 주관 대량이나 소량을 만들게 된 것이다.

(2) 지소사(diminutive)와 지대사(augmentative)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사물·동물·인간 등을 가리키는 명사에 지소사나 지대사를 붙일 수 있는 언어들이 있다. 지소사나 지대사가 파생접사의 성격을 띠고 생산성이 높지 않아 매우 제한된 명사에만 붙을 수 있는 언어도 있지만, 이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은 언어도 있다. 이 때 지소사나 지대사가 붙지 않은 중립적인 명사를 쓰는 경우는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소사를 붙이는 경우는 화자가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그 크기가 작다고 느끼는 경우이고, 지대사를 붙이는 경우는 화자가 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해 그 크기가 크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즉 지소사는 주관 소량을 나타내고, 지대사는 주관 대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소사의 의미가 단순히 크기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주관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일도 흔히 있다. 즉 크기가 작다는 뜻으로부터 친근함, 귀여움, 긍정적 평가 등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쪽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의해 지소사가 지니는 주관성도 더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는 지대사가 발달하지 않은 편이고 지소사가 많이 발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고는 주로 일부 지대사와 지소사를 다루면서 해당 주관량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 한국어 과장 표현에 의한 주관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과장을 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늘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주관성을 부여한다. 분량, 수효, 거리, 액수, 시간, 강도, 정도 같은 양범주와 연계시켜 평가한다면 주관량이 생성된 것이다. 향대과장(向大誇張)의 경우에

는 해당 양이 생각보다 많거나, 크거나, 강하거나, 무겁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 것이며, 향소과장(向小誇張)의 경우에는 해당 양이 생각보다 적거나, 작거나, 약하거나, 가볍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된 것이다. 한국어 과장 표현의 주관량은 수사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향대과장에 나타난 주관 대량과 향소과장에 나타난 주관 소량의 양상을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에 따라 1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 2개의 수사로 이루어진 과장 표현, 전후 대비 과장 표현, 수사 중첩 과장 표현, 수사가 없지만 양에 상당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과장 표현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사자성어에 나타난 수사는 대부분 객관적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축된 내재적 뜻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허수일 뿐이다. 따라서 사자성어에 나타난 수사들은 해석에 따라 주관적 판단의 경향이 큰데 특히 과장적 뉘앙스가 늘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사들은 순수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양, 범위, 정도 등의 크기를 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포되어 있는 수사에 의해 사자성어는 주관량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생각보다 많다고 평가된 과장적 사자성어 표현은 주관 대량이 되는 반면 생각보다 적게 평가된 과장적 사자성어 표현은 주관 소량이 된다.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전자는 과장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양이 확대된 것인데 후자는 과장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양이 축소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유형 외에 전후 수사의 비교에 의한 과장적 사자성어도 있는데 즉, 앞뒤에서 나온 수사의 비교를 통해 경우에 따라 주관 대량인지 소량인지 판단할 수 있다. 한국어 사자성어에서 나타난 주관량 표현들은 주로 주관 대량으로 나타나고 주관 소량과 관련된 사자성어는 많지 않다.

3) 주관량의 음운적 표현 연구는 음운적 차원에서 주관량이 생성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언어적 인지규칙을 밝히게 되었다.

(1)주관량이 음운에 반영되었을 때의 억양, 음장과 강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화자는 해당 양범주에다가 억양, 음장과 강세를 달아줌으로

써 객관적 평가를 주관적 평가로 바꾸는데 이때 원래 가지고 있던 사전적 원형(辭典的原形) 의미가 심리적 참조량이 된다. 이 참조량과 비교함으로써 억양, 음장과 강세를 얹은 양범주는 긍정적 단어가 될 경우 참조량보다 더 낫다고 주관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생성되며, 부정적 단어가 될 경우 참조량보다 더 못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생성된다. 화맥이나 문맥에 따라 수량사구에 억양, 음장과 강세를 놓음으로써 주관량을 나타내는 경우 일치 주관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음운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이다.

① 내적 변화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들은 형태적으로는 '음운 교체'라는 특징을 지니며, 의미적으로는 '정도성의 크기 변화'라기보다는 정도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추가함으로써의 '주관량의 변화'라는 특징을 지닌다. 내적 변화에 의한 주관량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운 교체에 의해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이 이루어진다. 주관량 대립쌍으로 구성된 단어들 간에 공유하고 있는 의미는 객관적인 것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가 공유 의미에 주관적 평가, 감정, 태도, 기분 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표현은 정도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 주관 소량이 되며, 정도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주관 대량이 된다. 대립쌍에서 단어는 서로 상대방을 참조량으로 삼는다.

② 모음 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경우 모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에서 그 '주관량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양성모음→음성모음'의 순서로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양성모음을 지닌 단어들은 보통 '명랑하다', '밝다', '날카롭다', '작고 가볍다'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좋은 느낌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에 음성모음을 지닌 단어들은 보통 '음침하다', '어둡고 둔하다', '크고 무겁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부정적인 평가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모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에서 양성모음을 지닌 단어는 정도성이 좀 낮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음성 모음을 지닌 단어는 정도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도상성(iconicity)의 '양의 원리(quantity principle)'에

따르면 모음교체에 의한 주관량의 대립쌍에서 양성모음에 의한 단어는 주관 소량이 되는 반면에 음성모음에 의한 단어는 주관 대량이 된다.

③ 자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의 경우 자음교체에 의해 생성된 주관량 표현의 대립쌍에서 그 '주관량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평음→경음→유기음'의 순서로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평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공유 의미에다가 약한 정도성을 덧붙여 약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소량이 되며, 경음이나 유기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공유 의미에다가 높은 정도성을 덧붙여 강하다고 평가되어 주관 대량이 된다. 그 중에서 보통 경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평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을 참조량으로, 그리고 유기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은 경음에 의한 주관량 표현을 참조량으로 삼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을 널리 살펴보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면밀히 기술하고 나아가 한국어 주관량 표현에 담긴 언어적 인지규칙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아지 많이 남아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어 주관량 표현을 찾아 그 특성을 밝히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본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한국어 주관량 연구에 보다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한글 문헌]

곽동기(1987), 중첩 현상에 관하여, ≪論文集≫ 23, 新羅大學校, pp.5-23.

곽추문(1995), ≪한국어 분류사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구본관(1999), 축소 접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34, 국어학회, pp.109-141.

구현정(2004), 존비어휘화에 나타나는 인지학 양상, ≪한국어 의미학≫ 14, 한국어의미학회, pp.97-120.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상·중·하)≫, 서울: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국어조사연구위원회(1972), ≪된소리 및 긴소리 연구≫, 문교부.

권기양(2006), 한국어 중첩현상에 대한 연구, ≪영산논총≫ 16, 영산대학교, pp.49-66.

김경원·김철호(2010), ≪국어실력이 밥먹여준다(낱말편1·2)≫, 유토피아.

김광해(1982), 자음교체에 의한 어휘분화현상에 대하여, ≪국어교육≫ 4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137-160.

김기영(1978), ≪國語體言의 接尾辭 硏究 -現代 國語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김기영(2004), 體言形成接尾辭硏究-현대국어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12,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p.77-106.

김동환(2001), 주관화와 의미확장, ≪현대문법연구≫ 23-1, 현대문법학회, pp.127-148.

김무림(2012), ≪한국어 어원사전≫, 도서출판 지식과교양.

김미형(2003), 한국어의 과장 표현 연구,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pp.39-84

김민수·최호철·김무림(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말본론≫, 탑출판사.
김선철(1997), ≪국어억양의 음성학·음운론적 연구: 서울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철(2011), 국어 형용사와 부사의 표현적 장음화-<연세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언어학≫ 59, pp.51-69.
김영근(2000), ≪국어 수량사 연구≫, 문창사.
김영석, 이상억 공저(2008), ≪현대형태론≫, 학연사.
김영희(1976), 한국어 수량화 구문의 분석, ≪언어≫ 1-2, pp.89-112.
김영희(1981), 부류 셈숱말로서의 셈가름말, ≪배달말≫ 6, 배달말학회, pp.1-28.
김영희(1984, 2006), ≪한국어 셈숱화 구문의 통사론≫, 탑출판사.
김유권(2001), 현대국어 중첩구성의 통사특성 연구, ≪겨레어문학≫ 27, 겨레어문학회, pp.319-345.
김유권(2012), 15세기 국어의 어미 중첩구성 연구, ≪겨레어문학≫ 48, 겨레어문학회, pp.279-300.
김지홍(1994), 수량사를 가진 명사구의 논항구조, ≪배달말≫ 19-1, 배달말학회, pp.1-48.
김창섭(1991), ‘하다’ 형용사에서의 표현적 장음,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pp.744-762.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철남(1992), ≪근대국어 이름씨의 접미파생법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철호(2006), 3월17일 한국어 연습장, ≪한겨레≫, 2006-3-17.
김　현(2003), 교양 방송 프로그램 해설의 초점과 억양,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207-223.
남영신(2005), ≪한국어용법핸드북≫, 모멘토.
박금자(1985), ≪國語의 量化詞 硏究-의미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동근(2006), 내적변화에 의한 파생과 유표성: 흉내말의 홀소리 교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19, 한말연구학회, pp.95-120.

박동근(2009), 17세기 국어의 첩어 실현 양상, ≪언어와 문화≫5-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105-129.
박종후(2013), 한국어에서 중첩의 유형 분류와 기능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3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97-129.
박진호(2011), 소유 분류사와 한국어의 속격 표지, ≪유형론연구회 제4회 연구발표회자료집≫, pp.25-29.
박청희(2004), ≪현대국어 파생접미사 연구-형용사 파생접미사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79.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도서출판 박이정.
백원국(1986), 重疊語의 形態構造 硏究-固有語를 中心으로-, ≪明知語文學≫ 17-18, 명지어문학회, pp.59-92.
서상규(2014),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빈도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손달임(2012), ≪현대국어 의성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270.
손용주(1997), 현대국어 음소교체 색상어의 형태적 유형, ≪우리말글≫ 15, 대구어문학회, pp.83-104.
손춘섭(2003), 국어의 내적 변화 파생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133, 국어국문학회. pp.79-112.
송재목(2002), 한국어 형용사 반복 구문, ≪국제학술회의 논문집≫1, 국립국어연구원, pp.359-373.
송정근(2009), 감각표현의 형태론적 절차와 그 의미기능, ≪정신문화연구≫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pp.109-132.
송정근(2010), 중첩의 두 유형, ≪한국어의미학≫ 33, 한국어의미학회, pp.131-152.
송정근(2011), 형용사 중첩의 "-디-"에 대하여, ≪인문논총≫ 66권, 겨레어문학회, pp.299-320.
안수영, 서정민(2003), 중첩현상과 제약 상충, ≪論文集≫13, 東新大學校, pp.341-363.
양위남(2012), ≪한국어 파생명사의 형태론적 연구≫, 강원대학교석사학

위논문.
양인석(1973), Semantics of Delimiters, ≪어학연구≫9-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84-122.
양해승(2014), 한국어의 주관량(主觀量, Subjective Quantity) 표현, ≪국어학≫ 71, 국어학회, pp.127-188.
연변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 사전≫, 연변인민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우형식(2001),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운평어문연구소(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유구상(1976), 동의중첩어의 구조, ≪어문논집 17권≫, 민족어문학회, pp.115-135.
윤병달(1993), 영어에 있어서 의미의 주관성과 통사적 표면형, ≪언어연구≫ 9-1, 한국현대언어학회, pp.117-133.
윤재학(2000), 연접적 '-이나', ≪언어와 정보≫4-2, 한국언어정보학회.
이기동(1988), 인지문법의 소개, ≪한글≫ No.200, 한글학회. pp.359-410.
이기동(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ples≫, 한국출판사.
이기동(1989), 언어 주관성의 문제, ≪한글≫ No.206, 한글학회, pp.165-196.
이문규(1996), 음운교체와 상징어의 어감 분화, ≪어문학≫ 57, 한국어문학회, pp.173-198.
이 민(2012), ≪구어체 종결 표현 '-을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근(1986), 發話에 있어서의 音長, ≪국어학≫ 제15집, 국어학회, pp.1-39.
이석규(1987), ≪현대 국어 정도 어찌씨의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석주(2007), 동의중첩현상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22권, 한국어교육학회, pp.385-406.
이선희(2003), 현대중국어의 주관량 전도와 어순변화, ≪중국언어연구≫17, pp.225-249.

이성하(2001), 한국어 지소사의 문법화, ≪언어와 언어학≫28,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pp.133-149.
이성하(2011),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영길(1988), ≪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이영길(2004), 첩어의미 연구, ≪영어영문학연구≫30-2, 영어영문학회, pp.275-297.
이영민(1998), 국어 중첩에 대한 소고, ≪서강어문≫14, 서강어문학회, pp.81-100.
이익섭(1982), 현대국어의 반복복합어의 구조, ≪국어학연구(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 기념 논충)≫, 신구문화사.
이현복(1976),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1, 한국언어학회, pp.60-72.
이호영(1991), 한국어의 억양체계, ≪언어학≫13, 한국언어학회, pp. 129-151.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이희승(1978),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임홍빈(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3-1, 국립국어연구원.
정경애(1997), ≪내적 변화 파생의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경애(1998), 내적 변화 파생에 있어서의 형식소 설정, ≪동남어문논집≫8, 동남어문학회, pp.73-88.
채옥자(2013a), 한국어의 수량범주와 그 표현 양상, ≪국어학≫68, 국어학회, pp.225-251.
채옥자(2013b), 한국어 수량 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국어학회 제40회 전국학술대회발표자료집≫, 국어학회. pp.89-102.
채옥자(2014a), 한국어 주관적 수량 표현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46, pp.351-377
채옥자(2014b), ≪한국어 수량 표현 연구≫, 도서출판 역락.

채　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 서울대학교.
채　완(1986), 국어 어순의 연구, ≪국어학 총서 10≫, 태학사.
채　완(1986), 특수조사, ≪국어생활≫ 5, 국어연구소.
채　완(1998), 특수조사, ≪이익섭 선생 회갑기념논총: 문법 연구와 자료(상)≫, 태학사.
최경애(1992), 국어의 어중중첩에 관한 연구, ≪論文集≫ 21, 牧園大學校, pp.47-59.
최웅환(2009), 국어 문장 성분의 중첩 현상, ≪언어과학연구≫ 50, 언어과학회, pp.225-244.
최윤희(2010), ≪최윤희의 웃음 비타민≫, 원앤원북스.
최혜원(2004), 느낌대로 길게 말하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최현배(1946). ≪우리말본 재판≫, 정음사.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상·하)≫, 국학자료원.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한글학회(2005), ≪우리말 사전≫, 글나래.
허　웅(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홍사만(1983), 조사 「라도」의 의미 분석, ≪어문학≫ 43, 한국어문학회.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홍석준(2014), 한국어 색채형용사에 나타난 파생어근 분석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71-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159-197.

[영문문헌]

Finegan, E.(1995).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 an introduction.* Stein, D. & S. Wright (eds).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Linguistic perspectives,* 1- 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gerer, F. & H-J. Schmid(200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

uistics-Second Edition. Pearson Education Limited. [彭利貞, 許國萍, 趙微 共譯(2009), 認知言語學導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Heine, B., U. Claudi & F. Hünnemeyer(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옮김(2006),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도서출판박이정]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 Ronald W.(1991a).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 is of grammar*. Berlin: de Gruyter .

Langacker, Ronald W. (1991b).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Ⅱ.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Langacker, Ronald W.(198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Grammar.* Cognitive Science 10. pp.1-4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Langacker, Ronald W.(1999a). *Losing Control: Grammaticalization, Subjectification, and Transparency.* In: A. Blank, & P. Koch (Eds.), Historical Semantics and Cognition, pp.147-175. Cognitive Linguistics Research 13.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Langacker, Ronald W. (1999b).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Cognitive Linguistics Research 14.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Lyons. J.(1977), *Semantic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pir, Edward(1921)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Harcourt, Brace and World, New York.

Traugott, E.C. (1995). *Subjectification in Grammticalization.* In Stein, D. & S. Wright 1995,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Cambri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1-54.

[중문문헌]

羅榮華(2012), ≪古代漢語主觀量表達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譚鑫田(1992), ≪西方哲學詞典≫, 山東人民出版社.

馬 眞(1981), 修飾數量詞的副詞, ≪語言教學與研究≫, 第1期, pp.53-60.

徐李潔(2009), 主觀化與Be sure to結構的主語屬性,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Vol.22 No.4, pp.39-50.

施關淦(1988), 試論時間副詞“就”, ≪語法研究和探索≫（四）,商務印書館.

沈家煊(2001), 語言的“主觀性”和“主觀化”, ≪外語教學與研究（外國語雙月刊)≫ 第33卷 第4期, pp.268-275.

王 寅(2006), ≪認知語法概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李善熙(2003), 漢語主觀量的表達研究, 中國社會科學院 박사학위논문.

李宇明（2000), ≪漢語量範籌研究≫, 華中師範大學出版社.

아리스토텔레스 저, 吳壽彭 역(1991). ≪形而上學≫. 北京: 商務印書館.

張誼生·吳繼光(1994), 略論副詞“才”的語法意義, ≪語法研究與語法應用≫, 邵敬敏主編, 北京語言學院出版社,

趙艷芳(2011), ≪認知言語學概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陳小荷(1994), 主觀量問題初探－兼談副詞‘就’, ‘才’, ‘都’, ≪世界漢語教學≫ 4. pp.18-24.

Abstract

A Study on Korean Subjective Quantity Expression

Liang Hai-she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bjective quantity denotes a concept that is formed by the embodiment of human subjectivity within the scope of quantity category in the language field. As a core concept of cognitive linguistics, it gets a lot of attention among scholars in the circles ofChinese and English linguistics. But, study on subjective quantity is still an emerging research field in the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so the study about subjective quantity's concept, formation principl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means of expression is yet to form a systematic research system.

This paper used a large number of Korean examp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firstly to analyze various important concepts on Korean subjective quantity in details, for example, linguistic quantity category, subjectivity & subjectification, and to define concept of subjective quantity, reference quantity, forming principle, on this basis, an in-depth research is conducted into classification criterion of subjective quantity on number phrases. Secondly, this paper researched subjective quantity expression mainly from morphology and syntax systematically.

Finally, this paper researched Korean subjective quantity ex-

pressions from other levels, mainly involving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Subjective quantity expressions formed by reduplication and diminutive/augmentative in the level of word-formation. 2) Subjective quantity expressions formed by exaggerated expressions, especially by four-character idiomatic phrases containing numerals with exaggerated sense. 3) Subjective quantity expressions formed by intonation, accent, length, and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the level of phonology.

In the research on subjective quantity expression method, this paper mainly adopted the following theories: subjectivity and subjectification, salience theory, semantic expansion theory, image schema theory, metaphor theory, iconicity theory, semantic coordination & variation theory on cognitive linguistics, and so on. This paper is intended to fill the blank in the research of Korean subjective quantity, and play a positive reference role in solving many problems on Korean subjective quantity.

keywords : subjective quantity expression of Korean, subjective quantity, reference quantity, large subjective quantity, small subjective quantity.

Student Number : *2011-31245*